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교육학 석사 학위논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포부와
학생 및 학습 변인의 위계적 관계

A Hierarchical Linear Relationship of Student and
Classroom Variables with Employment Aspirations
of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2018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

박 자 정

국 문 초 록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포부와 학생 및 학급 변인의 위계적 관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8년

박 자 경

이 연구의 목적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포부와 학생 특성 및 학급 수준 변인의 관계를 구명하는데 있었다. 이를 위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포부에 대한 학생 및 학급 수준의 변량을 구명하고 각 변인들의 효과를 구명했다. 그 후 유의미한 영향관계를 보인 변인을 대상으로 상호작용 효과에 대해 검증하였다.

이 연구는 특성화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2016년 기준 특성화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96,419명의 3학년 학생을 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 표본의 특성과 자료 분석 방법을 고려하여 표집 인원은 40개 학급의 2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총 800명으로 설정하였다. 표집은 다층 분석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비례층화표집을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조사도구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포부 및 학생 및 학급 수준 변인을 측정할 수 있는 변인들로 구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학생 대상 설문지는 취업포부와 인구통계학적 특성, 직업교육 흥미, 학교생활 만족도, 평균성적, 교육포부, 가정환경 특성, 가정의 진로지지, 취업지원 정도로 총 7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학급 수준 변인 중 교사의 직업교육 인식과 관련한 문항은 기 개발된 문항이 없어 문항개발 절차에 따라 문항을 개발하여 진행하였

다. 그 이외의 문항으로는 교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취업지도 능력 등 총 5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자료 수집은 문항의 신뢰도와 타당도 조사를 위한 예비조사는 2017년 9월 25일부터 10월 10일에 이루어졌고, 본 조사는 10월 13일부터 29일까지 방문조사 및 우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배포된 설문지 800부 중 765부(회수율 97.0%)가 회수되었다. 자료 분석은 SPSS 23.0 for Windows 프로그램과 HLM 6.08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포부의 전체 변량 중 학급 간 차이로 설명되는 변량은 14.3%, 학생 개인 특성의 차이로 설명되는 변량은 85.7%로 나타났다. 둘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포부 수준에 전문교과 수업 흥미와 평균 성적, 가정의 진로지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문교과 수업 흥미가 1 높을 때 취업 포부 수준이 0.172 증가하고, 평균 성적이 1 증가할 때, 취업포부 역시 0.078 높아졌다. 가정의 진로지지 수준이 1 증가할 때도 취업포부 수준이 0.19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개인 수준 변인 중 학급별 차이가 있는 변인을 분석한 결과 특성화고 선택 이유, 전문교과 수업 흥미, 평균 성적, 교육포부, 산업체 견학 및 체험,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방과 후 학교 및 동아리 활동, 한부모 가정 여부, 가정의 진로지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포부와 취업관련 경험은 학생 개인의 수준에서는 취업포부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지만 학급별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급별 평균 취업포부 수준은 부장교사 여부, 담당학급의 계열(공업), 취업지원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임교사가 부장교사인 경우 평교사인 경우에 비해 취업포부가 0.177 감소하고, 학급 계열이 공업인 경우 다른 계열에 비해 0.156 감소하였다. 취업지원 정도가 1 증가하면 취업포부는 0.55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생 수준 변인과 학급 수준 변인의 상호작용 효과 분석 결과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포부와 평균 성적의 관계에서 취업지원 정도가 상호작용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포부와 산

업체 견학 및 체험의 관계에서 담당학급의 계열(공업)도 상호작용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포부는 학생 및 학급 수준 변인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포부를 분석하는데 있어 학급 수준 변인의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둘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포부에 있어서 전문교과 수업 흥미, 평균 성적, 가정의 진로지지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학급별 평균 취업포부에 부장교사 여부, 담당학급의 계열(공업), 취업지원 정도가 미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담임교사가 부장교사일수록 학생들의 취업지도 이외의 업무가 많아 취업지도에 소홀할 수 있어 학생의 취업포부가 낮아지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학생이 취업지원 정도가 높다고 인식할수록 취업포부가 높게 형성되므로 학생들에게 적절한 취업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취업지원 정도와 담당학급의 계열(공업)이 상호작용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하여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의 질에 대한 측정 및 취업포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축적될 필요가 있다. 둘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지도에 있어서 취업포부를 고려한 체계적인 진로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과 담임교사의 영향관계에 대한 연구가 더 수행되어야 한다. 특히 담임교사의 영향을 구명할 수 있는 학급 수준의 변인에 대한 연구가 추가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지원 활동 이후 적절한 피드백 제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교 수준 변인과 학급 수준 변인의 차이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주요어: 취업포부, 특성화고등학교, 위계적 관계, 다층분석

학 번: 2016-21696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3. 연구 문제	4
4. 용어의 정의	5
II. 이론적 배경	9
1.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포부	9
2.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포부에 대한 학생 수준 변인의 영향요인	28
3.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포부에 대한 학급 수준 변인의 영향요인	42
III. 연구 방법	53
1. 연구 설계	53
2. 연구 대상	56
3. 조사 도구	60
4. 자료 수집	75
5. 분석 방법	75

IV. 연구 결과	81
1. 측정 변인의 기초통계 분석 결과	81
2. 취업포부에 대한 학생 수준 변인의 효과	85
3. 취업포부에 대한 학급 수준 변인의 효과	95
4. 취업포부에 대한 학생 수준 변인과 학급 수준 변인의 상호작용 효과	97
5.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	104
V. 요약, 결론 및 제언	111
1. 요약	111
2. 결론	113
3. 제언	115
참고문헌	119
[부록 1] 예비조사 설문지(학생용)	135
[부록 2] 예비조사 설문지(교사용)	143
[부록 3] 본 조사 설문지(학생용)	149
[부록 4] 본 조사 설문지(교사용)	157

표 차례

〈표 II-1〉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연도별 진로 현황	10
〈표 II-2〉 취업포부와 유사한 용어 정의	18
〈표 II-3〉 학생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종합	30
〈표 II-4〉 학생의 직업교육 흥미 변인 종합	33
〈표 II-5〉 학생의 취업관련 경험 변인 종합	34
〈표 II-6〉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변인 종합	35
〈표 II-7〉 학생의 평균 성적 변인 종합	36
〈표 II-8〉 학생의 교육포부 변인 종합	37
〈표 II-9〉 학생의 가정환경 변인 종합	40
〈표 II-10〉 학생 가정의 진로지원 환경 변인 종합	42
〈표 II-11〉 학급 수준 변인 종합	51
〈표 III-1〉 전국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일반 현황	56
〈표 III-2〉 특성화고등학교 학급 수 현황 일반 현황	57
〈표 III-3〉 특성화고등학교 교사 수	58
〈표 III-4〉 조사도구의 구성	61
〈표 III-5〉 취업포부 신뢰도 분석 결과	62
〈표 III-6〉 교사의 일반적 특성 변인별 측정내용 및 분석내용	63
〈표 III-7〉 직업교육 인식 측정도구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66
〈표 III-8〉 직업교육 인식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67
〈표 III-9〉 취업지도능력 신뢰도 분석 결과	68

<표 III-10> 취업지원 정도 신뢰도 분석 결과	69
<표 III-11> 학생의 일반적 특성 변인별 측정내용 및 분석내용	70
<표 III-12> 전문교과 수업 흥미 신뢰도 분석 결과	71
<표 III-13> 학교생활 만족도 신뢰도 분석 결과	71
<표 III-14> 가정 내 진로관련 대화정도 신뢰도 분석 결과	74
<표 III-15> 가정의 진로지지 신뢰도 분석 결과	74
<표 III-16> 연구문제에 따른 자료 분석 방법	76
<표 IV-1> 취업포부의 기초 통계치	81
<표 IV-2> 학생 수준 변인의 기초 통계치	82
<표 IV-3> 학급 수준 변인의 기초 통계치	84
<표 IV-4>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포부와 학생 수준 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87
<표 IV-5> 취업포부와 학생특성 변인의 다중공선성 진단 결과	88
<표 IV-6> 무선효과 일원변량분석 모형 분석 결과	89
<표 IV-7> 무선효과 회귀계수 무조건 모형의 고정효과 분석 결과	90
<표 IV-8> 무선효과 회귀계수 무조건 모형의 무선효과 분석 결과	91
<표 IV-9> 공변량 분석 모형의 분석 결과	96
<표 IV-10> 무선효과 회귀계수 조건 모형의 분석 결과	98

그림 차례

[그림 II-1] 사회인지진로이론의 흥미발달 모형	24
[그림 II-2] 사회인지진로이론의 진로선택 모형	25
[그림 II-3] 사회인지진로이론의 수행 모형	26
[그림 III-1]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포부에 대한 학생 및 학급 수준 변인의 다층분석을 위한 연구 모형	55
[그림 III-2] 표집 절차 및 방법	60
[그림 III-3] 학교별 학생이 인식한 취업지원 정도 분포	69
[그림 IV-1]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학급별 취업포부 분포	81
[그림 IV-2]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전문교과 수업 흥미에 따른 취업포부의 학급별 분포	93
[그림 IV-3]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평균 성적에 따른 취업포부의 학급별 분포	94
[그림 IV-4]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가정의 진로지지에 따른 취업포부의 학급별 분포	94
[그림 IV-5]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교육 포부에 따른 취업포부의 학급별 분포	95
[그림 IV-6]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평균성적에 따른 취업포부 변화에 대한 취업지원 정도의 상호작용 효과	102

[그림 IV-7]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산업체 견학 및 체험에 따른 취업포부
변화에 대한 담당 학급의 계열(공업)의 상호작용 효과103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중등직업교육 단계의 대표적인 기관으로서 특성화고등학교는 경제 발전에 필요한 산업인력 양성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학 진학률이 높아지고 청년실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정부는 적극적인 취업 지향 정책을 제시하여 특성화고등학교를 통한 고졸채용을 장려하였다. 이명박 정부 이후 고졸 채용을 강조하는 직업교육 정책의 변화로 정부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률 향상을 강조하였다. 이에 각 학교들은 수치적인 측면의 취업률 향상에 집중하였다. 2010년 발표된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은 중등직업교육 정책을 선취업 후진학 중심으로 재편한 출발점이자 2000년대부터 꾸준히 하락해온 특성화고등학교 취업률을 반등시키는 전환점이 되었다(이주호, 홍성창, 2014; 강창성, 2013). 이러한 정책의 변화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률은 꾸준히 증가하였고, 2017년 50.6%로 17년 만에 절반 이상의 취업률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높은 취업률에도 불구하고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의 질이 여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학교의 일방적인 취업 장려 정책에 의한 결과로 취업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취업을 결정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 대부분은 대학 진학이 아닌 다른 진로로의 차선택으로 취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나 의지가 부족하고 이로 인해 취업 준비를 하는데 있어서 본인의 의지가 부족하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은 일시적인 취업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질 높은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는 특성화고등학교 졸업 시기에 취업의 목표에 대해 인식하고 본인이 원하는 분야나 준비에 대해 적당한 포부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을 결정 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요인

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에 관한 그동안의 연구들은 성별,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가정의 진로지원 등 학생 개인의 측면에 주목해왔다(채창균, 2009; 최동선 외, 2010; 최동선 외, 2011, 변수용, 2006; 이쌍철, 2016; 조규형, 2014). 특히 학생 개인의 다양한 요인이 취업을 결정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왔다. 학생의 성별, 특성화고등학교 선택 이유, 평균 성적, 교육 포부, 취업관련 경험 등의 개인 차원의 특성과 가정의 진로지지,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이 진학이 아닌 취업을 결정하는데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목해왔다(최동선 외, 2010; 조규형, 2014; 이지혜, 정철영, 2010).

그동안 특성화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들은 대부분 취업을 중심으로 한 최근 추세와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특성화고등학교로 한정하기 보다는 대체로 고등학교 중 일부분으로 파악하여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연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강창규, 2004; 박성규, 2007; 이종성 외, 2004; 김재홍, 2004). 또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에 초점을 맞추어 취업을 결정하는 진로의식에 관한 연구는 상당부분 진행되었지만, 대부분 개인이 취업을 결정하게 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학교의 영향이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은 있지만 교사의 측면에서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특히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은 학교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결정되곤 한다(최동선 외, 2010). 학교에서 제공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전달하는 전달자는 각 학급의 담임교사들이 주로 담당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취지와 내용이 전달자를 통해 학생들에게 받아들여진다는 측면에서 전달자에 의한 영향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학생에게 교사가 미치는 다양한 영향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바가 있다(Danes 외, 2013; 신희경, 김우영, 2005; 조아미, 2007; 권혜연, 2006, 최동선 외, 2010). 그 중에서도 담임교사의 학급운영 방식 및 진로지도 방식에 의하여 학급 학생들의 성취도 및 진로 방향의 측면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지도의 상당 부분을 담임교사가 지도한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본인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담임교사가 미치는 매우 크다. 담임교사는 정부 및 학교의 정책을 학생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전달자이면서 동시에 학생의 진로를 지도해주는 상담자이자 스승이기도 하다. 학생의 특성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담임교사는 학생의 진로결정에 있어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성화고등학교의 진로방향이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담임교사들의 취업진로 역량과 취업에 대한 인식은 학생들의 진로 뿐 아니라 특성화고등학교의 성과, 나아가 정책의 방향성의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논문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포부에 대한 학생 및 학급 수준 변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취업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2수준 다층모형으로 구분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변인 중 어떠한 변인이 취업포부를 결정하는지 알아보고 그 영향에 있어서 학급 수준 변인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것이다. 이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진로 개발 및 특성화고등학교의 진로 및 취업 지도의 방향성 등에 있어 의의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포부 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구명하고, 취업포부 수준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학생 특성과 교사 특성의 관계를 구명하는 데 있었다. 위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포부에 관한 학생 및 학급 수준 변인의 변량을 구명한다.

둘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수준 변인과 학급 수준 변인이 취업포부에 미치는 효과를 구명한다.

셋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포부에 대한 학생 수준 변인과 학급 수준 변인의 상호작용 효과를 구명한다.

3. 연구 문제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 문제 1.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포부는 학생 및 학급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1-1.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포부에서 총 변량 중 학생 특성 및 학급 변인이 설명하는 변량의 비율은 어떠한가?

1-2.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포부의 평균 수준은 학급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 문제 2.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포부에 대한 학생 수준 변인의 효과는 어떠한가?

2-1. 학생 수준 변인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

2-2. 학생 수준 변인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포부에 미치는 영향이 학급별로 차이가 있는가?

연구 문제 3.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포부의 학급평균 수준에 대한 학급 수준 변인의 효과는 어떠한가?

3-1. 학급 수준 변인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포부의 학급평균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문제 4.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포부 수준에 대한 학생 및 학급 수준 변인의 상호작용 효과는 어떠한가?

4-1.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포부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 수준 변인 및 학급 수준 변인 관계에서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를 보이는가?

4. 용어의 정의

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특성화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1조에 따라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 현장 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로 정의할 수 있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은 위 정의에 따르는 특성화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 2, 3학년 학생들 전체를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취업 혹은 진학과 같이 본인의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시기에 있는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의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은 특성화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이라고 정의하였다.

나.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 졸업예정 시기인 고등학교 3학년 시기에 진학과 취업을 결정하게 된다. 학생들은 졸업에 가까워질수록 자신의 진로결정 수준과 관계없이 거의 강제적으로 선택에 직면하게 되는데, 특히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 졸업을 앞둔 시점에서 취업 또는 진학으로 향후 진로를 선택한다

(노경란, 허선주, 2012). 졸업 후에 진로라는 측면에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은 일시적인 아르바이트의 개념과는 차별화된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을 일시적인 아르바이트가 아닌 진학 이외의 결정의 측면에서의 취업으로 정의하였다.

다. 취업포부

취업포부는 취업을 하고자 하는 욕구와 직업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바가 뚜렷한지, 취업을 위한 계획이 있는지 등의 취업에 대한 전반적인 포부를 의미한다(이선민, 1994). 이 연구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을 하고자 하는 욕구와 취업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바가 뚜렷한지 등의 취업에 대해 가지는 전반적인 포부를 의미한다.

라. 학생 수준 변인

1) 전문교과 수업 흥미

흥미란 어떤 대상의 내용에 따라 특별히 주의를 수반하는 감정으로(윤미선, 2003) 특정 교과나 활동에 대해 가지는 긍정적인 감정의 내용도 포함한다. 이 연구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해당 산업분야에 특화되어 가르치는 전문교과 수업에 대하여 학생들이 가지는 흥미상태를 의미한다.

2)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이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감정 상태(Burr 외, 1979)로 학교생활 만족도는 학생이 학교생활의 전 영역에서 흡족하다고 느끼는 정도(김주연, 2009)로 정의할 수 있다. 이 정의에 따라 이 연구에서 학교생활 만족도를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이 학교생활 전반에 대하여 흡족하다고 느끼는 상태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3) 가정의 진로지지

가정의 진로지지는 사회적지지의 의미를 통해 정의할 수 있는데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지원의 사용가능성을 개인이 인지한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 (Nota, Ferrari, Solberg & Soresi, 2007). 이를 통해 이 연구에서는 가정의 진로지지를 가정에서 진로에 대해 지지하는 도움과 원조를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개인이 인지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마. 학급 수준 변인

1) 직업교육 인식

직업교육이란 직업과 관련한 인간 행동의 바람직한 변화를 추구하는 모든 교육(이용환, 2000)이라 정의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이 속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직업교육인 중등 직업교육으로 한정하고 학생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으로 정의하였다. 즉 직업교육 인식은 특성화고등학교 교사가 중등 직업교육에 대해 인식하는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

2) 취업지도 능력

취업지도능력은 학생들에게 취업을 잘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취업지도 담당교사의 지식, 기술, 정의적 특성들로 역량 또는 능력을 의미한다(김인곤, 2015). 이 연구에서 취업지도 능력은 학급을 대표하는 담임교사가 취업지도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취업지도계획, 취업능력 확인, 피드백, 취업처 발굴 및 관리, 취업매칭, 사후관리 직무수행관련 능력 등에 대하여 교사 자신이 평가한 능력을 의미한다.

3) 취업지원 정도

진로지원이라는 개념은 일반적인 의미의 지원이 아니라 진로와 관련된 지원을 의미하는데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취업 지원은 진로지원 중 취업과 관련된 지원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규형(2014)은 개인이 취업을 결정하기 위해 학교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자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이용 가능성에 대한 기대로 취업지원 정도를 정의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위의 정의를 바탕으로 학생이 인지한 학교의 다양한 자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기대로 정의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포부

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특성

1)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 특성

특성화고등학교는 중등단계의 직업교육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나승일 외, 2007; 장명희 외, 2010; 최동선 외, 2010). 현재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교육정책을 통한 지속적인 개선 및 보완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 경로를 제공하고, 학생들의 정예화·전문화를 통해 고졸 취업의 확대 및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를 추구하고 있다(장명희 외, 2010; 최동선 외, 2011, 조규형, 2016). 특히 2009년 직업교육 부활을 위하여 ‘마이스터고 육성방안’, ‘고교 직업교육 선진화방안’을 실시한 후 다음 정부의 국정과제로 연계 발전시킨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강화’,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 ‘산학일체형 직업교육 활성화 방안’ 등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교육부, 2015). 이렇듯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졸업 후 취업을 결정하도록 특성화고등학교라는 교육 제도를 통해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직업교육 취업률은 2009년 16.7%를 최저점으로 8년 연속 증가하여 2016년 47.2%, 2017년 50.6%를 기록하였다. 2017년에는 17년 만에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취업률이 50%를 넘어 진학률 32.5%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로 조사되었다. 반면, 같은 기간 대학 진학률은 2009년 73.5%에서 2016년 34.2%, 2017년 32.5%까지 하락했다. 학교유형별 취업률은 마이스터 고등학교 90.3%, 특성화고등학교 47.0%, 일반고 직업반(구 종합고 전문반) 23.6% 순으로 나타났다(교육부, 2017)(<표 II-1 참조>).

<표 II-1>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 연도별 진로 현황

연도	졸업자	취업자	취업률	진학자	진학률	입대자	제외인정자	기타
2001	270,393	130,968	48.4	121,411	44.9	481	-	17,533
2002	231,127	104,138	45.1	115,103	49.8	347	-	11,539
2003	189,510	72,212	38.1	109,234	57.6	251	-	7,813
2004	182,835	60,062	32.9	113,944	62.3	354	-	8,475
2005	170,259	47,227	27.7	115,164	67.6	393	-	7,475
2006	162,600	42,151	25.9	111,601	68.6	402	-	8,446
2007	158,708	32,075	20.2	113,487	71.5	435	-	12,711
2008	158,408	30,036	19.0	115,407	72.9	925	-	12,040
2009	151,410	25,297	16.7	111,348	73.5	962	-	13,803
2010	156,069	29,916	19.2	111,041	71.1	865	-	14,247
2011	137,102	35,228	25.9	84,288	61.5	1,317	-	16,269
2012	128,969	47,944	37.5	65,467	50.8	1,052	-	14,506
2013	122,882	49,937	40.9	51,083	41.6	737	-	21,125
2014	125,017	54,953	44.2	48,321	38.7	597	-	21,146
2015	118,255	54,021	46.6	43,285	36.6	421	1,803	18,725
2016	114,225	53,504	47.2	39,054	34.2	-	-	21,667
2017	109,051	54,908	50.6	35,420	32.5	-	-	18,723

1) 취업률

- (~'10년) 취업률 = 취업자 수 / 전체학생 × 100
- ('11년~) 취업률 = 취업자 수 / (전체학생-입대자) × 100
- ('15년~) 취업률 = 취업자 수 / {전체학생-(입대자 + 제외인정자*)} × 100
- * '15년 학교정보공시의 [제외인정자]를 분리 공시함에 따라, 교육통계의 [기타] 항목 중 [제외인정자] 분리 조치

자료: 교육부. (2015). 고졸 취업률 6년 연속 상승. 중간보도자료.
 교육부. (2017).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률 17년 만에 50% 넘어. 석간보도자료.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 시기는 취업과 진학의 진로를 결정해야하는 중요한 시기로 볼 수 있다. Ginzberg(1972)와 Super(1967)은 청소년기 전에 가지

는 직업목표는 현실보다는 환상을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Ginzberg(1972)는 고등학생 시기를 잠정기 및 현실기로 보고 직업을 선택하는데 고려해야 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알아보고 현실적인 요인들과의 타협을 통해 직업선택을 결정한다고 보았다. Super(1967)는 14~18세를 결정화 단계, 18~21세를 구체화 단계로 보고 개인의 욕구나 흥미, 직업적 기회 등을 고려하여 장래에 필요한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미래의 직업을 구체화하는 시기로 보았다(이지혜, 정철영, 2010). 이를 종합하면 고등학생 시기는 자신의 흥미, 적성, 능력, 직업적 기회 등을 고려하여 직업적 선택을 잠정적으로 결정하거나 취업이라는 진로를 결정하는 시기로 볼 수 있다. 연구자마다 그 시기를 규정하는데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는 있지만 대부분 고등학교를 졸업

특히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중등단계의 직업교육을 3년간 받은 후 향후 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로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진로발달 연구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고등학생 시기를 진로에 대한 잠정적 선택과 결정을 하는 시기로 보고하고 있는데(이지혜, 정철영, 2010) 대부분 진학을 결정하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에 비해 실제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일자리로서의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 그 선택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보여 진다. 대학에 진학한 이후 대학교육을 이수한 이후에 직업을 결정하는 학생들과 달리 실제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일할 취업처를 결정해야한다는 점에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결정이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볼 수 있다. 이른 결정을 해야 하는 시기적 특성 때문에 취업을 결정하는 시기에 가지는 취업포부가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2)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인지적 특성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학습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 대부분은 소질과 적성, 능력을 고려하여 학교 및 전공 선택을 하기 보다는 학교 성적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입학하는 경우가 많다. 동일계열 진학 제도가 없어진 이후로 일반적

으로 중학교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상대적으로 학업능력이 낮은 학생들이 공업계, 상업계, 농업계 고등학교 순으로 진학 기회를 부여받았다(이용환, 2000).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기초 수학능력을 판단하기 위해 국·영·수 과목의 수학능력을 조사한 조은상, 강중훈(1999)의 연구에 따르면 상당수의 학생들이 전문교과를 학습할 수 있는 최저점수조차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문제 해결능력 등의 기초수학능력에 대한 교사와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 몇 개의 영역을 제외하고는 보통 이상이라고 인식하는 반면, 교사들은 한 가지 영역을 제외하고는 보통 이하라고 인식하고 있어 교사와 학생들 간의 학습능력에 대한 인식에도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김선태 외, 2001).

이렇게 누적된 학업적 결손이 심각한 상태에서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하다 보니 학생들은 교실 수업이나 실습시간에 수업 몰입도가 낮은 편이다(송교원, 이창훈, 2014). 또한 대부분의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 대개 자신의 열악한 환경과 낮은 성적 때문에 자신의 능력에 대해 열등감과 실패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여전히 학습에 대한 흥미가 낮고, 학습동기도 유발되기 어려운 상황이다(나승일, 마상진, 2002). 이러한 사실은 교실수업의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교사들의 수업 의욕 저하, 학생들의 학습 의욕 저하 등의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박정배, 2009). 또한 학생들의 학습동기와 교과에 대한 흥미에도 악영향을 미쳐 진로 인식 및 진로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윤희, 2014).

3)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정의적 특성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 대부분은 자신의 적성보다는 성적, 가정 형편 등과 같은 이유로 어쩔 수 없이 특성화고등학교를 선택한 경우가 많다. 이는 학교생활에 흥미를 잃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다양한 부적응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실제로 일반계고등학교에 비해 특성화고등학교의 학업 중단

학생 수는 4배 이상 높았고 그 중 51.7%가 학교 부적응을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고 있다고 조사되었다(한국교육개발원, 2010). 즉 기초학력의 부진과 수학능력에 부적절한 교과내용으로 인하여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대한 흥미가 감소하고 중도 탈락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정철영, 1997).

특히 일반계 고등학교에 비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중도탈락율이 더 높다. 2002년 이후 모든 고등학교의 중도탈락율은 점차 감소하였지만, 2006년 일반계 고등학교의 중도탈락율은 0.79%인 반면, 특성화고등학교는 2.61%로 약 3.3배의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중도탈락 원인을 질병, 가사, 품행, 부적응, 기타로 구분하였을 때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부적응으로 전체 중도탈락자의 47.1%를 차지하고 있었다. 가사로 인한 중도탈락도 29.3%를 차지하였다.(서우석 외, 2007).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일탈행동에 겉으로 표출되는 일탈행동 뿐 아니라 잘 드러나지 않지만 마음의 문제로 여겨지는 우울증, 무기력증, 청소년 자살 사건 등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특히 학습된 무기력은 반복된 실패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무기력한 상태(전미애, 임세영, 2012)는 학생들을 쉽게 좌절감을 가지게 하고 자존감이 낮아지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또한 국가적으로 고졸취업 활성화 정책을 확장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김혜나, 2014). 이 또한 학생들의 자존감을 낮추고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외, 2012).

이렇듯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중학교 성적에 따라 일반고에 진학하지 못한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의 비율이 높다. 이로 인해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흥미가 감소한 학생들이 많아 집중적인 지도와 상담이 요구된다(교육과학기술부 외, 2012).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정서적 문제는 개인과 학교 및 사회체제 측면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적절한 진로지도 및 상담활동의 강화가 필요하다.

나. 취업포부의 개념

1) 포부의 개념

포부(aspiration)는 욕구와 상태변인의 작용으로 나타나는 심리적 현상으로 개인이 자원의 한계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 수준에서 원하는 것을 의미한다(Hauser & Anderson, 1991). 이러한 포부의 개념 속에는 개인이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황정훈, 2012). Turner(1964)는 포부를 어떠한 사회적 지위를 버리고 다른 지위를 획득하고자 하는 욕구(desire)를 의미하고 이러한 포부는 성취동기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Saha, 1994). 즉, 포부는 개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미래의 목표를 반영하고 교육목표를 향해 나아갈 준비의 정도를 의미한다(Saha, 1994).

Sewell 등은 개인이 도달하고자 하는 욕구를 의미하는 개념의 ‘포부’를 지위획득모형을 통해 처음 제시하였다(Sewell et al., 1957; Sewell et al., 1966; Sewell et al., 1970). 이는 Blau와 Duncan이 제시한 초기 지위획득모형을 수정 및 보완한 것으로 기존의 초기 지위획득 모형에서는 개인의 성취요인과 가정배경 요인이 개인의 지위획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증명되었으나, 개인의 지위획득 과정이 정교하지 못하다는 한계점이 있다(강희돈, 1988). 이를 보완하기 위해 Sewell 등은 지위획득 모형에 지능, 학업성적, 유의미한 타자, 교육포부 및 직업포부의 변인을 추가하여 새로운 모형을 설정하였다. Lewin 외(1994)는 포부수준과 태도와의 관련 연구를 통하여 현실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작업결과와 포부수준과의 격차가 적고, 비현실적 태도를 가진 사람은 작업결과와 포부수준의 격차가 크다고 밝혔다. 포부수준은 특히 개인의 진로 선택의 과정에 있어서 목표 설정에 도움을 주고 성취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욕망이나 동기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2) 진로포부

진로포부(career aspiration)의 개념은 Gottfredson(1981)의 제한-타협 이론을 통해 제시되었다. Gottfredson(1981)은 진로포부를 개인이 특정 시점에서 가장 좋다고 인식하는 어떤 직업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그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이 형성하는 자아에 대한 인식과 맞는 직업에 매력을 느끼며, 자아에 대한 성찰과 사회 계층적 관점에서 진로포부가 발달한다고 주장하였다(김은희, 김봉환, 2009). Gottfredson은 진로포부의 개념을 ‘수용할 수 있는 진로에 대한 대안 영역’으로 명명하며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아 형성과 자신이 처한 사회적 위치에 대하여 인지하며 자신과 공존이 불가능한 다른 진로 대안들을 제외시켜 나가면서 진로포부를 형성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후, Gottfredson(1981)은 가장 현실적인 대안에 대한 선택과 적합성을 의미하는 개인과 환경적 열망과 직업선택과의 일치의 산물로서 진로포부를 정의하였고 관련 이론을 발전시켰다.

진로포부의 개념이 초기에 제시될 때는 진로포부와 직업포부의 개념이 유사한 관점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초반에 이르러서 진로포부의 개념이 직업포부를 포함하는 관점이라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Cranston 외(1990)는 일반적으로 인식되던 이상적인 직업에 대한 열망과 현실적 열망으로 구성된 개념에 교육에 대한 열망을 추가하여 진로포부의 개념적 영역을 확대시켰다. 그러나 이 연구 역시 진로포부에 대한 개념을 특정 직업을 선택하는 선택 행위에 집중하였다. 리더십이나 지위 획득과 같은 다른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보여 진다(김국현, 2016). 포부의 개념이 개인이 도달하고자하는 열망 정도라는 측면에서 진로포부의 개념도 본인이 진로의 측면에서 도달하고자하는 직업 뿐 아니라 리더로서의 열망 등의 개념이 포함되어야 한다.

진로포부의 개념을 직업적인 측면 뿐 아니라 직업 선택 이후의 포부 개념까지 확장시킨 학자는 Gray & O'Brien(2007)이다. Gray & O'Brien(2007)은 진로포부를 단순히 특정 직업을 선택하는 열망으로 정의하

면 직업선택이 이루어진 이후의 포부를 개념화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선택하고자 하는 직업의 지위가 곧 포부 수준을 의미하게 되기 때문에 전통적이고 사회적 명성이 낮은 직업을 선택한 사람들을 포부 수준이 낮은 동일한 집단으로 간주된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의사’ 라는 직업을 선택한 사람 중 병원장과 같은 높은 지위까지 진급하기를 희망하는 사람과 단순히 환자를 돌보는 일에서도 보람을 느끼는 사람, 각종 질병을 연구하고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보람을 느끼는 사람 등 ‘의사’ 라는 하나의 직업에서도 서로 다른 진로포부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Gottfrdson(1981)이 제시한 진로포부의 관점으로 이들의 진로포부를 개념화한다면 모두 ‘의사’ 라는 직업을 선택하였으므로 같은 수준의 진로포부를 가진다고 간주된다(O’ Brien, 1996).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O’ Brien(1996)은 진로포부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였다. 즉 진로포부는 자신의 진로영역 안에서의 성공을 위하여 직위 혹은 최고 권위자에 오르기를 희망하거나 계속해서 교육을 받고자 희망하는 정도를 의미한다고 정의하였다. 또한 진로포부는 개인의 직장 내에서 성취를 이루고자하는 포부와 리더가 되고자 하는 포부, 계속해서 교육을 받고자하는 포부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진로포부란 개인이 자신의 삶을 영위하면서 보다 나은 미래를 추구하기 향후 희망하는 진로 영역에서 되고자 희망하는 목표 혹은 성취수준을 의미한다(O’ Brien, 1996; Gregor & O’ Brien, 2015). 이렇게 다양한 학자들의 정의를 종합하여볼 때 진로포부의 개념은 개인이 직업을 선택하는 것 뿐 아니라 직업 선택 이후의 지위 획득 과정에 대한 포부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진로포부의 개념을 O’ Brien(1996)이 개념화한 정의를 바탕으로 개인이 직장 내에서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열망과 리더가 되고자하는 열망, 교육을 받고자 하는 열망들을 포함한 포부의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3) 직업포부

직업포부(Occupational aspirations)는 직업을 갖고자 하는 개인의 성취 욕망으로서 교육적인 성취나 사회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성향으로 ‘개인이 특정 시점에서 가장 좋은 직업적 대인이라고 생각하는 희망직업’으로 정의될 수 있다(Gottfredson, 2002). 직업포부는 개인이 도달하고 획득하고자 희망하는 직업의 수준을 의미한다. 이러한 직업포부는 개인의 직업지위 획득에 결정하는 중요한 사회·심리적 요인으로 많은 학자들이 주목하였다(김정숙, 2006).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직업포부와 진로포부를 크게 구분하지 않고 있으나, 진로포부는 진로에 대한 자신의 현재 상황을 인식하고 개인이 선택한 진로 안에서 성공과 성취를 동경하는 정도(O'Brien et al., 1996)로 희망직업 뿐만 아니라 기대 교육수준 등을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직업포부는 해당 직업을 획득하기 위한 인적자본의 성취에 대한 동기를 강화시키고 진로계획의 기준이 되며(O'Brien et al., 1996; Trice & King, 1991), 이후 획득하는 사회경제적 지위와도 직접적으로 연관 된다(Schoon & Parsons, 2002; Sewell et al. 1970; 유백산, 신수영, 2012).

4) 교육포부

교육포부(educational aspiration)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개인의 교육적인 욕망을 의미 한다(황정훈, 2012). 이는 교육적 성취나 사회 계층이동, 진로 선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Munro(1981)은 교육포부가 학생이 달성하고자 하는 교육적 목적에 몰입하는 정도를 예언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라고 하였으며, 다른 선행 요인들이 교육성취와 직업 획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매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고 보았다(Saha, 1994; 황정훈, 2012).

5) 취업포부

이선민(1994)은 직업포부나 교육포부에 관한 연구에서 포부의 개념을 응용하여 취업포부(employment aspiration)를 정의하였다. 취업포부란 취업을 하고자 하는 포부의 수준을 말하는 것으로 포부의 개념을 취업과 연관시킨 것이다. 취업포부는 취업을 하고자 하는 욕구 뿐 아니라, 직업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바가 뚜렷한지의 여부, 취업을 위한 계획의 구체성 여부, 취업이라는 문제를 헤쳐 나가려는 각오 등을 포함한다(정선정, 2014).

취업포부는 앞서 언급한 진로포부, 직업포부, 교육포부와 매우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취업포부와 유사한 용어들의 정의를 종합하면 <표 II-2>와 같다. 진로포부는 직업포부와 교육포부, 취업포부의 개념을 모두 포함하는 종합적인 의미의 포부로 볼 수 있고, 직업포부는 진로포부나 취업포부와 유사한 개념으로 보여 질 수 있으나 같은 정의를 가지는 개념은 아니다. 취업포부는 직업포부와 유사한 개념이나 특정 직업이 아닌 취업을 하고자하는 열망과 취업의 구체적인 계획 등을 포함하는 포부라는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다. 취업포부는 진로포부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교육포부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표 II-2> 취업포부와 유사한 용어 정의

용어	정의
진로포부 (career aspir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이 자신의 삶을 영위하면서 보다 나은 미래를 추구하기 향후 희망하는 진로 영역에서 되고자 희망하는 목표 혹은 성취수준(O' Brien, 1996) ▪ 진로포부 ⊃ 직업포부, 교육포부, 취업포부
직업포부 (occupation aspir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이 특정 시점에서 가장 좋은 직업적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희망직업(Gottfredson, 2002) ▪ 직업포부 ≡ 진로포부, 취업포부
교육포부 (educational aspir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을 받고자 하는 개인의 교육적인 욕망(황정훈, 2012)
취업포부 (employment aspir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을 하고자 하는 포부의 수준(이선민, 1994) ▪ 취업포부 ≡ 직업포부 ▪ 취업포부 ⊃ 진로포부 ▪ 취업포부 ⊃ 교육포부

다. 취업포부 관련 이론

1) Ginzberg의 직업선택 이론

진업 선택에 대한 최초의 논리적 관점은 1909년 F. Parsons에 의해 처음 제시되었다. 그는 진로선택은 단기간에 내려지는 결정이라고 언급하였는데, 본인의 적성 및 흥미, 능력, 자원, 한계 등의 자질에 대해 분명히 이해하고 직업 세계가 요구하는 조건을 분석하여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주장하였다. Parsons(1909)의 진로선택 이론은 Ginzberg(1952)의 직업선택 이론과 Super(1963)의 진로발달 이론을 통해 수정되었다(최진영, 이광호, 2012).

Ginzberg(1972)는 직업선택을 ‘그들의 일로부터 주된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위한 전 생애의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직업선택의 과정을 한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 생애적 접근의 발달론적 관점으로서의 직업선택 이론을 제시하였다. Ginzberg(1972)는 개인이 일생동안 성장하면서 신체적 발달단계를 거치는 것과 유사하게 직업에 대한 능력도 장기간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이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인간의 진로발달을 생애주기와 연결 지어 설명한 최초의 시도로 볼 수 있다. 또한 비가역적인 직업선택의 과정을 개인에게 주어진 환경적인 요소와 자신의 요구 및 부여되는 기회에 상응하여 끊임없이 유기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진로발달은 원점으로 회귀하지 않는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다(김국현, 2016).

Ginzberg(1972)는 직업선택의 과정을 총 3단계로 제시하였다. 각 단계는 1단계 환상기(6~11세), 2단계 잠정기(11~17세), 3단계 현실기(18세 이후)로 구분된다. 환상기는 욕구를 중시하며 환상 속에서 비현실적인 직업 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으며, 잠정기는 흥미, 능력, 가치를 고려 해 직업선택을 하며 자신의 흥미와 취미에 따라 선택한 후 자신의 능력을 시험하고 직업의 다양함을 인식한 후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주관적인 요소에서 현실적인 외부요인으로 관심을 전환하는 시기이다. 현실기는 직업적으로 필요한 현실적

인 요건과 자신의 능력을 고려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는 시기로 직업선택의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하고 취업 기회와 경험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며, 직업 목표를 구체화하고 자신의 결정과 관련된 내, 외적인 요인을 종합하여 특정 직업분야에 몰두한 후 자신의 결정에 세밀한 계획을 세우고 세분화, 전문화된 의사결정을 하는 시기이다(양난미, 2006). 이 연구의 대상이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점에 비추어보면 연구 대상은 Ginzberg의 직업선택 이론 중 현실기에 해당하는 시기인 것으로 확인해볼 수 있다. 즉 현실적인 요건과 능력을 고려하여 진로를 결정하는 시기에 놓여 직접적인 취업과 진학을 결정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2) Super의 진로발달 이론

Super(1963)은 Parsons(1909)의 이론 및 Ginzberg(1952)의 이론을 에 의해 제시되었다. 그는 Ginzberg의 이론이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여전히 직업선택을 진로과정에 도달한 한 순간의 사건으로 개념화하고 있다는 미흡성을 비판하면서, 직업선택에 대한 발달단계이론을 제시하고 일생을 통해 필요한 진로발달의 개념으로 확장시켰다(고향자, 1992). 특히 직업 선택의 과정을 다른 생애 역할의 맥락 속에서 이해하려고 하였으며 개인의 생애에서 경험하게 되는 주요 역할인 ‘자녀, 학생, 배우자, 직업인, 시민, 여가인’으로서의 역할과 자신의 직업 선택과의 연관성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Super(1963)는 진로발달의 단계를 성장기(출생 ~ 14세 전후), 탐색기(15 ~ 24세), 확립기(25 ~ 44세), 유지기(45 ~ 64세), 쇠퇴기(65세 ~)로 구분하고 있다(장계영, 김봉환, 2011). 성장기는 14세 전후로 가정과 학교에서 중요한 타인에 대해 동일시를 함으로써 자아개념과 관련된 능력, 태도, 흥미 및 욕구를 개발시키는 단계이다.

탐색기에는 학교생활과 여가활동, 시간제 일 등과 같은 활동을 통하여 자아를 검증하고 역할을 수행하며 직업을 탐색하게 된다. 탐색기를 좀 더 자세하게 구분하면 잠정기(15 ~ 17세), 전환기(18 ~ 21세), 시행기(22 ~ 24세)

로 구분할 수 있다. 잠정기는 자신의 욕구, 흥미, 능력 가치와 취업기회를 고려하여 잠정적으로 진로를 선택하고, 전환기에는 장래 직업세계에 들어갈 때 필요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으며 자신의 자아개념을 확인하고 시행기에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고 종사하게 된다고 정의하였다. Super(1963)는 특히 탐색기와 확립기 단계에서의 진로발달을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각 개인이 자신의 흥미를 가지는 진로영역에 대하여 구체적인 선택을 하는 단계임과 동시에 진로 영역 안에서 자아개념을 완성시키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자아개념을 완성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Super의 이론상에서 이 연구의 대상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은 탐색기 중 전환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이 취업을 결정할 경우에는 시기에 관계없이 전환기와 시행기에서의 진로발달 과정을 모두 경험한다고 보여 진다. 즉 장래 자신의 자아개념을 확인함과 동시에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고 종사하는 과정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에 비해 빨리 겪게 되는 만큼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발달 과정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3) Crites의 진로성숙 이론

진로성숙의 개념은 Super(1960)에 의해 처음 개념화되었는데 진로성숙을 한 개인이 속해있는 연령 단계에서 성취되어야 할 직업적 발달과업(vocational task)에 대한 준비도로 보았고, 진로의식 성숙의 구성요인을 다섯 가지 차원으로 개념화하였다(김원중, 1984). 다섯 가지 차원은 진로선택에 대한 태도, 선택하고자 하는 직업에 관한 정보수집 및 계획성, 선택하고자 하는 직업의 일관성, 자기 특성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 진로문제에 있어서의 지혜이다(노미순, 1999).

Crites(1961)는 Super의 이론을 바탕으로 진로성숙을 재개념화 하였는데 개인이 앞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직업단계에 대하여 현재 그 직업에서 생활하고 있는 타인의 행동과 자신이 기대하는 행동의 유사성 정도에 따라 결정되

는 것이라고 보았다. Crites(1971)는 Super의 직업선택의 과정에서 일관성과 현실성의 영역에 직업선택의 태도, 능력의 영역을 추가하고 태도척도와 능력척도를 개발하여 진로성숙도 검사의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동일한 연령층의 학생들과의 비교에서 나타나는 직업준비의 정도로 개념화하고, 이 같은 진로 발달 수준은 검사를 통해 측정될 수 있다고 하였다(노미순, 1999). 이 연구의 주된 변인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포부는 취업에 대한 의지 및 열망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성취되어야 할 직업적 발달과업에 대한 준비도의 개념인 진로성숙과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4) 사회인지 진로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SCCT)

Lent 외(1994)는 청소년기의 진로선택과정을 설명하는 이론 중 하나로 사회인지 진로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SCCT)을 제시하였다. 사회인지 진로이론은 Bandura(1977)의 사회인지이론을 적용하여 진로 발달 과정에서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및 개인적 목표 사이의 상호작용을 설명하였다(Lent 외, 1994). Hackett 외(1981)는 진로선택이 개인의 타고난 성향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자기효능감이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진로발달과 선택에서 진로와 관련된 자신에 대한 평가와 믿음의 인지적 측면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사회인지 진로이론은 사회학습이론을 직업심리학에 적용하여 직업 흥미가 어떻게 발달하고 진로선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업무 성과수준을 어떻게 결정하고 직업에 어떻게 만족하게 되는지 등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사회인지 이론은 개인의 인지적 요인이 진로 발달과 진로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가정 하에서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목표의 세 가지 사회인지기제들을 강조하였다(김진관, 2014).

Bandura(1977)의 설명과 같이 자기효능감은 구체적인 수행영역에서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며 결과기대는 구체적인 행동수행의 결과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이다. 또한 개인적 목표는 특정한 활동에 참여하거나 특정한 결과를 만들어 내겠다는 개인의 의도이다. Lent 외(1994)는 자기효능감, 결과기

대, 목표설정이 환경적 지지와 장애와 같은 다양한 매개변인과 상호작용하여 개인의 흥미, 진로선택, 수행에 영향을 주는 과정을 모형으로 설명하였다. 사회인지 진로이론은 진로발달과 관련하여 흥미모형, 선택모형, 수행모형 등 세 가지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의 모형들은 사회인지 진로이론의 주요 구인들인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목표, 개인변인, 환경 변인들이 진로와 관련된 흥미, 선택, 수행 과정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사회인지이론의 주요 구인들과 모형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가) 사회인지 진로이론의 주요 구인

Lent 등(1994)은 사회인지 진로이론(SCCT)의 주요 구인으로 자기효능감, 결과기대, 목표를 제시한다. 그 중 자기효능감은 진로발달의 개인적 요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자기효능감은 특정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의 정도를 의미한다. 지각된 자기효능감은 행동에 다양한 영향 즉, 행동 종류의 선택과 노력의 투입량, 지속력 등에 영향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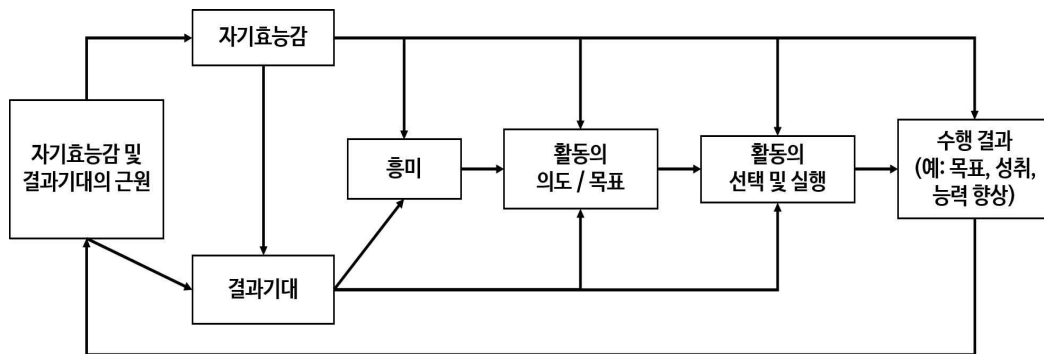
다음으로 결과기대는 특정 행동수행의 결과에 대한 개인의 신념(Lent & Sheu, 2010)을 의미한다. 어떠한 과업을 수행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응답하는 내용으로 결과기대는 개인이 기대하는 성공의 수준과 실제 결과가 일어날지에 대한 믿음을 구분하는 Vroom(1964)의 선호 및 개인 이론과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Bandura(1997)는 자신이 하는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 기대에 따라 행동을 수행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진로선택에 있어서 결과기대의 중요성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또한, 결과기대는 물리적 기대(재정적 보수), 사회적 기대(칭찬), 자기평가(자기만족)로 구분 된다(Bandura, 1982).

목표는 어떤 특정한 활동에 열중하거나 어떤 미래의 결과를 이루겠다는 것에 대한 결심(Bandura, 1982)으로 정의할 수 있다.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환경과 과거의 역사라는 결정요인에 대응하는 것이 아닌, 특정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을 조직하고 지속하며 원하는 결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진로계획, 의사결정, 진로포부, 진로 선택 등이 모두 목표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Lent 외, 1994).

나) 흥미발달 모형

Lent 등(1994)이 제시한 흥미발달 모형은 [그림 II-1]과 같다. 흥미발달 모형은 흥미는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에 의해 직접적으로 형성된다고 보는 모형이다. 흥미와 같은 개인 특성은 유전, 가족 및 친구, 사회문화적 환경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볼 수 있다(Holland, 1997). Lent 등은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는 흥미와 함께 활동 의도 및 목표, 활동 선택과 실행에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 실행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Lent et al, 1994). 흥미는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든 변화할 수 있는데 이는 Super(1980)의 이론과 유사하지만 진로흥미발달을 계속되는 학습경험에 의한 연속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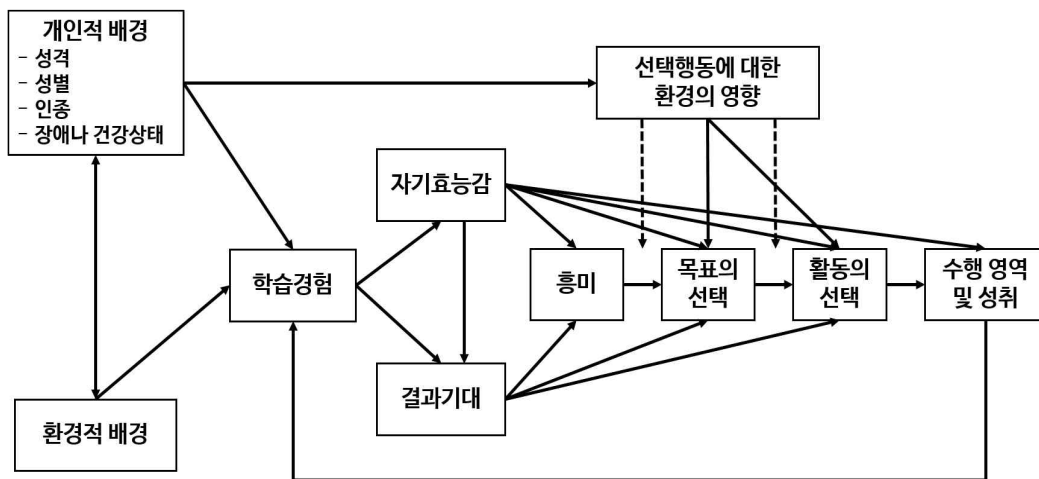


[그림 II-1] 사회인지진로이론의 흥미발달 모형

자료: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1994).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p. 266

다) 진로선택모형

진로선택 모형은 진로흥미발달이 진로와 관련된 선택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설명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변인과 맥락적 변인이 진로선택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하며 위 내용을 도식화하면 [그림 II-2]와 같다. 위 모형은 흥미발달과 진로관련 목표의 형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과 실제 성취의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개인변인과 배경맥락 변인은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를 설명하는 학습경험의 범위부분으로 나뉜다. 이는 개인이 자유롭게 자신의 흥미와 일치하는 환경을 찾아가기 위하여 이를 위한 최적의 우호적 조건이 필요하다는 Holland(1997)의 견해와 일치한다. 그러나 흥미와 실천 사이에 Bandura가 제안한 인지적 변인인 목표라는 매개변인을 두고 있다는 점과 또 다른 인지적 변인인 자기효능감과 결과 기대가 목표와 함께 실천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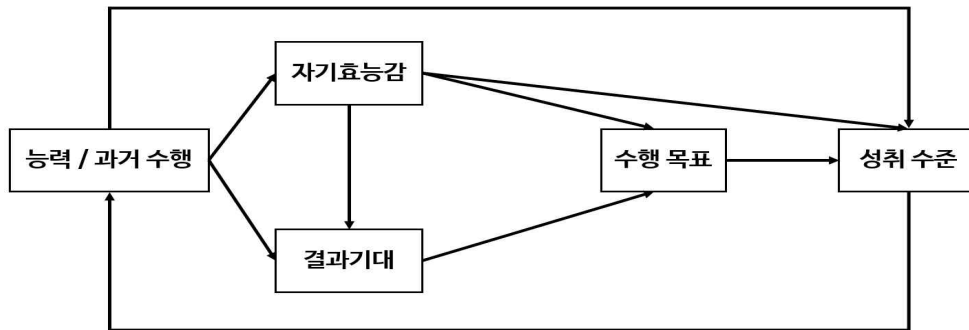


[그림 II-2] 사회인지진로이론의 진로선택 모형

자료: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1994).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p. 269

라) 수행모형

수행모형은 개인의 수행수준과 수행의 지속성을 설명하기 위해 능력, 자기 효능감, 결과기대, 목표라는 요인을 포함하여 구성되어 있다([그림 II-3] 참조). 능력은 개인의 과거 수행 수준에 의해 파악할 수 있는 변인으로 개인의 수행 수준과 수행의 지속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또한 자기효능감 등 인지적 변인들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위 모형에서는 개인에게 얼마나 학습경험을 제공하는 교사 수준의 환경 맥락 변인들의 역할이 크다고 보고 있다.



[그림 II-3] 사회인지진로이론의 수행 모형

자료: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1994).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p. 277

5) Gottfredson(1981)의 직업포부 발달 이론

Gottfredson(1981)은 직업포부를 진로단계설정과 진로의사결정 타협의 과정을 통해 잠재적인 직업을 제거해나가는 과정으로 보았다. 즉 개인은 수용 가능한 대안영역들로부터 직업을 선택하게 된다고 가정하였다. Gottfredson (1981)의 직업포부 발달이론은 삶의 주요한 역할에서 오는 여러 가지 요소로 구성된 자아개념으로부터 시작된다. 여러 자아개념 중 직업에 대한 자아개념 형성에 중요한 요소로 성별, 사회 계층적 배경, 지적능력, 직업흥미, 능

력, 차이 등을 제시한다. 이 요소들은 자아개념과 세상에 대한 인식이 복잡해짐에 따라 인지발달의 다른 시기에 각각의 자아개념으로 통합된다. 인지발달의 세 단계 중 첫 번째 단계는 크기와 힘에 따라 판단하는 시기이고 두 번째 단계는 성역할을 판단하고 세 번째 단계는 사회적 가치에 따라 판단하는 단계이다. 청소년기인 네 번째 단계는 14세 이후로 내적이고 독특한 자아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게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직업에 대해 자신이 인식하는 판단기준으로 크기와 힘, 성역할, 사회적 가치, 내재적 특성을 차례로 포함해 나가게 된다(이성식, 2004).

Gottfredson은 모든 직업에 긍정적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발달 단계가 증가할수록 직업세계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여 직업세계의 성역할과 유형, 지위 수준을 판단하고 일반적인 인식을 공유하여 성인까지 지속된다고 보았다. 이를 직업이미지라고 정의하고 직업인지도로 도식화하였다. 직업세계의 변화를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직업이미지와 자신의 자아개념을 서로 비교하며 직업의 적합성을 판단하고 사회적 영역에 대해 분화되고 특정한 시각으로 직업적 대안영역에 대해 한계를 짓기 시작한다. 성역할 혹은 사회적 지위에 대한 자아개념 등을 고려한 후, 흥미나 능력, 가치 등을 고려하여 진로대안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Gottfredson, 1981).

Gottfredson(1981)의 직업포부 발달 이론은 사회적 영역에 대한 내용으로 인하여 개인의 직업포부 수준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으로 기존의 이론과는 다른 새로운 관점을 담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진로지도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주었다(이성식, 정철영, 2004). 진로지도를 실시함에 있어서 학생들의 내적인 특성 뿐 아니라 학생이 처한 사회적 영역의 맥락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알맞은 지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취업지도의 측면에서도 감안되어야 할 부분으로 학생들의 맥락적 특성이 직업포부 뿐 아니라 취업포부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2.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포부에 대한 학생 수준 변인의 영향요인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은 기존 고등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취업의 연장선 형태로 판단하기 어렵다. 특성화고등학교의 상황에 특화된 고유한 특성으로 인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강순희, 안준기, 2012). 왜냐하면 취업에 미치는 영향 요인은 취업 주체가 지니는 특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노경란, 허선주, 2012)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에 대한 관련 변인의 연구는 매우 다양한 연구자가 오랫동안 수행해오고 있다(남기곤 외, 2010; 채창균, 2009;) 그 중 학생의 취업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연구된 연구는 없지만 취업결정요인, 진로준비행동, 직업포부 등 취업포부와 연결되는 다양한 변인의 영향요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그러나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과 관련된 선행연구의 대부분이 고졸 청년층에 초점을 맞추어 면밀하게 탐색하기보다 노동시장을 구성하는 하나의 집단으로 이해하는 수준이다(조규형, 2014).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연구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에 비해 활발히 이루어지는 편이었다(남기곤 외, 2010; 채창균, 2009).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 사회를 접하지 않은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대학생 집단과는 비교되는 특징을 가진다. 또한 고졸 취업시장은 대졸 취업시장에 비해 좁으며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낮고 인식도 다른 편이다. 때문에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특징을 바탕으로 취업에 대한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선행연구를 분석해보면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이 학생의 성별, 성적, 학교 계열, 진로장벽, 가족지원, 교육만족 등으로 나타난다(장현진, 이지혜, 2012; 노경란, 허선주, 2012; 이쌍철, 2013; 안선영 외, 2012).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과 관련된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학생들의 진로결정 수준, 취업결정 수준, 진로포부 등 취업포부와 관련한 여러 변인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취업포부가 진로결정 혹은 취업결정 수준에 의해 영향을 받고 진로포부와 직업포부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성화고 학생의 진로결정 수준, 취업결정 수준, 진로포부

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가. 인구통계학적 변인

1) 성별

우리나라에서 여성과 남성의 교육 격차는 많이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취업, 승진, 직장생활의 지속성 등의 측면에서 성별의 차이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장상수, 2004). 손은령(2001)은 여자 대학생이 남자 대학생보다 진로장애를 더 높게 인식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지혜, 정철영(2010)은 여성이 취업에 대한 장벽을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는 것은 결혼에 따른 경력단절과 더불어 직업세계 내에서 존재하는 차별을 인식하여 나타난 결과로 보고 있다. 이지혜, 정철영(2010)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장벽과 관련된 변인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취업장벽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성인이 아닌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서는 상반된 결과가 제시되기도 하였다(강월영, 2006; 최재경, 2004).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자신감이 부족하고 비합리적 진로 사고를 많이 하며 진로장애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성별이 취업결정의 차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김선중, 2004; 김은영, 2001). 김성환 외(2005)은 성별로 대학진학과 취업의 선택에 차이가 존재한다고 분석하였다. 즉 남자일수록 상대적으로 대학진학을 선택할 확률이 높고 취업을 선택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우성(2016)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성별이 취업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별에 따라 취업전망과 일자리 수요와 같은 노동시장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장현진, 이지혜(2012)는 한국교육고용패널의 자료를 활용하여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결정에 미치는 영향요

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성별이 취업선택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취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이 성별로 인한 취업의 영향은 일관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지만, 대부분 남학생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거주 지역

장현진, 이지혜(2012)는 거주 지역의 경우 도시의 학생들보다 지방에 있는 학생이 취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제시하였다. 학교 소재지가 도시인 학생이 지방에 있는 학생에 비해 0.541배 취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다른 연구와도 일치하는 내용이다. 최동선(2009)도 경우 대도시의 학생들이 대학진학을 더 선호한다고 보았다.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지역적인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정책적인 영향이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김영중, 2009; 서민철, 2007). 박인봉(2002) 역시 비슷한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학교 소재지에 따라서 직업선택 기준에 차이가 있다고 분석하였는데, 서울 및 경기지역의 학생은 목적지향적인 직업선택을 하는 반면, 지방의 학생들은 수단지향적인 직업선택 기준을 가진다고 보고하였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거주 지역에 따라 취업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거주 지역에 대한 변인은 중요한 영향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의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관련 변인에 영향을 주는 학생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의 영향을 종합하면 <표 II-3>과 같다.

<표 II-3> 학생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종합

구분	연구자	관계	주요내용
성별	손은령(2001)	-	여자 대학생이 남자 대학생보다 진로장애를 더 높게 인식함.
	이지혜, 정철영(2010)	-	여학생이 취업에 대한 장벽을 더 높게 인식함.

구분	연구자	관계	주요내용
성별	강월영(2006) 최재경(2004)	+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진로장애를 더 가짐.
	김선중(2004) 김은영(2001)	X	성별이 취업에 영향을 주지 않음.
	김성환 외(2005) 장현진, 이지혜(2012)	+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취업할 확률이 높음.
	이우성(2016)	+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 능력에 영향을 미침.
	김성남, 최수경(2012)	+	남학생은 병역의무로 인하여 노동시장에 정착하는 과정이 불안함.
	김동규(2012)	+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취업할 확률이 높음.
거주 지역	장현진, 이지혜(2012)	△	도시 학생이 취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음.
	최동선 외(2009)	-	대도시 학생일수록 대학진학을 선호함.
	김영중(2009) 서민철(2007)	△	수도권과 비수도권 학생의 차이가 심화됨.
	백화중 외(2004)	△	소재지에 따른 개인적 특성이 차이가 있음.

주) + : 취업에 정적인 관련이 있음.
 - : 취업에 부족한 관련이 있음.
 △ : 취업에 부분적으로 관련이 있음.
 X : 취업에 관련이 없음.

나. 직업교육 흥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취업에 대한 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변인이 직업교육 흥미정도이다. 직업교육을 통해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목표로 하는 특성화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직업교육에 대해 인식하는 정도나 흥미 및 성취 정도는 취업 결정 및 포부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 선택 이유, 전문교과 수업 흥미의 변인으로 보았다.

1) 특성화고등학교 선택 이유

특성화고등학교를 선택하는 이유는 학생들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송민경(2009)은 고등학교 계열 선택에 있어 학업성취도, 본인의 교육포부, 어머니의 학력, 가구 월평균 소득, 진로성숙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이는 고교 졸업 이후의 진로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특성화고등학생들은 중학교 때의 낮은 학업성적과 대학진학을 이유로 특성화고등학교를 선택한다고 하였다(이정규, 2011; 류성희, 2007; 장유식, 2003). 많은 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이해 없이 전공학과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상태로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다(이정규, 2011).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학생들이 본인의 흥미와 적성에 의해 특성화고를 선택하는 경향성이 높아지고 있다(강영혜, 박소영, 2008). 이는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2) 전문교과 수업 흥미

흥미란 어떤 대상의 내용에 따라 특별한 주의를 수반하는 감정으로 교과 흥미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특정 교과에 마음이 끌리는 감정을 수반하는 관심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윤미선, 2003). 학습하는데 있어서 흥미는 학습의 시작과 완성이 중재하는 역할을 하므로 학습자의 동기유발과 관심의 지속에 필수적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학습자의 흥미를 존중하며 학습의 자발적인 학습 의욕을 환기시킴으로써 학습을 용이하게 하고 활발하게 할 수 있으며 능률도 올릴 수 있다(한국 교육과정 평가원, 1998).

정재훈(2012)은 체육전공 고등학생의 체육수업 흥미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모든 하위 영역에 대한 수업 흥미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관점에서 직업교육의 결과로 나타나는 취업포부가 해당 산업분야에 대한 직업교과의 수업 흥미도와 어떠한 영향관계가 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어 보인

다. 장현진, 이지혜(2012)는 전문교과 수업 흥미도가 취업선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문교과 수업 흥미도와 성취도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관련 변인에 영향을 주는 직업교육 흥미의 변인의 영향을 종합하면 <표 II-4>와 같다.

<표 II-4> 학생의 직업교육 흥미 변인 종합

구분	연구자	관계	주요내용
특성화고 선택이유	송민경(2009)	△	고등학교 계열 선택이 고교 졸업 이후의 진로에 영향을 미침.
	김동규(2012) 박경애 외(2007)	+	특성화고등학교 선택의 이유가 성적 및 의미있는 타자의 권유 등에 의해 결정되는 가능성이 높음.
전문교과 수업 흥미	정재훈(2012)	+	학생의 자기효능감에 수업 흥미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
	장현진, 이지혜(2012)	X	전문교과 수업의 흥미도가 취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주) + : 취업에 정적인 관련이 있음.
 - : 취업에 부족한 관련이 있음.
 △ : 취업에 부분적으로 관련이 있음.
 X : 취업에 관련이 없음.

다. 취업관련 경험

취업관련경험은 취업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이라 판단된다(김주섭, 2002; 김혜정, 2005; 박성재, 2004; 최동선, 2008). 취업관련 경험으로는 현장실습, 학교기업 참여, 인턴십 등이 있을 수 있다. 재학 중의 일 경험은 적극적인 직업의식과 태도를 함양하고 직업세계에 대한 인식을 높이며 산업현장에 필요한 지식의 개발을 통해 학교로부터 노동시장의 이행을 순조롭게 지원해 줄 수 있다(이병희, 2003). 특히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 학교 재학 중에 다양한 일 경험을 학교의 지원을 통해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취업포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

을 볼 때,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포부에 미치는 영향은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오현석 외(2005)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직업에 대한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진로체험 변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휘인, 김현철(2015)도 진로진학 경험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취업을 결정한 집단은 진학진로활동 경험이 취업에 대해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김성환 외(2005)는 청소년의 진로선택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는데 진로지도와 관련하여 진로직업이수, 진로관련 검사, 진로상담, 강연 등 대부분의 프로그램의 경험이 취업과 진학을 결정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중 근로관련 경험에서는 재학 중 아르바이트가 대학진학을 선택할 확률을 유의하게 낮추고 취업선택 확률을 유의미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관련 변인에 영향을 주는 학생의 취업관련 경험 변인의 영향을 종합하면 <표 II-5>와 같다.

<표 II-5> 학생의 취업관련 경험 변인 종합

구분	연구자	관계	주요내용
취업관련 경험	오현석 외(2005)	△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직업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냄.
	이휘인, 김현철(2015)	+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결정에 정적인 영향을 보임.
	이지혜, 정철영(2010)	+	취업관련 경험이 많을수록 취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음.
	김기현, 박영실(2006) 장기영(2008)	X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주) + : 취업에 정적인 관련이 있음.

△ : 취업에 부분적으로 관련이 있음.

X : 취업에 관련이 없음.

라. 학교생활 만족도

만족이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감성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Burr 외, 1979). 이에 따라 학교생활 만족도(school life satisfaction)는 ‘학생이 학교생활의 전 영역에 있어 흡족함을 느끼는 정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김주연, 2009). 김미경(2000)은 고등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는 학교의 계열, 선생님들과의 관계, 성적,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김미선 외(2013)은 특성화고등학교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로결정에 있어서 학교생활 만족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진학집단과 취업집단으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을 구분하여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과 학교생활만족도간의 관계에서 진로결정 자율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는데 진학집단과 취업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특성화고등학교 남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가 취업과 진학을 결정하는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의미로 학교생활만족도 정도에 따라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하면 <표 II-6>과 같다.

<표 II-6>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변인 종합

구분	연구자	관계	주요내용
학교생활 만족도	김미선(2013)	△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중 취업집단과 진학집단 사이의 학교생활 만족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이우성(2016)	+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취업능력에 정적인 영향을 줌.

- 주) + : 취업에 정적인 관련이 있음.
 - : 취업에 부족한 관련이 있음.
 △ : 취업에 부분적으로 관련이 있음.
 X : 취업에 관련이 없음.

마. 평균 성적

일반적으로 학업 성취는 진학 혹은 취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경근, 변수용, 2006; 오창환, 정철영, 2009; 채창균, 2007; Berbery 외, 2017). 또한 학업 성취가 높다는 것은 능력이 우수하거나 성실성이 높다고 판단될 여지가 많아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시 취업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채창균, 2006).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성적으로 인한 진로 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직업교육에 한정하여 그 영향을 분석하지는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채창균(2009)는 학업 성적이 높을수록 취업보다 대학진학을 결정한다고 보았고, 오석영(2012)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중 국어, 영어, 수학의 성적이 높은 학생이 낮은 학생에 비해 취업보다 대학진학을 결정한다고 분석하였다. 신희경, 김우영(2005)는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성적보다는 개인의 내적 동기가 영향을 분다고 분석하였다. 김휘인, 김현철(2015)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가 학업 성적이라고 분석하였다. 이상 평균 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하면 <표 II-7>과 같다.

<표 II-7> 학생의 평균 성적 변인 종합

구분	연구자	관계	주요내용
평균 성적	채창균(2009)	-	성적이 높을수록 취업보다 진학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임.
	신희경, 김우영(2005)	x	일반고등학교에 비해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성적으로 인한 영향관계가 없음.
	오현석 외(2005) 김휘인, 김현철(2015)	-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성적이 높을수록 취업보다 진학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임.
	Berbery 외(2017)	-	평균 성적이 높을수록 대학 진학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음.

주) + : 취업에 정적인 관련이 있음.
 - : 취업에 부족한 관련이 있음.
 △ : 취업에 부분적으로 관련이 있음.
 X : 취업에 관련이 없음.

바. 교육포부

교육포부(educational aspiration)는 진학에 대한 포부로서 개인이 미래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 예상하는 교육수준을 의미한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개인의 열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었을 뿐 아니라 학생의 교육성취와 미래의 지위획득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재적인 요소로 인식되어 왔다(Swell, Haller and Porters, 1969).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많은 연구에서 교육포부가 높을수록 진학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경근, 변수용, 2006; 김동선, 2002; 지민정, 2000). 교육포부가 낮을수록 진학보다는 취업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김경근, 1999; 김경근, 변수용, 2006; 변수용, 김경근, 2008; Meyer & Wise, 1982). 장현진, 이지혜(2012)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선택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교육포부가 1단위 높은 학생의 취업 선택 가능성이 낮은 학생에 비해 0.418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고려할 때 특성화고등학교학생의 교육포부가 취업포부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는 살펴보는 것이 충분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이상의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관련 변인에 영향을 주는 교육포부의 영향을 종합하면 <표 II-8>과 같다.

<표 II-8> 학생의 교육포부 변인 종합

구분	연구자	관계	주요내용
교육포부	김경근, 변수용(2006) 변수용, 김경근(2008)	-	교육포부가 높을수록 진학을 선택함.
	김정숙, 황여정(2007)	+	교육포부가 직업포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장현진, 이지혜(2012)	-	교육포부가 취업 선택 가능성에 부적인 영향관계를 보임.
	Sewell & Hauser(1975)	-	교육포부가 높을수록 고등교육으로 진학할 가능성이 높음.

주) + : 취업에 정적인 관련이 있음.

- : 취업에 부족한 관련이 있음.

△ : 취업에 부분적으로 관련이 있음.

X : 취업에 관련이 없음.

사. 가정환경 특성

1) 한 부모 가정 여부

고등학생의 진로선택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한 부모 가정 특히 여성가장일 경우 대학진학을 선택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성환 외, 2005). 이재규(2003)에 의하면 양부모 가정의 자녀가 한 부모 가정의 자녀보다 높은 학력을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한 부모가 가사를 전담하고 있을 경우에도 가사를 전담하는 부모가 없는 집단과 비교했을 때, 가사를 전담하는 한 부모가 있다는 그 사실 자체는 학력획득에 큰 의미가 없다고 분석되었다. 구인회·김순규(2002)도 비슷한 결과를 제시하였는데, 가족구조의 부정적인 영향은 이혼 및 별거 가족의 청소년과 가장기적으로 한 부모 가정을 경험한 청소년 집단에 집중되어 나타난다고 분석하였다.

특히 특성화고등학교의 경우 가정의 가구소득이 낮은 집단이 주로 진학한다는 점과 학생들의 학업 수준이 낮다는 점을 비추어 보았을 때, 한 부모 가정의 영향이 다른 일반계고등학교 학생에 비해 클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가족 구조의 영향이 학생들의 진로결정 즉, 취업결정 및 포부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가구 소득 수준

가구소득, 가구자산, 사교육비,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 등과 같은 변수가 대학진학과 취업의 선택에서 비교적 중요한 결정요인 역할로 나타났다(김성식, 2006; 김인국, 신동준, 2006, Teachman, Paasch & Carver, 1996).

가정환경은 전통적으로 자녀들의 인격 및 가치관 형성, 사회화의 과정 등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끼쳐왔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청소년기의 계획에 있어 부모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보고하고 있고, 직업적 관념은 부모와의 상호작용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Brown & Lent, 1996). 즉 청소년들의 진로발달 영역에 있어 부모를 포함한 가정환경 변인은 매우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가정환경 변인으로 가구 소득과 부모님의 학력을 선정하였다.

가구 소득 수준은 부모의 학력과 함께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결정하는 주요한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선행 연구에서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양호할수록 학생이 취업보다 진학을 희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최동선, 2009). 이는 대학 진학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주요한 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최동선, 2011).

이쌍철 외(2013)는 개인 및 가정 수준 변인의 영향력을 통제된 상태에서 학교의 어떤 특성이 학교간 취업률 차이에 영향을 주는지 연구하였다. 그 결과, 학부모의 경영참여 여부, 학생의 전공 만족도, 학교 구성원 간 관계,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다양성이 특성화고의 취업률에 영향을 준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자녀들의 교육에 있어 부모의 최종학력은 진로 및 교육수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남기곤(2008)은 한국이 다른 국가에 비해 부모의 학력이 자녀의 학력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채창균(2007)도 보호자의 학력이 학생의 진로선택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학력이 높을수록 취업하게 되는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우성(2016)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가구소득 수준이 취업능력 중 구직 및 직업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취업과 관련한 과외활동 및 방과 후 수업의 기회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표하는 가구 소득과 부모님의 학력인 가정환경변인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선택 즉, 취업결정과 취업포부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상의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관련 변인에 영향을 주는 학생의 가정환경 변인의 영향을 종합하면 <표 II-9>와 같다.

<표 II-9> 학생의 가정환경 변인 종합

구분	연구자	관계	주요내용
한 부모 가정 여부	김성환 외(2005)	+	한 부모 가정일 경우 대학진학보다 취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음.
	이재규(2003)	+	양부모 가족일 경우 진학을 선택하는 경향이 큼.
가구 소득 수준	강순희, 안준기(2012)	+	대졸자의 경우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취업을 할 가능성이 높아짐.
	장현진, 이지혜(2012)	-	가정소득이 낮은 학생은 취업을 할 확률이 높아짐.
	최동선(2009)	-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진학을 할 가능성이 높음.
	이우성(2016)	+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취업능력에 영향을 미침.

주) + : 취업에 정적인 관련이 있음.
 - : 취업에 부족한 관련이 있음.
 △ : 취업에 부분적으로 관련이 있음.
 X : 취업에 관련이 없음.

아. 가정의 진로지원 환경

1) 가정 내 진로관련 대화 정도

가정 내 진로관련 대화 정도는 학생들의 진로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분석되어왔다. 김강호(2009)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결정에 미치는 변인을 분석하여 교사의 진로지도보다 가정의 대화가 큰 영향을 주었다고 분석하였다. 이에 반해 신희경, 김우경(2005)는 일반계고등학교의 경우 학생과 부모의 대화 시간과 같은 가정변인이 학생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주었지만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부모와의 대화 시간이 유의미한 영향관계를 보이지는 않았다. 김경식, 이현철(2007)은 가정요인으로 진로관련대화의 정도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부모-자녀 간의 진로관련 대화는 학생들의 진로결정 수준의 초기치 형성에는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변화율에는 정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가정의 진로지지

가정의 진로지지는 가정에서 진로에 대해 지지하는 정도로 사회적 지지의 의미를 통해 알 수 있다. 사회적 지지란 사회적 지원의 사용가능성을 개인이 인지한 정도라 할 수 있다(Nota, Ferrari, Solberg, & Soresi, 2007).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가족이나 동료, 친구 등의 주요한 타자로부터 제공받는 다양한 도움과 원조의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김태환, 2012). 즉, 가정의 진로지지는 가정에서 진로에 대해 지지하는 도움과 원조를 개인이 인지하는 정도라 볼 수 있다. Turner 등(2003)은 진로관련 부모지지 척도(The Career-Related Parent Support Scale)를 개발하였다. 이에 대한 하위 영역으로 도구적 조력, 진로관련 모델링, 언어적 격려, 정서적 지지의 4가지로 개념화하였다. 이를 이상희(2009)는 사회적지지 척도와 구별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정보적지지, 대화적지지, 정서적지지, 경제적지지, 경험적지지의 5가지 하위영역으로 개념화하였다.

가정변인 중 부모의 진로지지는 진로결정에 대해서 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이명훈, 2015; 임나영 외, 2015). 이휘인, 김현철(2015)는 부모의 기대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주는 주된 요인이라고 분석하였다. 이는 부모의 기대에 따라 학업성취와 진로가 결정된다고 보았던 Coleman(1990)의 연구와도 일치하였다. 이우성(2016)은 가정의 진로지지가 노동시장수요인식과 취업기대수준 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취업을 인식하고 탐색하는 과정에서 가정 특히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이 취업을 결정하는 시기가 청소년기라는 점과 가정의 진로지지가 학생의 진로 결정에 있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가정의 진로지지 정도에 따른 취업포부의 영향력을 판단하는 것이 의미 있는 연구라 보았다. 이상의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관련 변인에 영향을 주는 가정의 진로지원 환경 변인의 영향을 종합하면 <표 II-10>과 같다.

<표 II-10> 학생 가정의 진로지원 환경 변인 종합

구분	연구자	관계	주요내용
가정 내 진로관련 대화정도	김강호(2009)	△	진로지도보다 가정 내 대화가 더 많은 영향을 줌.
	신희경, 김우경(2005)	x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은 영향을 미치는데 반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은 영향을 미치지 않음.
	김경식, 이현철(2007)	-	초기 진로결정 수준에는 부적인 영향을 주지만 변화율에는 정적인 영향을 줌.
가정의 진로지지	이명훈(2015) 임나영 외(2015)	+	부모의 진로지지는 진로결정에 정적인 영향을 보임.
	Brown & Lent(1996)	+	부모의 진로지지가 진로결정 및 취업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김태환(2013)	+	가족 지지의 인식이 좋을수록 진로 선택에 몰입하는 경향이 있음.
	이명훈(2017)	+	사회적지지(가족, 친구, 교사)가 높을수록 진로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음.

주) + : 취업에 정적인 관련이 있음.
 - : 취업에 부족한 관련이 있음.
 △ : 취업에 부분적으로 관련이 있음.
 X : 취업에 관련이 없음.

3.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포부에 대한 학급 수준 변인의 영향요인

가.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특성

1)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업무특성

특성화고등학교는 보통교육과 더불어 특정 직업 및 직업군과 관련한 전문 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교사들의 업무 특성이 다른 일반계 고등학교에 비해 다소 다르다(마상진a, 2004). 특성화고등학교 교사들의 업무 분장을 보면 일반계고등학교와는 다르게 직업교육 및 산학협력부가 있어 직업교육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부서에서는 선취업 후 진학 체계를 고려한 직업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체 및 유관기관과 다양한

형태로 산학협력을 지원하며 단위학교의 현장실습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취업 지원 업무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외, 2012). 이 밖에도 각종 기능대회 지도 및 실습실 관리 등의 추가 업무를 수행하게 되고 동일한 직무라 하더라도 더 세분화하여 그 직무 내용을 분석해보면 훨씬 더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나승일 외, 2003).

특성화고등학교 교사들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취업지도를 담당한다는 점이다. 이영대(2001)는 취업지도 담당교사를 취업지도의 주체자로서 취업 관련 부서에서 전문적인 취업지도를 위해 진로교육에 대한 이론적 배경이나 상담기술을 익힌 자라고 정의하였다. 취업지도의 업무 내용은 직업특강 및 단기강조, 심리검사, 모의 면접 및 창업취업캠프, 교내 취업지원 프로그램, 구조화된 취업지원, 직업기초능력 및 자격증 지도, 진로상담, 산업체 또는 졸업생 멘토링, 산학협력 및 위탁과정, 진로이력관리의 순으로 업무가 이루어 지고 이는 학년별 시기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취업지도의 업무는 특성화고등학교 교사 중 누구나 수행해야 할 직무이고 대체로 전문교과 교사가 담당하고 있다(최동선 외, 2010). 취업지도 업무는 일반계고등학교의 진학 지도와 비교하였을 때 진로상담을 한다는 측면에서 비슷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취업처를 직접 발굴하고 현장실습, 산학협력 등의 과정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일반계고등학교에 비해 학생의 진로인 취업에 교사가 직접적으로 관여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특성화고등학교의 담임교사는 학급 학생들의 진로교육 로드맵 실천과정 관리, 학생 및 학부모 진로진학 상담, 진로활동 운영 및 지원, 취업현황 DB 구축 및 졸업자 취업지원 및 후진학 관리 등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지도에 대해 직접적인 관리를 담당하게 된다(교육과학기술부 외, 2012). 일반계고등학교의 담임교사도 진로지도를 담당 하지만 진학에 초점이 맞추어 진데 반해 특성화고등학교는 취업에 집중된 진로지도를 담당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3학년이 되는 시점에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게 된다. 대부분의 학생이 취업을 결정하는 시기가 졸업예정 시기이고 이 시기에 학생들이 주로 취업지도를 받는 교사는 본인이 속한 학급의

담임교사이다. 이 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 포부에 담임교사가 유의미한 타자로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동일한 담임교사도 구성된 학급 수준 변인의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2) 특성화고등학교 보통교과와 전문교과 담당 교사의 특성

특성화고등학교는 특정 산업분야의 직업교육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교육과정이나 수업 방법 측면의 차별화가 필요하다. 특히, 특성화고등학교는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능력이 핵심요인으로 실제 단위학교에서 교육과정 개발자, 연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교사의 중요성이 크다(강영혜, 박소영, 2008). 특성화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는 산업분야의 기술과 연관된 교육을 제공하여야하기 때문에 국어, 수학, 사회, 과학과 같이 보통교과를 가르치는 교사와 직업교육 차원의 교과를 가르치는 전문교과 교사로 구분된다. 학교의 특성 및 규모에 따라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를 가르치는 교사의 비율은 차이가 있지만 2016년 기준 전체 25,854명의 특성화고등학교 교사 중 12,953명이 전문교과, 9,785명이 전문교과 교사가 보통교과 교사에 비해 더 많은 비율로 구성되어 있었다.

같은 특성화고등학교 내에서도 전문교과 교사들은 보통교과 교사들보다 교과 특성상 대체로 더 많은 업무를 수행 한다(이무근, 2003). 특성화고등학교와 일반계고등학교 교사들의 업무 차이가 전문교과 담당교사에 의해 설명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마상진a, 2004). 전문교과 교사는 실험 실습 지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고 이를 실행함에 있어서 학생들의 능력을 잘 고려하여 수업을 계획하고 전개, 평가하여야 하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현장실습 지도와 졸업생의 진로지도를 취업과 관련하여 병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는 물론 산업사회와 직업구조의 변화 그리고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밤낮으로 이들과 유기적인 협조를 유지하여야 한다(이용환, 1987). 이 밖에도 각종 시·도 교육청 차원 및 전국적 차원의 경진대회를 위해 학생들을 지도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고 있다. 교과 특성상

직업교육 관련 업무를 대부분 전문교과 교사가 담당하고 있고 보통교과 교사는 조직 차원의 대부분의 주요 업무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성화고등학교의 보통교과 교사들 역시 수업진행 등의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부분의 특성화고등학교 교사는 다른 일반계 고등학교에 비해 학생들의 전반적인 학업능력 수준이 낮아 수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일반교과를 가르치는 교사들의 어려움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강영혜, 박소영, 2008). 보통교과에 부과된 교육 시간이 일반계고등학교에 비해 절반이 채 되지 않아 일선 학교 교사들은 교수학습에 있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나실, 2013). 특성화고등학교의 특성상 모든 업무가 전문교과업무를 우선으로 하여 일반교과와 관련한 업무는 부수적인 업무로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다(오영재, 정지선, 2006). 따라서 특성화고등학교 보통교과 담당 교사는 전문교과 담당 교사에 비해 교육과정 기획 등 학교의 핵심 교육업무에 참여하는 수가 적다.

이렇듯 특성화고등학교의 교육목표인 산업분야의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교과를 제공하고 있고 이를 위해 교사를 전문교과와 보통교과 담당 교사로 구분하여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직업교육과 관련한 대부분의 업무는 전문교과 담당 교사들이 담당하고 있으며 보통교과 담당 교사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구성은 해당교사의 교과 특성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지도 측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3)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심리 특성

특성화고등학교 교사들은 직업교육에 대한 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특히 산업분야의 변화에도 발 빠르게 대처해야만 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특성화고등학교 교사들은 일반계고등학교 교사에게 비해 다른 심리적 특성을 가질 수 있다. 학생 미달과 학과 개편 및 감축 현상,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 등과 같은 문제들로 인하여 교사들은 상당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으며(정철영, 2001), 업무관련 스트

레스, 담당 교과에 따른 교사 간 갈등 상황 등을 경험하고 있다(김현수, 임세영, 1993; 진명구, 2000). 이 때문에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직무만족이 다른 고등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다(김나라, 정철영, 2002).

같은 특성화고등학교 내에서도 전문교과를 담당하는 교사들은 보통교과 교사들에 비해 다른 심리특성을 가지고 있다. 담당교과의 특성 상 담당교과목의 교육시수 과다, 각종 행사 준비, 학습 시 각종 안전사고 발생 및 후속처리 문제, 기능 자격 취득에 대한 부담, 실습실 사용 및 관리, 수리에 대한 부담 등의 심리적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한다(신윤희, 1990). 보통교과 담당 교사들은 주요 업무 분장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갈등으로 인해 학교 교육에서 능동적인 역량을 발휘하는 의지를 감소시켜 전문교과 교사들에 비해 자아효능감이 낮은 편이다(황준오, 정철영, 1998). 특히 교과 지도 측면에서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에 비해 수업지도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불만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명진, 2003).

또한 특성화고등학교의 계열에 따라서 해당 학교의 교사들이 다소 다른 심리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나라, 정철영, 2002). 김나라, 정철영(2002)는 상업계 고등학교 교사들이 공업계열 혹은 농업계열 고등학교 교사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직무만족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학교 계열에 따라 교사들이 담당해야 하는 업무의 특성이 달라진다는 점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업 계열과 농업 계열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 차원의 막대한 시설 투자와 더불어 추가적인 관리 업무가 요구되는데 비해 상업계열 고등학교 교사의 경우 많은 부분 상대적으로 시설과 관련한 업무 부담이 적을 수 있다(마상진a, 2004). 또한 공업 계열과 농업계열 고등학교가 상업계열 고등학교에 비해 전국적인 규모의 경진대회나 기능대회 등의 준비가 많아 추가적인 업무 부담이 있을 수 있다(이무근, 1971; 최영걸, 김진수, 2002).

이상을 종합하면 특성화고등학교 교사들은 담당하는 업무 혹은 담당교과,

학교의 계열 등으로 인해 다양한 심리적 특성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교사의 심리적 특성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지도할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포부에 교사의 다양한 변인이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고자 한다.

나. 학급 수준 변인의 영향요인

Sewell & Hauser(1975)에 따르면 가정배경 변수들은 부모와 교사와 같은 의미 있는 타자를 통하여 직업포부와 기대 수준에 영향을 주며 학생의 지적 능력은 직접적으로 직업지위 획득과 학업성취도와 의미 있는 타자에 의해 매개되어져 교육포부와 직업포부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지위획득이론은 가정과 학교에서의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사회 심리적 특성들이 직업 달성과정에서 중요한 동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구명하였다.

학생에게 교사가 미치는 다양한 영향은 선행연구들을 통해 충분히 검토된 바가 있다(신희경, 김우영, 2005; 조아미, 2007; 권혜연, 2006, 최동선 외, 2010). 최호승, 이종호(2012)는 충남지역 상업계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생의 진로선택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상은 교사로 31.3%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부모가 28.4%로 그 뒤를 이었다. 이와 같이 교사가 학생의 진로 및 학업성취 등 다양한 변인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다양한 선행연구를 통해 그 영향력이 증명되었다. 그러나 교사가 학생의 진로선택 특히 취업을 결정하는 정도에 대해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검증은 충분치 않은 것으로 보여 진다.

1) 교사의 일반적 특성

이지혜, 정철영(2010)의 분석 결과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장벽에 대한 분석 결과 공업 > 상업 > 가사 > 농업 순으로 취업 장벽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조리사나 미용사 등의 전문직으로 바로 취업할 수 있는 타

계열에 비해 취업장벽 인식이 낮을 수도 있지만 학교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채창균(2006)은 농업계열이나 수산, 해양계열, 가사계열 등의 졸업생이 공업계열이나 상업계열 졸업생에 비해 취업보다 진학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였다. 안재영, 이병욱(2012)은 현장실습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진로 결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중 중요한 변인 중 하나가 교사에 대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성분 5로 구성된 문항은 교사와의 취업에 대한 상담, 교사의 산업체 추천 및 현장실습 산업체 사전 정보 제공으로 구성되었고 이는 산업체 취업에 관한 교사의 지도 요인으로 명명되었다.

2) 직업교육 인식

특성화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직업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는 직업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합의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고 그 인식을 측정하는 도구가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이라 본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마상진b(2004)는 직업교육 가치성향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였다. 이는 직업교육 가치성향의 유형을 인문주의, 기능주의, 신직업주의, 비판주의로 구분하고 직업교육의 요소를 교육목적, 학생, 교사, 교육내용으로 구분하여 이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을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마상진, 나승일(2004)는 실업계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직업교육 가치성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실업계 고등학교 교사는 신직업주의 및 기능주의에 근거한 직업교육 가치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교사의 성별, 연령, 교직경력, 담당교과, 계열간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호승, 이종호(2012)는 특성화고등학교 교사가 직업교육 정책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지를 분석하여 그 태도가 교육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정책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취업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취업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교육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직업교육의 가치성향이나 정책에 대한 태도가 아닌 큰 개념의 직업교육 자체에 대한 교사의 필요성 인식에 따른 학생의 취업포부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보려고 한다.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교사의 어떠한 변인에 대한 인식이 학생의 관련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교사의 직업교육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학생의 취업포부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3) 취업지도 능력

권혜연(2006)의 연구에서 학생들이 기대하는 학급 담임교사의 중점 지도 분야는 올바른 진로지도, 원만한 인간관계, 교과 성적의 향상, 건전한 생활습관, 특기 적성 지도 및 건강지도 순으로 그 중에서도 진로지도를 가장 많이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지도 면에서는 담임교사의 영향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담임교사에게 기대하는 진로지도 방법은 학생의 관심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 조언을 하는 것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 후에 학생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강호(2009)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교사의 진로지도에 대해서 학생이 느끼는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낮았고 진로결정 즉 취업과 진학을 결정하는데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고 분석하였다.

4) 취업지원 정도

특성화고등학교에서의 취업지도는 특성화고등학교 교사 중 누구나 수행해야 할 직무이나 대체로 전문교과 및 담임교사가 담당하고 있다(최동선, 2010). 특히,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는 학교현장 학생들의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충남교육청, 2014).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에게 누가 취업지도를 하느냐에 따라 학생은 다양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학생이 취업을 결정하고 포부를

정함에 있어 교사의 영향력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는 진로결정 및 취업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신희경, 김우영, 2005; 조아미, 2007). 안선영 외(2012)는 개인을 둘러싼 사회적 관계, 특히 부모나 교사, 친구 등 의미 있는 타자와의 관계가 진로 및 취업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특히, 신희경, 김우영(2005)는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으로 교사의 성별, 교사 연령, 교직경력 등으로 구분하였다. 그 결과 실업계고등학교에서 교사의 성별, 교사의 연령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담임교사가 남성일수록, 연령이 젊을수록 그리고 교사가 학교에서 진로지도 잘 하고 있다고 인식할수록 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지역 상업계 특성화고 학생들의 진로선택의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 교사가 31.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가 28.4%, 본인 자신이 19.4%로 조사되었다(최호승 외, 2012). 신희경, 김우영(2005)는 진로결정 수준을 개인 및 학교변인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교변인 중 남자 담임교사의 비율이 81.1%로 진로결정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에 많이 분포하였다. 특히 실업계 학생들의 미래직업의 결정수준이 높은 반일수록 담임교사의 연령이 낮고(41.7~39.6세), 교직경력이 적은(12.8~11.1년)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담임교사가 남자일수록, 연령이 젊을수록 그리고 교사가 학교에서 진로지도 잘 하고 있다고 인식할수록 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현진, 이지혜(2012)는 학교의 진로지도 상담정도에 따른 학생의 취업결정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교에서 진로지도 상담이 활발하게 이루어질수록 취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1.646배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굉장히 큰 영향관계라고 보여진다. 신희경, 김우영(2005)도 같은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는데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일반계고등학교 학생과 비교했을 때 교사나 진로관련 강연과 같은 진로지원 변인이 진로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상의 교사의 특성에 대한 학생의 취업관련 변인에 대한 영향력을 종합한 결과는 <표 II-11>과 같다.

<표 II-11> 학급 수준 변인 종합

구분	연구자	관계	주요내용
성별	신희경 외(2005)	+	교사의 성별은 학생의 진로결정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근무년수	신희경 외(2005)	-	교사의 경력이 낮을수록 학생들의 미래 결정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담당학급의 계열	김동규(2012)	+	전공계열에 따라 취업률에 차이가 있음.
	채창균(2006)	+	상업계고 출신 졸업생의 취업률이 높음.
	김상대(1994) 지민정(2000)	+	계열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손은령(2002) 정흥원(2002)	X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계열별 차이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
	Yi, H 등(2017)	X	학교수준의 변인들이 직업교육의 효과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취업지원 정도	김동규(2012)	+	학교의 취업지원이 클수록 취업할 가능성이 높음.
	곽민호(2012)	△	학교의 지원을 긍정적으로 이해할수록 진로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조규형(2014)	+	취업지원,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 시 학생 참여비율, 학교의 도시 소재 여부, 수도권 소재 여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주) + : 취업에 정적인 관련이 있음.
 - : 취업에 부족한 관련이 있음.
 △ : 취업에 부분적으로 관련이 있음.
 X : 취업에 관련이 없음.

III.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이 연구의 목적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 포부와 학생 및 학급 수준 변인의 위계적 관계를 구명하는 것이다. 연구의 종속변인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포부이며, 독립변인은 학생 수준 변인 및 학급 수준 변인이다. 학생 수준 변인은 학생의 일반적 특성(성별, 거주 지역), 직업교육 흥미(특성화고등학교 선택 이유, 전문교과 수업 흥미), 평균 성적, 교육포부, 취업관련 경험, 가정환경 특성(한 부모 가정 여부, 가구소득 수준), 가정의 진로지원 환경(가정 내 진로관련 대화 정도, 가정의 진로지지)로 구성되어 있다. 학급 수준 변인은 교사의 일반적 특성(담임교사 성별, 담임교사 연령, 부장교사 여부, 근속년수(개월), 담임교사 담당교과, 담당학급의 계열), 직업교육 인식, 취업지도 능력, 취업지원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 개인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인은 학생이 속한 학급의 집단에 관계없이 학생 개인이 독립적으로 가지는 특성이다. 반면, 학급 수준 변인은 한 명의 담임교사로 구성된 학급이라는 동일한 집단에 소속된 학생들이 상호 종속적인 특성을 가지게 된다. 이에 반해 다른 학급의 구성원들과는 독립되는 특성을 가지게 되는 변인을 의미한다(Raudenbush & Bryk, 2002). 기존에 수행되어온 연구에서 활용한 전통적인 단층구조의 모형은 집단의 효과가 개인 차에 관계없이 동일하다고 가정함에 따라 층위 간 상호작용을 밝히는데 한계가 있었다(강상진, 2016).

특히, Cronbach(1976)은 교육효과에 관한 연구에서는 그 연구가 학급을 대상으로 한 실험 연구이든, 평가연구이든 타당한 결과를 밝히기보다 감추는 식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 왔으며, 많은 연구에서 채택한 방법들이 그릇된 결과를 도출하게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통계적인 분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학급(집단)의 효과를 구명하기 위해 위계적 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을 활용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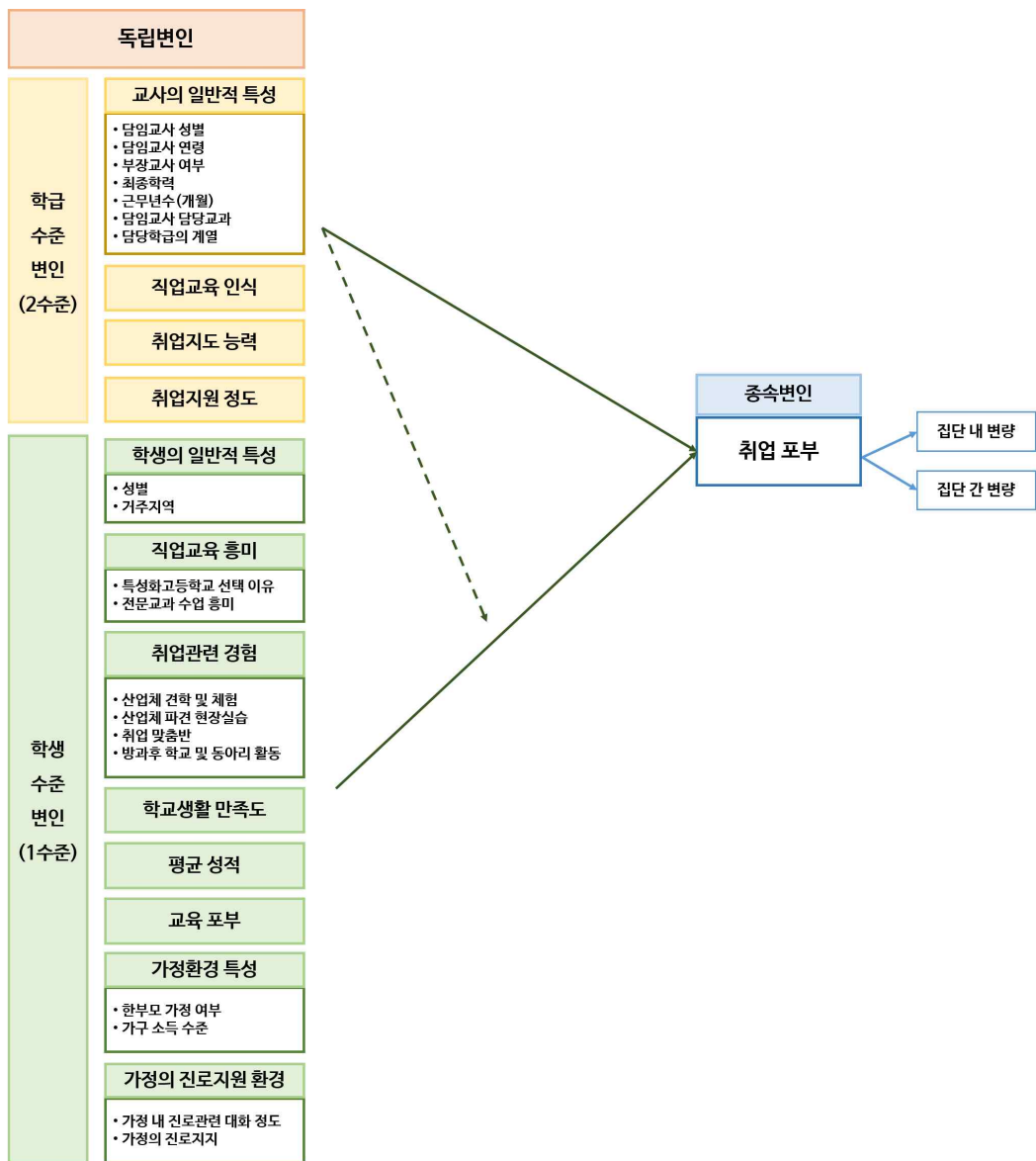
(Danes 등, 2013; 조한익, 2004; 최현주, 2015; 지성필, 2016; 박소영, 2004; 이희숙, 2011; 김진선, 2013). 해당 연구에서는 학급 수준을 하나의 집단으로 구분하고 학생 수준과 학급 수준의 2수준으로 층을 구분하여 학생 개인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학급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도 학생의 취업포부에 영향을 미치는 학급 수준의 영향을 구명하고자 한다. 학급 수준은 담임교사의 영향을 공통적으로 받는 하나의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2수준 위계적 선형모형(hierarchical linear model)인 다층모형을 설정하였으며, 세부 연구 목적에 따라 각각의 연구문제에 알맞은 모형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무선효과 일원변량 분석 모형(Random Effects One-Way Anova)은 연구 문제 1에 해당하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포부에 대한 학생 및 학급 수준 변인의 변량을 구명하기 위한 모형이다. 이 모형은 아무런 설명변수가 없다는 점에서 무조건 모형(Unconditional Model)이라 불리기도 한다.

둘째, 무선효과 회귀계수 무조건 모형(Random-Coefficients Regression Model)은 연구문제 2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포부와 학생 수준 변인의 효과를 구명하기 위한 모형이다.

셋째, 공분산분석 다층모형(regression with means-as-outcomes)은 연구문제 3에 해당하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학급 평균 취업포부에 영향을 미치는 학급 수준 변인의 효과를 구명하기 위한 모형이다.

마지막으로 무선효과 회귀계수 조건 모형(intercepts and slope-as-outcomes model)은 마지막 연구문제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학생 수준 변인과 학급 수준 변인의 상호작용 효과를 구명하기 위한 모형이다. 이상의 연구문제에 따른 분석 모형을 도식으로 나타내면 [그림 III-1]과 같다.



[그림 Ⅲ-1]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포부에 대한 학생 및 학급 수준 변인의 다층분석을 위한 연구 모형

2. 연구 대상

가. 모집단

이 연구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포부에 대한 학생 및 학급 수준 변인의 영향을 구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진학과 취업의 결정을 해야 하는 시기인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인 학생을 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 2016년을 기준으로 직업교육 특성화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현황은 <표 III-1>과 같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은 2016년 기준 472개교에 287,667명이 재학 중이며, 이 중 3학년 학생은 96,419명이다(한국교육개발원, 교육부, 2016). 성별에 따라 구분하면 남학생이 161,646명, 여학생이 125,679명으로 남학생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계열별로는 공업계열이 130,939명, 상업 119,405명으로 학교 수와 비슷하게 각각 45%, 41%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3학년 학생의 성별은 남학생이 54,581명 여학생이 42,739명으로 전체 학생의 성별과 비슷하게 분포하였다.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계열별 구분된 통계는 보고되지 않아 알 수 없었다. 따라서 전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현황을 바탕으로 계열별 비율을 추정하였다.

<표 III-1> 전국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일반 현황

구분		학생 수(명)	백분율(%)
계열	농업	16,152	5.6
	공업	130,463	45.4
	상업	115,303	40.1
	수산 및 해양	2,408	0.8
	가사	23,341	8.1
	계	287,667	100.0
3학년 학생 성별	남	54,054	56.1
	여	42,365	43.9
	계	96,419	100.0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부. (2016). 교육통계연보

2016년을 기준으로 특성화고등학교 1, 2, 3학년 전체 학급 수 현황을 계열별로 살펴보면 <표 III-2>와 같다. 전체 학급 수는 11,126개의 학급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업계열이 5,007개로 약 45%를 차지하였다. 다음은 농업계열로 4,446개의 40%, 가사 및 실업이 900개(8.1%), 농업계열이 667개(6%)로 조사되었다. 이 연구의 모집단인 3학년 학생들이 속한 3학년 학급은 계열별로 조사된 통계가 존재하지 않고 전체 3학년 학급 수만 제시하고 있다. 전체 3학년 학급 수는 전체 11,126개의 학급 중 3,622개이다. 계열별로 학년 별 학급 수의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아래 계열별 비율을 전체 학급 수를 기준으로 비례증화표집을 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표 III-2> 특성화고등학교 학급 수 현황 일반 현황

구분		학급 수(개)	백분율(%)
계열	농업	667	6.0
	공업	5,007	45.0
	상업	4,446	40.0
	수산 및 해양	106	1.0
	가사	900	8.1
	계	11,126	100.0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부. (2016). 교육통계연보

특성화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에 대한 계열별 정보는 교육부 차원에서 제시하고 있지는 않는다. 대신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유형별 교원 수와 성별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었다. 전국 특성화고등학교 교원의 수는 전체 26,306명이고 그 중 공립학교는 14,742명, 사립은 11,564명이다. 성별로 구분하면 남성이 14,073명, 여성이 12,233명으로 학생과 비슷하게 53%, 46%의 분포를 나타낸다(한국교육개발원, 교육부, 2016)(<표 III-3> 참조).

〈표 Ⅲ-3〉 특성화고등학교 교사 수

구분		교사 수(명)	백분율(%)
유형	공립	14,742	56.04
	사립	11,564	43.96
	계	26,306	100.0
성별	남	14,073	53.49
	여	12,233	46.51
	계	26,306	100.0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부. (2016). 교육통계연보

나. 표집

1) 표본 크기

연구를 위한 표본 크기는 연구 방법, 자료 수집 및 분석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이 연구는 위계적 선형모형의 다층분석을 활용하여 분석이 이루어진다.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에서는 추정과 표준오차의 정확성을 위해 집단 수준을 의미하는 2수준 분석 대상의 표본 수와 개인 수준인 1수준 분석 대상의 표본 수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Woltman, Feldstain, MacKay, & Rocchi, 2012). 특히 상위수준 분석대상인 2수준의 표본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집단 수준인 2수준의 표본을 최소 30개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Klein & Kozlowski, 2000). Hofmann(1997)은 2수준의 표본 개수에 따라서 집단 내 수가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다층분석을 위한 최상의 상황은 60개 집단에 25명의 개인을 관찰한 것으로 총 1수준의 총 표본 수는 1,500명이다. 1수준의 총 표본 수는 2수준 집단의 수에 영향을 받는데 Kreft(1994)는 2수준 60개 집단의 1수준 집단별 25명의 자료를 확보하는 것(n=1,500)과 2수준 150개 집단의 1수준 집단별 5명의 자료를 확보하는 것(n=750)이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고 밝히고 있다. 정지은

(2017)은 2수준 30개 집단의 1수준 집단별 30명의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개인 차원에서는 집단별로 최소 5명 이상의 자료가 표집 되어야 자료 가공 시 나타나는 편의성(Bias)이 감소하기 때문에 조직을 대표하는 집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김강호, 2008; Bliese, 1998). 특성화고등학교 학급의 특성 상 따라서 개인 수준인 학생의 변인이 집단인 학급을 대표하는 자료로 활용 가능하도록 한 교사 당 최소 20명의 학생을 표집 하는 것으로 크기를 설정하였다. 즉, 40명의 교사 당 20명의 학생을 표집 하여 총 800명을 표본 크기로 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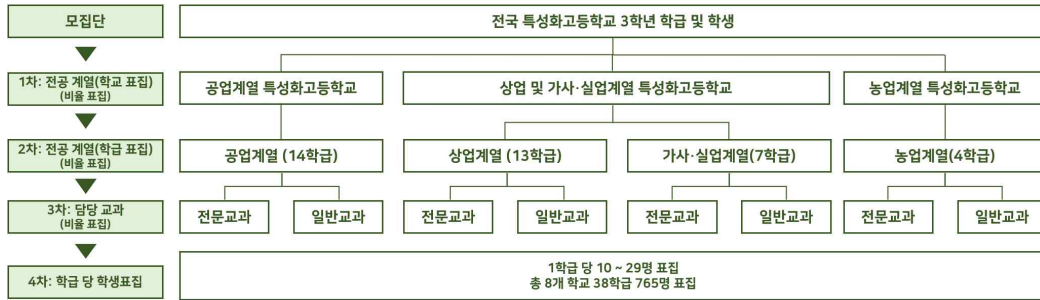
이상을 고려했을 때, Kreft(1994)와 Hofmann(1997), 정지은(2017)이 제시한 내용을 고려하여 최소 2수준 35개 집단의 1수준 15명의 자료로 총 525명의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회수율을 고려하여 40개의 학급의 2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총 800명의 자료를 표집 인원으로 설정하였다.

2) 표집방법

이 연구에서는 모집단인 전국의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비례층화표집(proportionate stratified sampling)을 실시하여 표집을 실시하였다. 층화표본추출법(stratified sampling)은 모집단을 특정한 기준에 따라 서로 상이한 소집단(strata)으로 나누고 각 소집단들로부터 빈도에 따라 적절한 일정수의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하는 방법이다. 표본이 편중될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함으로써 표본의 모집단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비례층화표집은 소집단의 크기에 비례하도록 표본의 수를 할당하여 추출하는 방법이다(이훈영, 2008).

표집 절차 및 방법은 [그림 III-2]와 같다. 비례층화 표집방법에 따라 연구의 모집단인 전국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 학급을 대상으로 전공의 계열과 담임교사의 담당교과에 따라 비례층화표집을 실시하였다. 전공계열은 공업계열, 상업계열, 실업·가사계열, 농업계열의 분포를 토대로 표집을 진행하였다. 총 8개 학교를 대상으로 표집을 실시하였고 학교의 규모에 따라 4~5개

학급을 대상으로 표집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8개 학교의 38개 학급을 대상으로 표집을 실시하였고 학급당 10~29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총 765명을 최종적으로 표집 하였다.



[그림 III-2] 표집 절차 및 방법

3. 조사 도구

이 연구의 목적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포부에 대해 학생 및 학급 수준 변인들의 영향력 구명을 위해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설문지는 취업포부와 학생 수준 변인 및 학급 수준 변인으로 구성되며 변인 특성에 따라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학생 수준 변인은 인구통계학적 특성, 직업교육 흥미, 가정환경 특성, 가정의 진로지지로 구성되고, 학급 수준 변인은 교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직업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취업지도 능력, 취업지원 정도로 구성된다. 각 문항은 5점 척도 및 선택형 문항, 주관식 문항 등으로 조사 되었다.

이 연구에서 활용할 조사도구는 <표 III-4>와 같다. 설문이 필요한 변인 중 교사의 ‘직업교육 인식’을 측정하는 적절한 도구가 개발되어 있지 않았다. 위 변인을 측정하기 위해 도구개발 절차에 따라 ‘직업교육 인식’을 측정하는 도구를 개발하여 설문을 진행하였다. 이 외의 인구통계학적 변인, 직업교육 흥미, 가정환경 변인, 가정의 진로지지 변인 등은 기존의 도구들을 연구

<표 III-4> 조사도구의 구성

구분		문항번호	문항 수	조사대상	
종속변인	취업포부	2	11	학생	
독립변인					
학급 수준 변인 (2수준)	교사의 일반적 특성	담임교사 성별	7	1	교사
		담임교사 연령	6	1	
		근속기간(개월)	4 - 5	2	
		부장교사 여부	8	1	
		최종학력	9	1	
		담임교사 담당교과	3	1	
		담당학급의 계열	10	1	
	직업교육 인식	1	12		
	취업지도 능력	2	30		
	취업지원 정도	10	24	학생	
학생 수준 변인 (1수준)	학생의 일반적 특성	학생 성별	16	1	학생
		거주 지역	15	1	
	직업교육 흥미	특성화고등학교 선택 이유	1	1	
		전문교과 수업 흥미	5	6	
	학교생활 만족도		6	6	
	평균 성적		11	1	
	교육 포부		3 - 4	2	
	취업관련 경험		7	4	
	가정환경 특성	한 부모 가정 여부	13	1	
		가구소득 수준	12	1	
	가정의 진로지원 환경	가정 내 진로관련 대화 정도	8	4	
		가정의 진로지지	9	15	

목적에 맞게 기존 문항을 추출하여 수정·보완하는 방식을 활용하였다.

이 연구의 조사도구는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타당성 검토와 예비조사를 통해 조사도구의 검증 과정을 거친 뒤, 본 조사에 활용하였다. 관련 분야 전문가는 직업교육을 전공하고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교수 및 연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를 위하여 학급 학생의 설문조사와는 별도로 교사를 대상으로 추가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예비조사 결과 교사 67명과 학생 218명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를 토대로 내적 합치도와 구인타당도를 검토하였다. 본 조사는 총 38개 학급의 교사 38명과 학생 765명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모든 측정도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내적 일치도 계수를 통해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가. 취업포부

취업포부를 측정하기 위한 설문 문항은 이선민(1994)의 도구를 활용하였다. 이선민(1994)는 전문대학 졸업생들의 취업포부는 전문대학 졸업생들의 취업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11문항을 1점에서 5점 척도로 개발하여 측정하였다. 취업포부 측정을 위해 구성된 문항은 취업을 하고자 하는 욕구 뿐 아니라 직업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바가 뚜렷한지의 여부, 취업을 위한 계획의 구체성 여부, 취업이라는 문제를 헤쳐 나가려는 각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이선민, 1994, p.21). 10번 문항은 역문항으로 채점되어 역코딩으로 변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Cronbach α 값이 예비조사에서 0.831, 본 조사에서 0.826으로 나타나 연구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적으로 판단된다(<Ⅲ-5> 참조).

<표 Ⅲ-5> 취업포부 신뢰도 분석 결과

구분	문항 수	Cronbach α 값	
		예비조사 (n=218)	본조사 (n=765)
취업포부	11	0.831	0.826

나. 교사의 일반적 특성

교사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근속기간(개월), 해당 직위, 최종학력, 담당교과, 담당학급의 계열로 구성된다. 각 변인에 대한 측정 내용과 분석 내용은 <표 Ⅲ-6>과 같다. 변인의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나도록 구체적인 문항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으며, 주관식 문항을 활용하여 연령, 근속기간, 담당학급의 계열을 측정하여 분석을 위해 더미변수로 재코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근속기간(개월)의 변인은 실제 근무기간을 년 수와 개월 수로 측정하여 년 수에 12개월을 곱하여 개월 수를 더한 값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Ⅲ-6> 교사의 일반적 특성 변인별 측정내용 및 분석내용

변인	측정 내용	분석 내용
담임교사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남교사 = 1
		여교사 = 0
담임교사 연령	실제 연령 기입	연령 값 그대로 분석에 활용
근속기간 (개월)	근무 연수와 개월 수로 측정	근무 연수 × 12 + 근무 개월 수
부장교사 여부	① 부장 교사 ② 평교사	평교사 = 1
		부장교사 = 0
최종학력	① 대학 졸업 ② 대학원 석사학위 졸업 ③ 대학원 박사학위 졸업	대학 졸업 = 1
		대학원 석사학위 졸업 = 0
담당교과	① 전문 교과 ② 보통 교과	전문교과 = 1
		보통교과 = 0
담당학급의 계열	담당학급의 계열을 구체적인 명칭으로 측정 (예: 금융회계, 자동차 등)	공업계열 더미 (1, 0, 0)
		상업계열 더미 (0, 1, 0)
		가사·실업계열 더미 (0, 0, 1)
		농업계열 (0, 0, 0)

다. 직업교육 인식

교사의 직업교육 인식의 측정도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개발하여 활용하였다. 직업교육 인식 측정도구 개발은 구인화 모형(안)을 설정하고, 예비 문항을 작성 후 안면타당도와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고 예비조사와 본 조사를 걸쳐 개발하였다.

1) 구인화 모형(안) 설정 및 예비문항 작성

구인화의 목적은 측정하고자 하는 구인 개념의 행동유형을 파악하여 조작적으로 정의하기 위한 것으로, 직업교육 인식과 관련된 이론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직업교육 인식의 구인화 모형(안)을 설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직업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등 직업교육으로 한정짓고 학생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으로 정의하였다. 직업교육의 필요성의 구인으로는 학생 개인의 측면과 국가 차원의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구인화를 설정하였다.

이무근(1993)은 직업교육의 목적을 모든 사람에게 직업에 대한 소양을 개발하여 바람직한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직업을 준비하는 학습자에게 직무능력을 개발하여 유능한 직업인이 되게 하고, 개인으로 하여금 현명한 진로선택을 통하여 자아실현을 하게하며,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산업 인력을 양성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하게 하는데 있다고 보았다. 이 연구에서 확인하고자하는 중등단계 직업교육 역시 이무근(1993)이 제시한 직업교육의 목적과 목적을 같이한다고 판단하여 이 분류를 바탕으로 예비문항을 작성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학생 차원과 국가 차원의 큰 구인을 바탕으로 학생의 전인적 발달, 직무능력 개발의 하위 구인으로 구분하고, 국가 차원에서는 산업인력의 확보 측면과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한 필요성의 두 가지 구인으로 구인화 하였다. 각 구인별 문항은 2 ~ 3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내용타당도 및 안면타당도 검증

구인화 및 예비문항에 대한 내용타당도 검증은 교육학 박사 혹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이나 교사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 및 특성화고등학교 현장에서 근무 중인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각 문항들의 내용에 대한 적절성 여부 및 직업교육의 필요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등의 내용을 검토 받았고 검토 결과 직업교육의 필요성을 잘 설명하고 있다는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일반 교사를 대상으로 문항검토를 실시하였고 안면타당성을 확보하였다. 내용타당도 및 안면타당도 검증을 통하여 총 4가지 구인의 12개의 문항을 구성하여 예비조사 및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3) 예비조사 및 본 조사 실시

내용타당도 및 안면타당도 검증을 통해 개발된 12개의 문항에 대하여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성화고등학교 교사 63명을 유의 표집하여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문항의 신뢰도 분석 결과 0.926으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측정되었다. 다음으로 문항의 구인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12개의 문항을 기준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은 주성분 분석과 직교회전 중 요인의 분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베리맥스 회전을 활용하여 요인구조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문항별 요인 적재량의 기준은 0.70 이상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III-7>과 같다.

KMO 값은 .846으로 분석되어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가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유의확률은 .000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추출방법은 주성분 분석을 활용하고 회전 방법은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총 4가지의 요인으로 구인화가 되었다. 기존의 학생의 발달 측면에서 구인화 하였던 1번부터 4번 문항은 4번 문항을 제외하고 1번부터 3번까지의 문항이 .777 ~ .877의 요인적재량을 보였다. 두 번째

요인은 국가의 산업인력확보 관련 구인으로 명명하였는데 .709 ~ .837의 요인적재량을 나타냈다. 다음은 국가경쟁력 향상 구인으로 두 개의 문항이 각각 .784, .879의 요인적재량을 나타냈고, 마지막의 민주시민 양성 문항은 .786, .837의 요인적재량을 보였다. 총 12개의 문항이 총 81.05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어느 요인에도 적재되지 않고 .50이하의 낮은 요인적재량을 나타낸 4번 문항은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표 Ⅲ-7> 직업교육 인식 측정도구의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문항	성분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학생의 전인적 발달	문항 1	.877	.095	.140	.288
	문항 2	.777	.163	.425	.142
학생의 직무능력 개발	문항 3	.797	.322	.040	.250
	문항 4	.430	.438	.463	.002
국가의 산업인력 확보	문항 5	.247	.710	.329	.160
	문항 6	.046	.709	.315	.400
	문항 7	.258	.771	.330	.159
	문항 8	.186	.837	.133	.276
국가 경쟁력 향상	문항 9	.100	.407	.784	.191
	문항 10	.255	.248	.879	.125
민주시민 양성	문항 11	.416	.238	.233	.786
	문항 12	.247	.353	.076	.837
고유값		2.668	3.041	2.196	1.822
설명변량		22.230	25.343	18.298	15.183
누적변량		22.230	47.573	65.871	81.054

주1) KMO = .846

주2)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유의확률: .000

주3) 요인추출방법: 주성분 분석

주4) 회전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

탐색적 요인분석을 토대로 요인 모형의 구성타당도(construct validity)를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실시 결과는 <표 III-8>과 같다. 확인적 요인분석은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제외된 4번 문항을 제외하고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든 문항에 대해서 대체로 양호한 모형 적합도(IFI = .915, CFI = .912)를 나타냈다. 각 요인에 대한 문항별 요인 적재량 역시 모든 문항에서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값으로 측정되었다. 신뢰도 분석 및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직업교육 인식 측정도구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분석에 활용하여도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표 III-8> 직업교육 인식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요인	문항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표준오차	C. R.
학생의 발달	문항 1	0.970	.863	.124	7.819***
	문항 2	1.075	.856	.139	7.751***
	문항 3	1.000	.827		
국가의 산업인력 확보	문항 5	1.000	.799		
	문항 6	1.157	.815	.163	7.082***
	문항 7	1.182	.840	.161	7.360***
	문항 8	1.218	.830	.168	7.244***
국가 경쟁력 향상	문항 9	1.000	.887		
	문항 10	1.004	.858	.136	7.400***
민주시민 양성	문항 11	1.000	.940		
	문항 12	0.992	.841	.122	8.133***

주1) 적합도 지수: RMSEA=.136, IFI=.915, CFI=.912

주2) * $p<.05$, ** $p<.01$, *** $p<.001$

라. 취업지도 능력

취업지도 능력은 김인곤(2015)이 특성화고등학교 취업지도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개발한 취업지도 능력 측정도구를 활용하였다. 김인곤(2015)은 선행연구의 내용을 종합하여 취업지도 능력을 취업지도 계획, 취업능력 확인 및 피드백, 취업처 발굴 및 관리, 취업매칭, 사후관리의 다섯 가지 구인으로 구분하였다. 각 구인별 6개의 문항 총 30개의 문항을 개발하고 예비조사와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조사별 Cronbach α 값은 0.947, 0.939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Cronbach α 값이 예비조사에서 0.968, 본 조사에서 0.948로 분석에 활용하기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표 III-9> 참조).

<표 III-9> 취업지도능력 신뢰도 분석 결과

구분	문항 수	Cronbach α 값	
		예비조사 (n=67)	본조사 (n=38)
취업지도 능력	30	0.968	0.948

마. 취업지원 정도

조규형(2014)은 취업지원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도구를 개발하였다. 취업지원 정도를 정보적 지원, 실제적 지원, 정서적 지원의 3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각각 8문항씩 2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각 요인별 요인적재량이 0.866, 0.803, 0.921로 높은 수준이어서 문항으로 활용하기 충분하다고 판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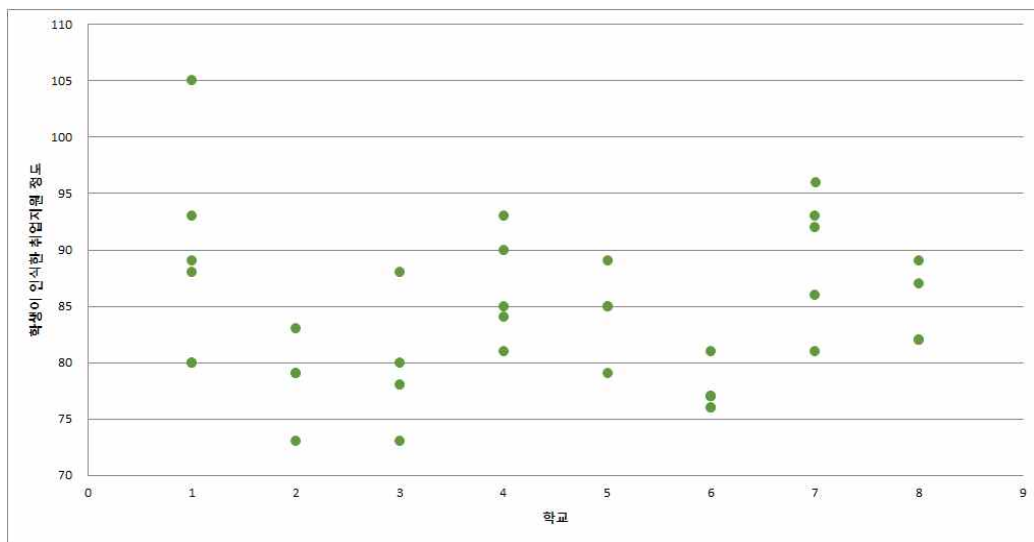
이 연구에서 조사된 취업지원 정도의 신뢰도 분석 결과는 <표 III-10>과 같다.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취업지원 정도의 Cronbach α 값은 예비조사에서 0.952, 본 조사에서 0.962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 취업지원 정도의 조사도구는 정보적 지원, 실제적 지원, 정서적 지원의 3개의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같은 학교 내에

<표 Ⅲ-10> 취업지원 정도 신뢰도 분석 결과

구분	문항 수	Cronbach α값	
		예비조사	본조사
취업지원 정도	24	0.952 (n=218)	0.962 (n=765)

서 동일한 취업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하더라도 학생이 인식하는 취업지원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림 Ⅲ-3]은 학교별로 학생이 인식한 취업지원 정도의 분포이다. 같은 학교 내에서도 인식하는 취업지원 정도가 매우 상이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취업지원 정도를 확인하는 내용이 정보적 지원, 실제적 지원, 정서적 지원으로 구분하여 이에 대하여 학생의 기대 및 인식 수준을 측정하기 때문에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 진다. 특히 정서적 지원의 부분은 학교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정도에 대해서 개인이 정서적으로 어떻게 느끼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은 학교에서도 학생 및 학급의 담임교사지원 정도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학생이 인식한 취업지원 정도를 학급 수준 변인으로 구명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Ⅲ-3] 학교별 학생이 인식한 취업지원 정도 분포

바. 학생의 일반적 특성

학생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과 거주 지역의 변인으로 구성된다. 학생의 일반적 특성의 변인별 측정내용과 분석 내용은 <표 III-11>과 같다. 성별과 거주 지역은 모두 선택형 문항으로 측정되었고 측정된 결과는 더미화하여 분석에 활용되었다.

<표 III-11> 학생의 일반적 특성 변인별 측정내용 및 분석내용

변인	측정 내용	분석 내용
성별	① 남자 ② 여자	남학생 = 1
		여학생 = 0
거주 지역	① 도시지역 ② 비도시지역	도시지역 = 1
		비도시지역 = 0

사. 직업교육 흥미

1) 특성화고등학교 선택 이유

특성화고등학교 선택 이유는 최동선 외(2011)의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을 바탕으로 취업을 목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에 입학 하였는지를 묻는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을 선택 이유가 취업을 선호해서인지 혹은 원하는 분야로의 진출을 위해서인지를 묻는 문항과 가정형편, 성적, 주변인의 권유 등의 응답으로 구성하였다. 측정된 결과는 분석을 위해 특성화고등학교에 취업을 선호해서 진학한 경우와 원하던 분야이므로 선택한 경우를 취업을 목적으로 진학했다고 판단하고 1로 코딩하였다. 그 이외의 답변은 0으로 코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2) 전문교과 수업 흥미

전문교과 수업 흥미는 최동선 외(2011)가 개발한 수업에 대한 만족도 조

사도구를 활용하였다. 최동선 외(2011)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활동에서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였다. 이는 학교에서 경험하는 활동들이 자신의 진로 준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묻는 문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다음 문항들을 전문교과로 수정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Cronbach α 값은 예비조사에서 0.961, 본 조사에서 0.953으로 나타나 연구를 수행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표 III-12> 참조).

<표 III-12> 전문교과 수업 흥미 신뢰도 분석 결과

구분	문항 수	Cronbach α 값	
		예비조사 (n=218)	본조사 (n=672)
전문교과 수업 흥미	6	0.961	0.953

아. 학교생활 만족도

학교생활 만족도는 서영자(2011)가 수정한 도구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서영자(2011)는 Hallinan(2008)과 Kristjarnsson 등(2009)의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구성문항은 총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해당 연구에서 Cronbach α 값은 0.766으로 연구에 활용하여도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구성된 문항 중 ② 다른 학교로 전학가고 싶다. ③ 학교생활이 지루하다. ⑤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 ⑥ 학교에 오면 기쁘지 않다. 의 4개 문항은 역문항으로 코딩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Cronbach α 값은 예비조사에서 0.812, 본 조사에서 0.829로 분석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표 III-13> 참조).

<표 III-13> 학교생활 만족도 신뢰도 분석 결과

구분	문항 수	Cronbach α 값	
		예비조사 (n=218)	본조사 (n=765)
학교생활 만족도	6	0.812	0.829

자. 학업 성취

1) 평균 성적

평균성적을 측정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다. 학생의 실제 등급을 기재하도록 하거나 시험 점수를 측정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실제 점수를 측정하는 경우 응답 대상자인 학생이 본인의 등급을 정확히 모르거나 개인 정보를 유출하고 싶지 않아 응답하고 싶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이 연구에서는 학생 개인이 판단하였을 때 본인의 성적을 ‘① 매우 낮은 편이다.’에서 ‘⑤ 매우 높은 편이다.’의 5점 척도로 구분하여 응답하도록 구성하였다.

2) 교육포부

교육포부는 Porter 등(1974)의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 이지혜, 정철영(2010)이 수정한 도구를 바탕으로 제시하였다. 본인이 원하는 교육수준과 부모님이 원하는 교육수준에 대한 2가지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응답 내용은 ① 고등학교 졸업, ② 전문대학(2~3년제) 졸업, ③ 대학(4년제) 졸업, ④ 대학원 졸업으로 구성하였다. 응답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이 원하는 교육수준과 부모님이 원하는 교육수준의 평균 값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차. 취업관련 경험

취업관련 경험은 최동선 외(2011), 조규형(2014), 한국교육고용패널(KEEP)의 연구를 바탕으로 범주화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각 연구에서는 학교에서 경험할 수 있고 취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장실습, 인턴십, 동아리활동, 상담 등의 경험 여부로 문항을 구성하고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산업체 견학 및 체험,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취업 맞춤형, 방과 후 학교 및 동아리 활동의 4가지 문항으로 구성하여 각각의 활동을 참여하였는지 여부를

응답하도록 구성하였다. 각 취업관련 경험에 대해 응답한 결과는 경험(=1), 미경험(=0)으로 코딩하여 각 활동들을 하나의 변인으로 구분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카. 가정환경 특성

1) 한 부모 가정 여부

한 부모 가정 여부는 현재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계시는지에 응답하는 문항으로 ① 그렇다와 ② 그렇지 않다고 구분하여 응답하도록 구성하였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혼 혹은 사별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측정 하였다. 응답한 문항은 한 부모 가정이 아닌 경우(=1), 한 부모 가정인 경우(=0)으로 더미화 하여 분석하였다.

2) 가구소득 수준

가구소득 수준은 학생이 판단하였을 때 현재 본인 가정의 가구소득 수준을 판단하여 응답하도록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금액을 물어볼 경우 응답의 오류와 무 응답자가 많을 것을 고려하여 5점 척도로 구분하여 본인이 판단하기에 본인의 가구소득 수준을 응답하도록 하였다.

타. 가정의 진로지원 환경

1) 가정 내 진로관련 대화 정도

가정 내 대화 정도는 한국교육고용패널(KEEP)의 문항을 활용하여 구성하였다. 총 4가지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적성 및 흥미에 대해, 학교 및 학과 선택에 대해, 직업학교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 부모님과 어느 정도 대화하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5점 리퀴트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와 매우 그렇다의 수준으로 분석하

였다. Cronbach α 값이 예비조사에서 0.893, 본 조사에서 0.901로 나타나 연구를 수행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표 III-14> 참조).

<표 III-14> 가정 내 진로관련 대화정도 신뢰도 분석 결과

구분	문항 수	Cronbach α 값	
		예비조사 (n=218)	본조사 (n=765)
가정 내 진로관련 대화 정도	4	0.893	0.901

2) 가정의 진로지지

가정의 진로지지는 조규형(2014)이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측정한 검사 도구를 활용하였다. 조규형(2014)은 다양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가정의 진로지지를 학생이 인지된 지지로 측정하고, 인지하는 지지의 유형을 경험적지지, 정보적지지, 정서적 지지로 구분하였다. 각 지지유형별 문항은 5문항씩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해당 연구에서는 본 조사를 통해 요인 적재량이 0.860, 0.902, 0.914로 매우 높은 수준이어서 문항으로 충분히 활용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이 연구에서 조사된 Cronbach α 값은 <표 III-15>와 같다. 그 결과 예비조사에서 0.915, 본 조사에서 0.933으로 나타나 연구를 수행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표 III-15> 가정의 진로지지 신뢰도 분석 결과

구분	문항 수	Cronbach α 값	
		예비조사 (n=218)	본조사 (n=765)
가정의 진로지지	15	0.915	0.933

4. 자료 수집

이 연구의 자료 수집은 본 조사에 앞서 조사도구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의 모집단은 본조사의 모집단과 동일하게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2017년 9월 25일부터 10월 10일까지 조사가 진행되었다. 설문조사는 우편조사로 실시하였으며 학생용 설문지와 담임교사용 설문지를 인쇄하여 설문 대상 학교의 담당 선생님께 우편으로 발송하고 설문이 종료된 후 우편으로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총 8개 학급의 학생 220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고, 불성실 응답자를 제외하고 218부의 자료를 예비조사 자료로 분석에 활용하였다. 특히,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변인들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토를 위해 학급을 담당하는 교사 이외의 교사를 대상으로 추가 설문을 실시하였다. 총 67부의 교사용 설문지를 회수하여 예비조사 분석에 활용하였다.

예비조사 결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토한 후, 본 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조사는 2017년 10월 13일부터 10월 29일까지 진행되었다. 설문조사 방식은 예비조사와 동일한 방법인 우편조사를 통해 실시되었다. 각 학교의 3학년 학급을 대상으로 학교 규모에 따라 4~6개 학급의 담임교사와 해당 학급의 학생의 설문을 실시하였다. 각 학교의 협력 선생님과 연락하여 3학년 부장교사에게 부탁하여 담임교사가 본인과 담당 학급의 학생들의 설문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총 8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총 776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다(회수율 97.00%). 이 중 무응답 및 불성실한 응답, 이상치 등을 제외하고 유효한 자료 765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5. 분석 방법

이 연구의 목적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포부와 학생 및 교사 변인의 위계적 관계를 구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수집된 자료를 SPSS 23.0 for Windows와 HLM 6.08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분석에 있어서 통계적

유의수준은 0.05로 설정하였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포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학생 개인과 학생이 속한 학급의 교사라는 2개의 서로 다른 수준의 위계적 자료 구조(hierarchical data structures)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즉,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포부는 학생 개인의 변인 뿐 아니라 학생이 속하고 있는 학급의 담임교사의 특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분석단위 및 측정수준이 위계적 자료 구조인 경우 적합한 통계 분석 방법이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이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 설계에서 제시한 대로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방법을 활용한 무선효과 일원변량분석, 무선효과 회귀계수 무조건모형, 공변량 분석, 무선효과 회귀계수 조건 모형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연구 문제에 따른 분석방법은 <표 III-16>과 같다.

<표 III-16> 연구문제에 따른 자료 분석 방법

연구문제		분석방법
연구문제1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포부는 학생 및 교사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무선효과 일원변량분석모형 (One-way ANOVA Model)
연구문제2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포부에 대한 학생 수준 변인의 효과는 어떠한가?	• 무선효과 회귀계수 무조건모형 (Random-coefficient model)
연구문제3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포부의 학급평균 수준에 대한 학급 수준 변인의 효과는 어떠한가?	• 공변량 분석모형 (regression with means-as-outcomes)
연구문제4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포부와 학생 수준 변인 관계에서 학급 수준 변인의 상호작용 효과는 어떠한가?	• 무선효과 회귀계수 조건모형 (Intercepts and Slope as Outcomes Model)

가. 무선효과 일원변량분석 모형

HLM 무선효과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 with Random Effect)은 학생 특성(1수준)과 교사 특성(2수준)으로 이루어진 각 모형에 독립변인을 투입하지 않고 종속변인인 취업포부와 집단 구분만 있는 최소 모형이다.

이 연구에서는 HLM 무선효과 일원변량분석을 위해 종속변인인 취업포부를 집단 내 변량과 집단 간 변량으로 구분하고, 2수준 모형을 1수준 모형에 대입한 통합모형을 구축한 뒤, 집단 내 상관(ICC: Intra Class Correlation) 계수를 도출하는 과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통합모형에서 나타나는 두 무선효과의 합은 $(\mu_{0j} + \gamma_{ij})$ 취업포부의 총 분산에 해당하며, 이를 통해 총 분산을 구성하는 도 오차항의 크기와 집단 내 상관 계수를 산출할 수 있다. 집단 내 상관 계수는 종속변수인 취업포부의 총 분산 중 집단 간 차이에 의해 설명되는 분산량을 의미한다.

1) 1수준 모형(집단 내 모형)

$$Y_{ij} = \beta_{0j} + r_{ij} \quad r_{ij} \sim N(0, \sigma^2)$$

Y_{ij} : j번째 학급 i번째 학생의 종속변인(취업포부) 값

β_{0j} : j번째 학급에서 응답한 취업포부 평균

r_{ij} : j번째 학급 i번째 학생의 무선오차(random error)

2) 2수준 모형(집단 간 모형)

$$\beta_{0j} = \gamma_{00} + \mu_{0j} \quad \mu_{0j} \sim N(0, \tau_{00})$$

β_{0j} : j번째 학급 전체 평균의 함수 값

γ_{00} : 취업포부 전체 평균 / μ_{0j} : j번째 집단의 무선효과(random effect)

3) 통합모형

$$Y_{ij} = \gamma_{00} + \mu_{0j} + r_{ij}$$

γ_{00} : 고정효과(fixed effect) / μ_{0j}, r_{ij} : 무선효과(random effect)

4) 집단 내 상관(ICC)

$$ICC = \tau_{00} / (\tau_{00} + \sigma^2)$$

τ_{00} : 집단 간 변량 / σ^2 : 집단 내 변량

나. 무선효과 회귀계수 무조건 모형

무선효과 회귀계수 무조건 모형(random-coefficient model)은 취업포부에 대한 학생 수준 변인의 평균 효과를 구명하기 위한 모형이다. 즉, 학생 개인 차원의 변인들의 설명량을 산출하기 위한 모형이다. 1수준 모형(집단 내 모형)에만 독립변인을 투입하고, 2수준 모형(집단 간 모형)에는 투입하지 않은 다층분석이다. 이 연구에서는 집단 내 모형에 개인 수준의 독립변인을 투입하고, 집단 간 모형에는 독립변인을 투입하지 않는 과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1) 1수준 모형(집단 내 모형)

$$Y_{ij} = \beta_{0j} + \beta_{1j}(\text{성별}) + \beta_{2j}(\text{거주 지역}) + \beta_{3j}(\text{특성화고 선택이유}) + \beta_{4j}(\text{전문교과수업
흥미}) + \beta_{5j}(\text{평균 성적}) + \beta_{6j}(\text{교육포부}) + \beta_{7j}(\text{취업관련 경험1}) + \beta_{8j}(\text{취업관련
경험2}) + \beta_{9j}(\text{취업관련 경험3}) + \beta_{10j}(\text{취업관련 경험4}) + \beta_{11j}(\text{한부모가정 여부})
+ \beta_{12j}(\text{가구소득수준}) + \beta_{13j}(\text{가정 내 진로관련 대화 정도})
+ \beta_{14j}(\text{가정의 진로지지}) + r_{ij} \quad r_{ij} \sim N(0, \sigma^2)$$

2) 2수준 모형(집단 간 모형)

2수준 모형은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회귀계수 오차를 모두 무선효과가 있다고 가정하여 모형을 설정하였다.

$$\beta_{ij} = \gamma_{i0} + \mu_{ij} \quad (i = 1 \sim 15) \quad \mu_{0j} \sim N(0, \tau_{00})$$

Y_{ij} : j번째 학급 i번째 학생의 종속변인(취업포부) 값

β_{pj} : j번째 학급에서 1수준 변인들

γ_{i0} : 집단별 기울기 평균

다. 공변량 분석 모형

공변량 분석 모형(regression with means-as-outcomes)은 학급 수준 변인의 평균 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모형이다. 즉 학급 수준 변인이 학급별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포부 평균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모형이다. 공변량 분석 모형에서 1수준 모형은 무선효과 일원변량분석 모형과 동일하다. 2수준 모형은 학급 수준 변인을 투입한 모형으로 아래 수식과 같다.

1) 1수준 모형(집단 내 모형)

$$Y_{ij} = \beta_{0j} + r_{ij} \quad r_{ij} \sim N(0, \sigma^2)$$

Y_{ij} : j번째 학급 i번째 학생의 종속변인(취업포부) 값

β_{0j} : j번째 학급에서 응답한 취업포부 평균

r_{ij} : j번째 학급에서의 기울기 평균

2) 2수준 모형(집단 간 모형)

$$\begin{aligned} \beta_{0j} = & \gamma_{00} + \gamma_{01}(\text{교사 성별}) + \gamma_{02}(\text{연령}) + \gamma_{03}(\text{부장교사 여부}) + \gamma_{04}(\text{근속기간}) \\ & + \gamma_{05}(\text{담당 교과}) + \gamma_{06}(\text{담당 학급의 계열}) + \gamma_{07}(\text{직업교육의 필요성 인식}) \\ & + \gamma_{08}(\text{취업지도 능력}) + \gamma_{09}(\text{취업지원 정도}) + \mu_{0j} \end{aligned}$$

β_{0j} : j번째 학급에서 응답한 취업포부 평균

γ_{0j} : j번째 학급 i번째 학생의 무선폰차(random error)

라. 무선효과 회귀계수 조건 모형

마지막으로 학생 및 학급 수준 변인의 상호작용(cross-level interaction) 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상호작용 효과 분석을 위한 모형은 무선효과 회귀계수 조건 모형(intercepts-and slope-as-outcomes model)으로 무선효과 회귀계수 무조건모형과 공변량 분석 모형의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된다. 1수준 모형에 무선효과 회귀계수 무조건모형에서 무선효과(random effect)가 유의미하게 분석된 학생 수준 변인을 투입하고, 2수준 모형에는 공변량 분석 모형에서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난 변인을 투입한다. 이렇게 모형을 설정한 이후 상호작용 효과를 구명한다. 이에 대한 수식은 무선효과 회귀계수 무조건 모형과 공변량 분석 모형의 결과를 바탕으로 4장의 연구 결과에서 기술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측정 변인의 기초통계 분석 결과

가. 취업포부의 기초통계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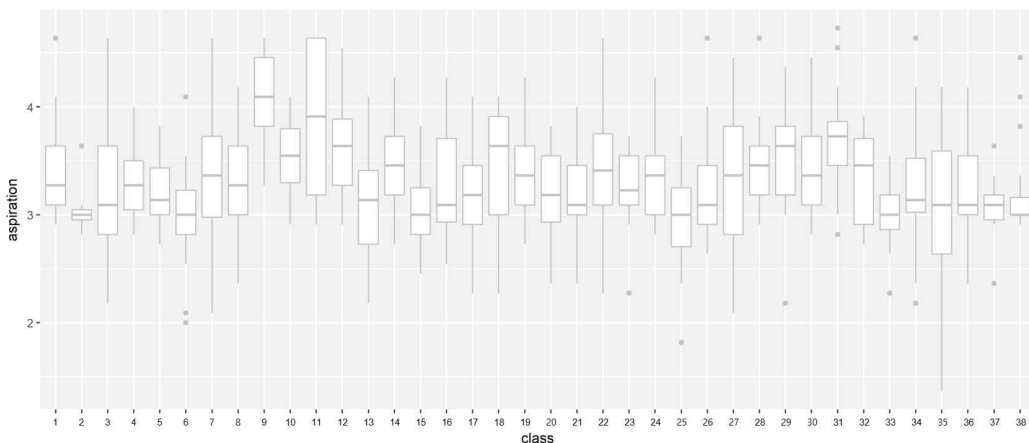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포부 기초 통계 분석 결과는 <표 IV-1>과 같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 취업포부의 평균은 3.326점, 표준편차는 0.518로 나타났다. 조사 문항은 총 11문항으로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평균값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최솟값은 1.36, 최댓값은 4.73으로 분석되었다.

<표 IV-1> 취업포부의 기초 통계치

변인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솟값	최댓값	왜도	첨도
취업포부	765	3.326	0.518	1.36	4.73	0.204	0.236

주1) 5점 리커트 척도(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⑤ 매우 그렇다)의 11문항 응답의 평균 결과 값임.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포부의 학급별 분포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IV-1]과 같다. 학급에 따라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포부의 평균값



[그림 IV-1]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학급별 취업포부 분포

과 1사분위수, 3사분위수로 boxplot을 살펴보면 학급에 따라서 boxplot의 크기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평균 값 역시 학급에 따라 상이하게 분포하는 것을 보여준다.

나. 학생 수준 변인의 기초통계 분석결과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개인 특성 변인의 기초 통계 분석 결과는 <표 IV-2>와 같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개인 특성 변인 중 성별, 거주 지역, 특성화고등학교 선택 이유, 취업관련 경험, 한부모 가정 여부는 1과 0의 더미

<표 IV-2> 학생 수준 변인의 기초 통계치

변인	사례수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765	남자	302	39.5
		여자	463	60.5
거주 지역	765	도시지역	699	91.4
		비도시지역	66	8.6
특성화고 선택 이유	765	취업을 목적으로	342	44.7
		그 이외 목적	423	55.3
취업관련 경험 (산업체 견학 및 체험)	765	있다	418	45.4
		없다	347	54.6
취업관련 경험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765	있다	257	33.6
		없다	508	66.4
취업관련 경험 (취업 맞춤형)	765	있다	297	38.8
		없다	468	61.2
취업관련 경험 (방과 후 학교 및 동아리 활동)	765	있다	628	82.1
		없다	137	17.9
한부모 가정 여부	765	양부모 가정	616	80.5
		한부모 가정	149	19.5

변인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솟값	최댓값	왜도	첨도
전문교과 수업 흥미	765	3.571	0.788	1.00	5.00	-0.212	0.364
학교생활 만족도	765	3.315	0.744	1.00	5.00	-0.296	0.405
평균 성적	765	2.996	0.996	1.00	5.00	-0.008	-0.233
교육포부	765	2.229	0.805	1.00	4.00	0.027	-0.893
가구소득 수준	765	2.975	0.633	1.00	5.00	0.361	1.617
가정 내 진로관련 대화 정도	765	3.612	0.842	1.00	5.00	-0.122	-0.213
가정의 진로지지	765	3.638	0.673	1.33	5.00	0.005	0.140

변수로 코딩하여 분석하였다. 성별은 남학생이 302명 여학생이 463명으로 여학생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거주 지역은 도시지역이 699명으로 90% 이상을 구성하고 있었다. 특성화고등학교 선택 이유가 취업을 목적으로 선택한 경우는 342명으로 44.7%로 조사 되었다. 취업관련 경험 중 산업체 견학 및 체험은 45.4%인 418명의 학생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은 508명(66.4%)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취업 맞춤형은 468명의 61.2%의 학생이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방과 후 학교 및 동아리 활동은 대부분의 학생인 628명의 82.1%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분형 변수가 아닌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다음과 같다. 전문교과 수업 흥미는 평균 3.571, 표준편차 0.788로 분석되었고, 학교생활 만족도는 평균 3.315, 표준편차 0.744로 분석되었다. 평균 성적의 평균은 2.996, 표준편차 0.805, 교육포부의 평균 2.229, 표준편차 0.805, 가구소득 수준 평균 2.975, 표준편차 0.633, 가정 내 진로관련 대화 정도 평균 3.612, 표준편차 0.842 마지막으로 가정의 진로지지의 평균은 3.638, 표준편차 0.673으로 나타났다.

다. 학급 수준 변인의 기초통계 분석 결과

학급 수준 변인의 기초 통계 분석 결과는 <표 IV-3>과 같다. 학급 수준 변인 중 성별, 직위, 최종학력, 담당교과는 더미변수화 하여 분석에 활용되었다. 교사의 성별은 남교사와 여교사 모두 19명으로 동일한 수로 분석되었다. 직위는 일반교사가 34명(89.5%), 부장교사가 4명(10.5%)로 조사되었고, 최종학력도 대학 졸업과 석사학위 졸업이 모두 19명으로 동일한 수로 조사되었다. 담당교과는 전문교과가 26명(68.4%), 일반교과가 12명(31.6%)로 분석되었고 담당학급의 계열은 공업계열이 14명(36.8%), 상업계열 13명(34.2%), 가사·실업계열 7명(18.4%), 농업계열 4명(10.5%)으로 조사되었다.

이분형 변수가 아닌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다음과 같다. 교사의 연령은 평균 45.053, 표준편차 10.628로 나타났고, 근속기간(개월)은 평균

<표 IV-3> 학급 수준 변인의 기초 통계치

변인	사례수	구분	빈도	백분율(%)
담임교사 성별	38	남자	19	50.0
		여자	19	50.0
부장교사	38	일반교사	34	89.5
		부장교사	4	10.5
최종학력	38	대학 졸업	19	50.0
		석사학위 졸업	19	50.0
담당교과	38	전문교과	26	68.4
		일반교과	12	31.6
담당학급의 계열	38	공업계열	14	36.8
		상업계열	13	34.2
		가사·실업계열	7	18.4
		농업계열	4	10.5

변인	사례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솟값	최댓값	왜도	첨도
담임교사 연령	38	45.053	10.628	24.00	61.00	-0.204	-0.790
근속기간(개월)	38	220.447	117.230	32.00	394.00	-0.096	-1.352
직업교육의 필요성 인식	38	4.146	0.626	2.50	5.00	-0.549	-0.089
취업지도 능력	38	4.313	0.428	3.30	4.97	-0.402	-0.593
취업지원 정도	38	3.500	0.342	2.95	4.49	0.619	0.641

220.447, 표준편차 117.230으로 분석되었다. 직업교육 인식은 평균 4.146, 표준편차 0.626으로 나타났고, 취업지도능력은 평균 4.313, 표준편차 0.428, 취업지원 정도는 평균 3.500, 표준편차 0.342로 분석되었다.

2. 취업포부에 대한 학생 수준 변인의 효과

가. 기초자료 분석 결과

1) 상관 분석

다층분석인 위계적 선형모형 분석을 실시하기 전 취업포부와 학생 수준 변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은 피어슨 상관관계수(r)를 활용하였으며, Davis(1971)가 제시한 상관정도 판단 기준은 .70 이상을 때 매우 높은 상관관계라 보았고, .50 이상에서 .70 미만은 높은 상관관계, .30 이상에서 .50 미만은 중간의 상관관계, .10 이상에서 .03 미만은 낮은 상관관계로 보았다. .10 이하는 매우 낮은 상관관계로 보고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도 이 기준에 따라 결과를 보고하였다.

상관관계 분석한 결과는 <표 IV-4>와 같다. 취업포부는 직업교육 흥미($r=.499, p<.01$)와 높은 수준의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학교생활 만족도($r=.309, p<.01$), 가정 내 진로지원 관련 대화정도($r=.384, p<.01$), 가정

의 진로지지($r=.458, p<.01$), 평균성적($r=.287, p<.01$)과는 중간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특성화고등학교 선택 이유($r=.145, p<.01$), 가구소득 수준($r=.160, p<.01$)과는 낮은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 이외의 변인과는 상관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머지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특성화고 선택 이유와 성별이 $r=-.140, p<.01$, 전문교과 수업 흥미가 $r=.105, p<.01$, 학교생활 만족도가 $r=.170, p<.01$, 교육 포부와는 $r=-.220, p<.01$ 로 낮은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전문교과 수업흥미는 학교생활 만족도와 $r=.447, p<.01$, 평균 성적과 $r=.319, p<.01$, 가정의 진로지지와 $r=.327, p<.01$ 로 중간 수준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교육포부와 $r=.137, p<.01$, 방과 후 학교 및 동아리 활동과 $r=.101, p<.01$, 가정 내 진로관련 대화 정도와 $r=.280, p<.01$ 로 낮은 수준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학교생활 만족도는 평균성적과 $r=.236, p<.01$, 가정 내 진로관련 대화 정도와 $r=.234, p<.01$, 가정의 진로지지와 $r=.260, p<.01$ 로 낮은 수준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평균 성적은 교육포부와 $r=.152, p<.01$, 가구소득 수준과 $r=.240, p<.01$, 가정 내 진로관련 대화 정도와 $r=.212, p<.01$, 가정의 진로지지와 $r=.154, p<.01$ 로 낮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교육포부는 가정 내 진로관련 대화 정도와 $r=.112, p<.01$, 가정의 진로지지와 $r=.137, p<.01$ 로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취업 관련 경험은 서로 중간수준에서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한부모 가정 여부는 가구소득과 $r=.273, p<.01$ 로 중간 수준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가구소득 수준은 가정 내 진로관련 대화 정도와 $r=.222, p<.01$, 가정의 진로지지와 $r=.250, p<.01$ 로 낮은 수준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마지막으로 가정의 진로지지와 가정 내 진로관련 대화 정도는 $r=.744, p<.01$ 로 매우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V-4>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포부와 학생 수준 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 결과

변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① 취업포부	1															
② 성별	-.048	1														
③ 거주 지역	.028	-.009	1													
④ 특성화고 선택 이유	.145**	-.140**	-.051	1												
⑤ 전문교과 수업 흥미	.499**	.003	.013	.105**	1											
⑥ 학교생활 만족도	.309**	.023	.024	.170**	.447**	1										
⑦ 평균 성적	.287**	.006	.017	.001	.319**	.236**	1									
⑧ 교육 포부	.071	-.031	.012	-.220**	.137**	-.008	.152**	1								
⑨ 취업관련 경험 (산업체 견학 및 체험)	.002	.064	.019	-.089*	.046	-.024	-.033	-.021	1							
⑩ 취업관련 경험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009	.054	.002	-.016	.013	-.071	.017	.002	.476**	1						
⑪ 취업관련 경험 (취업 맞춤형)	-.003	-.051	-.042	-.010	-.006	-.062	.003	-.077*	.397**	.546**	1					
⑫ 취업관련 경험 (방과 후 학교 및 동아리 활동)	.066	-.055	.014	-.019	.101**	.060	.063	.048	.280**	.260**	.344**	1				
⑬ 한부모 가정 여부	-.024	.060	-.010	.004	-.022	.002	.011	.058	.049	.049	-.001	.037	1			
⑭ 가구소득 수준	.160**	.070	.003	-.015	.063	.046	.240**	.069	.064	.093**	-.003	.014	.273**	1		
⑮ 가정 내 진로관련 대화 정도	.384**	-.009	.033	.008	.280**	.234**	.212**	.112**	-.001	-.030	-.043	.027	.048	.222**	1	
⑯ 가정의 진로지지	.458**	.003	.020	.086*	.327**	.260**	.154**	.137**	-.014	-.054	-.066	.045	.081*	.250**	.744**	1

주1) n = 765

주2) * p<.05, ** p<.01

2) 다중공선성 진단

다중공선성 진단은 공차한계와 변량팽창계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다중공선성은 공차한계가 0.1 이하일 때와 변량팽창계수(VIF)가 10이상일 때 다중공선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한다(이학신, 임지훈, 2005).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포부와 학생 수준 변인의 다중공선성을 진단한 결과는 <표 IV-5>와 같다. 공차 한계 값은 성별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에서 .407 ~ .991로 나타났으며 변량팽창계수(VIF)는 1.009 ~ 2.455의 값을 나타냈다. 다중공선성 판단 기준에 따라 변인들 간에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분석에 활용하였다.

<표 IV-5> 취업포부와 학생특성 변인의 다중공선성 진단 결과

변인	공차한계(tolerance)	변량팽창계수(VIF)
성별	.948	1.055
거주 지역	.991	1.009
특성화고등학교 선택 이유	.870	1.150
전문교과 수업 흥미	.692	1.445
학교생활 만족도	.747	1.338
평균 성적	.807	1.239
교육포부	.879	1.138
취업관련 경험 (산업체 견학 및 체험)	.714	1.401
취업관련 경험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605	1.652
취업관련 경험 (취업 맞춤형)	.624	1.603
취업관련 경험 (방과 후 학교 및 동아리 활동)	.834	1.199
한 부모 가정 여부	.913	1.095
가구소득 수준	.811	1.233
가정 내 진로관련 대화 정도	.431	2.322
가정의 진로지지	.407	2.455

나. 무선효과 일원변량분석 모형 분석 결과

이 연구의 첫 번째 연구 문제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이 취업포부의 집단 내 변량과 집단 간 변량을 분석하기 위하여 무선효과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IV-6>과 같다. 고정효과 분석 결과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평균 취업포부 추정 값은 3.321로 나타났다. 무선효과 분석 결과, 학급 수준의 변량은 0.039로 나타났고 학생 수준의 변량은 0.233으로 분석되었다. 집단 내 상관계수는 0.143으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포부의 전체 변량 중 85.7%가 학생 개인의 차이로 설명되고, 14.3%가 학급 간 차이로 설명되는 변량 비율로 나타났다.

<표 IV-6> 무선효과 일원변량분석 모형 분석 결과

고정효과(Fixed Effect)	Coefficient	se	t	p-value
절편	3.321	0.037	89.577	.000***
무선효과(Random Effect)	SD	Variance	χ^2	p-value
집단 간 변량	0.199	0.039	152.988	.000***
집단 내 변량	0.483	0.233	-	-
집단 내 상관계수(ICC) ³⁾	0.143			

주1) 1수준 n = 765, 2수준 n = 38

주2) * p<.05, ** p<.01, *** p<.001

주3) 집단 내 상관계수(ICC) = 집단 간 변량 / (집단 내 변량 + 집단 간 변량)

무선효과 일원변량분석모형을 통하여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포부에 학급 간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고 학급 수준보다 개인 특성의 변인이 더 많은 설명력을 가진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무선효과의 χ^2 검증 결과 $p < .001$ 로 영가설을 기각하므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포부의 차이는 학생 수준 뿐 아니라 학급 수준에서도 함께 설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포부의 차이가 학생 수준 뿐 아니라 학급 수준을 통해서도 설명되어야 함을 판단할 수 있다.

다. 무선효과 회귀계수 무조건 모형 분석 결과

이 연구의 두 번째 연구문제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포부에 대한 학생 수준 변인의 효과를 구명하기 위하여 무선효과 회귀계수 무조건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IV-7>과 같다.

고정효과 분석 결과 전문교과 수업 흥미와 평균 성적, 가정의 진로지지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문교과 수업 흥미가 1 높을 때 취업포부 수준이 0.172($p < .001$) 증가하였다. 평균 성적이 1 증가할 때 취업포부 역시 0.078($p < .001$)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정의 진로지지도 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가정의 진로지지 수준이 1 증가할 때 취업포부 수준이 0.190($p < .001$) 높아졌다. 그 이외의 변인은 고정효과에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V-7> 무선효과 회귀계수 무조건 모형의 고정효과 분석 결과

고정효과(Fixed Effect)	Coefficient	se	t	p-value
절편	3.321	0.037	87.619	.000***
성별 (준거집단: 남자)	-0.133	0.066	-1.995	.053
거주 지역	0.055	0.053	1.029	.311
특성화고등학교 선택 이유	0.050	0.037	1.317	.196
전문교과 수업 흥미	0.172	0.033	5.117	.000***
학교생활 만족도	0.022	0.031	0.727	.471
평균성적	0.078	0.019	4.042	.000***
교육포부	-0.010	0.021	-0.471	.640
취업관련 경험 (산업체 견학 및 체험)	-0.046	0.049	-0.927	.360
취업관련 경험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0.011	0.053	0.213	.832
취업관련 경험 (취업 맞춤형)	0.041	0.042	0.982	.333

고정효과(Fixed Effect)	Coefficient	se	t	p-value
취업관련 경험 (방과 후 학교 및 동아리 활동)	-0.005	0.043	-0.129	.899
한부모 가정 여부	-0.036	0.044	-0.817	.420
가구소득 수준	0.024	0.027	0.877	.386
가정 내 진로관련 대화 정도	0.014	0.028	0.509	.613
가정의 진로지지	0.190	0.039	4.827	.000***

주1) 1수준 n = 765, 2수준 n = 38

주2) * p<.05, ** p<.01, *** p<.001

학생의 개인 수준 변인이 취업포부에 미치는 영향이 학급별로 차이가 있다고 가정하여 분석하는 무선효과 분석 결과는 <표 IV-8>과 같다. 무선효과 분석 결과 특성화고 선택 이유, 전문교과 수업 흥미, 평균 성적, 교육포부, 산업체 견학 및 체험,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방과 후 학교 및 동아리 활동, 한부모 가정 여부, 가정의 진로지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위 변인들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포부에 미치는 영향이 학급별로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교육포부와 취업관련 경험은 고정효과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학급별 차이가 있다고 가정한 경우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표 IV-8> 무선효과 회귀계수 무조건 모형의 무선효과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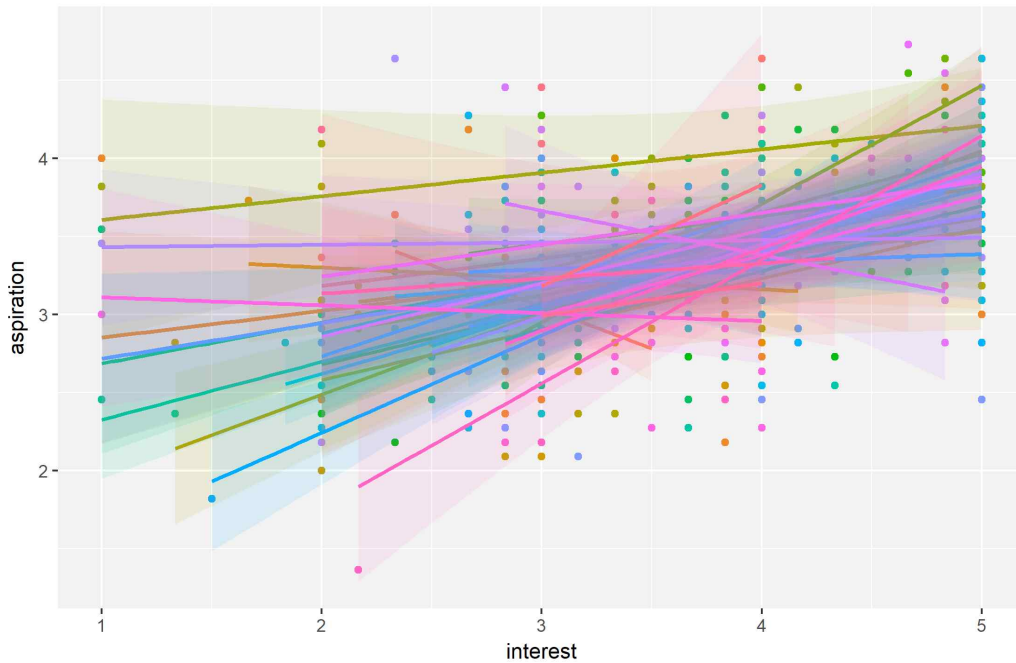
무선효과(Random Effect)	SD	Variance	χ^2	p-value
절편	0.219	0.047	9.252	.054
성별	0.107	0.011	2.049	>.500
거주 지역	0.057	0.003	6.169	.186
특성화고등학교 선택 이유	0.119	0.014	12.585	.014*
전문교과 수업 흥미	0.143	0.020	15.502	.004**
학교생활 만족도	0.130	0.017	2.630	>.500

무선효과(Random Effect)	SD	Variance	χ^2	p-value
평균성적	0.062	0.003	19.948	.001***
교육포부	0.041	0.001	14.227	.007**
취업관련 경험 (산업체 견학 및 체험)	0.192	0.037	24.250	.000***
취업관련 경험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0.184	0.033	9.565	.048*
취업관련 경험 (취업 맞춤형)	0.090	0.008	3.367	>.500
취업관련 경험 (방과 후 학교 및 동아리 활동)	0.089	0.007	12.123	.016*
한부모 가정 여부	0.147	0.021	14.043	.007**
가구소득 수준	0.067	0.004	5.287	.258
가정 내 진로관련 대화 정도	0.072	0.005	4.117	.391
가정의 진로지지	0.121	0.014	10.353	.034*
집단 내 변량	0.353	0.125		

주1) 1수준 n = 765, 2수준 n =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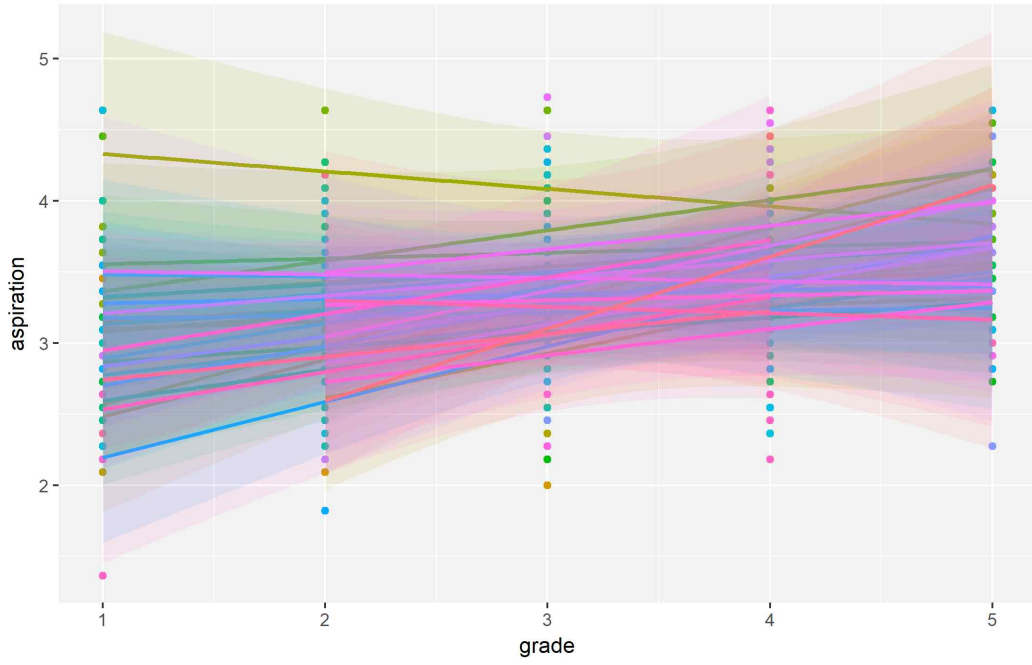
주2) * p<.05, ** p<.01, *** p<.001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변인 중 집단 간 차이가 있는 변인들 중 이분형 변수를 제외한 변인에 대하여 학급별 차이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그래프를 제시하였다. 먼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전문교과 수업 흥미에 따른 취업포부의 차이를 집단별로 나타내면 [그림 IV-2]와 같다. 그래프에 나타난 선은 각 학급별 회귀계수에 따른 회귀선을 표시한 것으로 선의 색은 38개의 학급을 의미한다. 학급별로 전문교과 수업 흥미에 따른 취업포부의 영향관계가 다르게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떤 학급은 정적인 영향을 가지는 반면, 반대로 전문교과 수업 흥미와 취업포부의 관계가 부적인 영향을 가지는 학급도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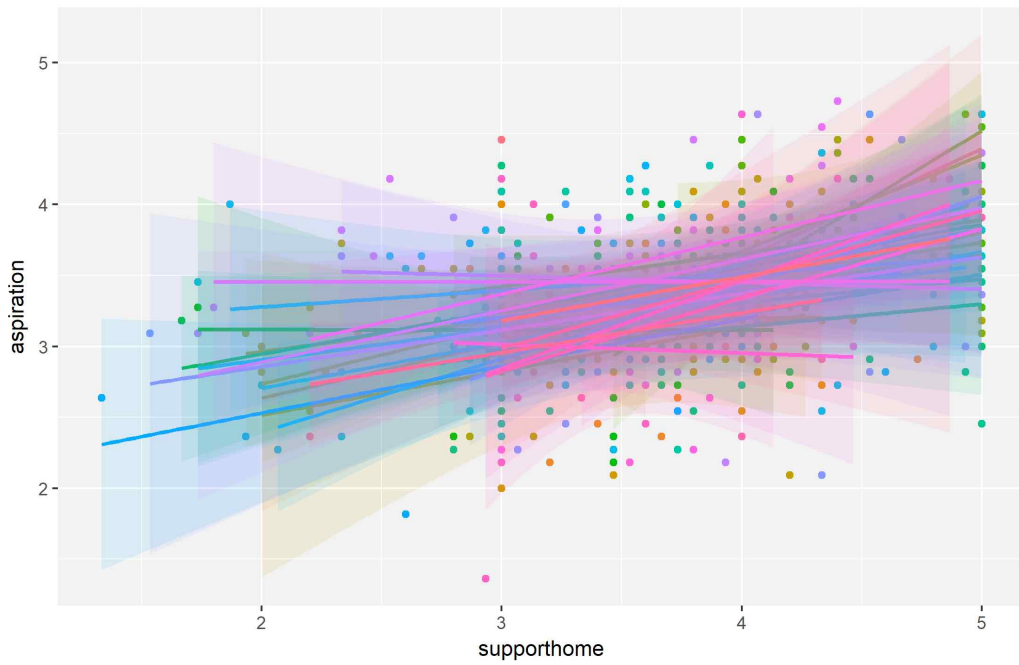


[그림 IV-2]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전문교과 수업 흥미에 따른 취업포부의 학급별 분포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평균 성적에 따른 취업포부의 학급별 분포와 가정의 진로지지에 따른 취업포부의 학급별 분포는 [그림 IV-3]과 [그림 IV-4]와 같다. 이 그래프 역시 각 학급별 회귀계수에 따라 회귀선을 표시하였고 선의 색은 학급을 의미한다. 그래프를 통해 살펴보면 전문교과 수업흥미와 유사하게 평균 성적과 가정의 진로지지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포부의 분포가 학급별로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평균 성적의 경우 대부분 정적인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몇 개의 학급에서 부적의 영향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정의 진로지지 역시 취업포부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그래프의 기울기가 학급별로 매우 다양하게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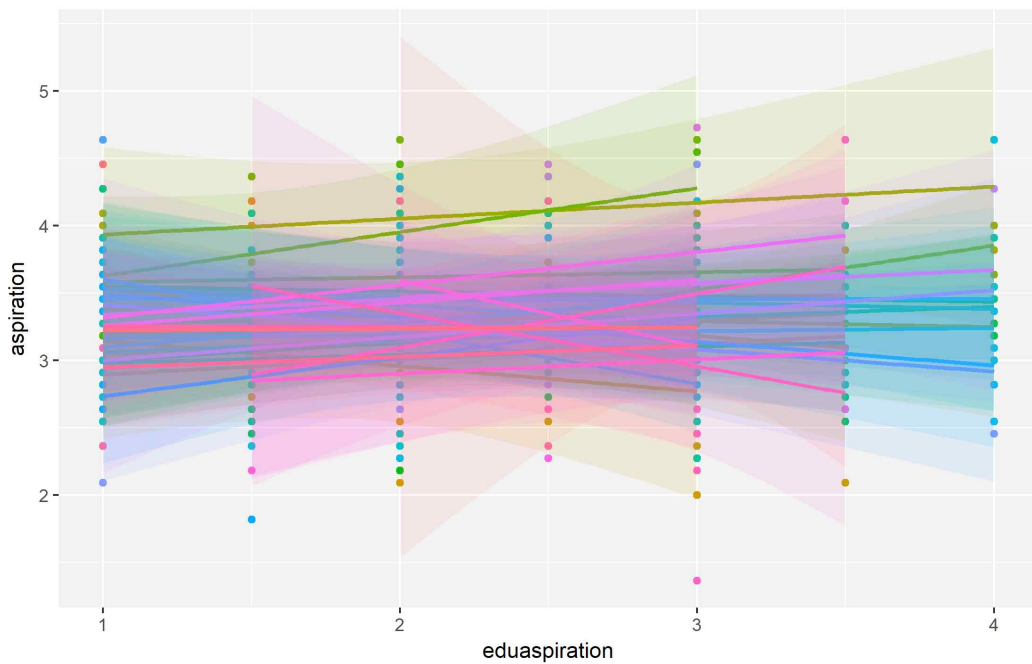


[그림 IV-3]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평균 성적에 따른 취업포부의 학급별 분포



[그림 IV-4]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가정의 진로지지에 따른 취업포부의 학급별 분포

마지막으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교육 포부에 따른 취업포부의 학급별 분포는 [그림 IV-5]와 같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교육포부는 고정효과 분석결과에서는 유의미하게 분석되지 않았지만 무선효과 분석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전체 값은 교육포부와 취업포부 사이에 일정한 영향관계가 있어 보이지 않지만, 학급별로 분석하였을 때에는 학급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IV-5]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교육 포부에 따른 취업포부의 학급별 분포

3. 취업포부에 대한 학급 수준 변인의 효과

이 연구의 두 번째 연구문제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학급별 평균 취업포부에 대한 학급 특성의 변인 효과를 구명하는 것이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공변량 분석 모형을 통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나타는 고정효과와

부선효과의 결과는 <표 IV-9>와 같다.

고정효과 분석 결과 부장교사($\beta = -0.177$, $p < .001$), 담당학급의 계열(공업)($\beta = -0.156$, $p < .001$), 취업지원 정도($\beta = 0.551$, $p < .001$)가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임교사가 부장교사인 경우 평교사인 경우에 비해 학생의 학급별 평균 취업포부가 0.177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급의 계열이 공업계열인 경우 다른 계열인 상업계열, 가사·실업계열, 농업계열에 비해 학급별 평균 취업포부가 0.156 감소하였다. 취업지원 정도는 정적인 관계를 나타냈는데 학생이 취업지원 정도가 1만큼 높다고 인식할수록 학급별 평균 취업포부가 0.55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부에 대한 학급 수준 변인의 무선효과 분석 결과 집단 간 변량은 0.002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집단 간 변량이 $p = .147$ 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내 변량은 0.233으로 1수준만 투입한 무선효과 회귀계수 무조건 모형의 집단 내 변량인 0.125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V-9> 공변량 분석 모형의 분석 결과

고정효과(Fixed Effect)	Coefficient	se	t	p-value
절편	3.320	0.015	212.147	.000***
성별 (기준집단 = 남교사)	0.010	0.057	0.182	.857
연령	-0.002	0.003	-0.819	.421
근속기간(개월)	0.000	0.000	0.220	.828
부장교사 여부 (기준집단 = 평교사)	-0.177	0.035	-4.949	.000***
최종학력	-0.020	0.033	-0.612	.546
담당교과	-0.042	0.050	-0.849	.405
담당학급의 계열 (공업)	-0.156	0.039	-3.914	.001***
담당학급의 계열 (상업)	-0.069	0.038	-1.819	.081

고정효과(Fixed Effect)	Coefficient	se	t	p-value
담당학급의 계열 (가사)	-0.069	0.038	-1.819	.081
직업교육 인식	0.048	0.058	0.835	.413
취업지도 능력	-0.016	0.091	-0.179	.860
취업지원 정도	0.551	0.079	6.922	.000***
무선효과(Random Effect)	SD	Variance	χ^2	p-value
집단 간 변량	0.048	0.002	30.094	.147
집단 내 변량	0.483	0.233		

주1) 1수준 n = 765, 2수준 n = 38

주2) * p<.05, ** p<.01, *** p<.001

4. 취업포부에 대한 학생 수준 변인과 학급 수준 변인의 상호작용 효과

이 연구의 마지막 연구 문제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포부에 대한 학생 및 학급 수준 변인의 상호작용 효과를 구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무선효과 회귀계수 조건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1수준 투입변수는 무선효과 회귀계수 무조건모형에서 무선효과(Random Effect)가 유의미한 변인들인 특성화고등학교 선택 이유, 전문교과 수업 흥미, 평균성적, 교육포부, 산업체 견학 및 체험,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방과 후 학교 및 동아리 활동, 한부모 가정 여부, 가정의 진로지지 변인을 투입하였다. 2수준은 투입변수로는 공변량 분석모형에서 유의미한 결과로 제시된 담임교사의 직위, 담당학급의 계열(공업), 취업지원 정도를 투입변수로 설정하였다.

무선효과 회귀계수 조건 모형의 수식은 아래와 같다. 먼저 1수준은 총 9개의 변인이 투입된 모형으로 이루어진다.

1수준 모형:

$$Y_{ij} = \beta_{0j} + \beta_{1j}(\text{특성화고 선택 이유}) + \beta_{2j}(\text{전문교과 수업 흥미}) + \beta_{3j}(\text{평균 성적}) \\ + \beta_{4j}(\text{교육포부}) + \beta_{5j}(\text{산업체 견학 및 체험}) + \beta_{6j}(\text{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 + \beta_{7j}(\text{방과 후 학교 및 동아리 활동}) + \beta_{8j}(\text{한부모 가정 여부}) \\ + \beta_{9j}(\text{가정의 진로 지지}) + r_{ij} \quad r_{ij} \sim N(0, \sigma^2)$$

2수준의 모형은 1수준 모형의 계수인 β_{ij} 에 2수준 변인을 투입하여 구성된다. 절편을 포함하여 총 10개의 2수준 모형의 수식이 도출될 수 있다.

2수준 모형:

$$\beta_{ij} = \gamma_{i0} + \gamma_{i1}(\text{부장교사 여부}) + \gamma_{i2}(\text{담당학급의 계열(공업)}) + \gamma_{i3}(\text{취업지원 정도}) \\ + \mu_{ij} \\ (i = 0 \sim 9)$$

위 수식을 바탕으로 무선효과 회귀계수 조건 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표 IV-10>과 같다. 고정효과 분석 결과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학급별 평균 취업포부 수준에 부장교사 여부, 담당학급의 계열(공업), 취업지원 정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화고등학교 학급의 담임교사가 부장교사이고, 학급의 계열이 공업이 아니며 취업지원 정도가 평균일 때 학생들의 평균 취업포부는 3.320으로 나타났다. 이 때 담임교사가 부장교사가 아닌 평교사이면 0.147 낮아져 평균 취업포부가 3.173으로 감소한다. 담당학급의 계열이 공업인 경우에는 다른 계열에 비해 취업포부가 0.103 낮은 3.217이 된다. 취업지원 정도가 1수준 증가하면 학생의 취업포부는 0.604 높은 3.924로 학생들이 취업지원 정도가 높다고 인식할수록 취업포부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한 결과 특성화고 선택 이유에 대해서는 학급수준의 변인이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문교과 수업 흥미는 절편에서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전문교

<표 IV-10> 무선효과 회귀계수 조건 모형의 분석 결과

고정 효과(Fixed Effect)	Coefficient	se	t	p-value
절편				
절편	3.320	0.018	177.592	.000***
부장교사 여부 (기준집단 = 평교사)	-0.147	0.063	-2.301	.028*
담당학급의 계열 (공업)	-0.103	0.041	-2.493	.018*
취업지원 정도	0.604	0.058	10.414	.000***
특성화고 선택 이유				
절편	0.059	0.037	1.598	.119
부장교사 여부 (기준집단 = 평교사)	-0.048	0.126	-0.382	.704
담당학급의 계열 (공업)	-0.084	0.080	-1.050	.302
취업지원 정도	0.003	0.118	0.029	.997
전문교과 수업 흥미				
절편	0.182	0.035	5.118	.000***
부장교사 여부 (기준집단 = 평교사)	-0.065	0.132	-0.497	.622
담당학급의 계열 (공업)	0.061	0.075	0.820	.418
취업지원 정도	0.097	0.111	0.876	.387
평균 성적				
절편	0.082	0.018	4.2.462	.000***
부장교사 여부 (기준집단 = 평교사)	0.078	0.063	1.239	.224
담당학급의 계열 (공업)	0.045	0.039	1.157	.256
취업지원 정도	-0.138	0.054	-2.539	.016*

고정효과(Fixed Effect)	Coefficient	se	t	p-value
교육포부				
절편	-0.015	0.022	-0.681	.501
부장교사 여부 (기준집단 = 평교사)	0.016	0.080	0.119	.844
담당학급의 계열 (공업)	0.003	0.051	0.064	.950
취업지원 정도	-0.006	0.069	-0.097	.923
취업관련 경험 (산업체 견학 및 체험)				
절편	-0.048	0.049	-0.986	.332
부장교사 여부 (기준집단 = 평교사)	0.008	0.163	0.050	.960
담당학급의 계열 (공업)	-0.246	0.107	-2.283	.029*
취업지원 정도	0.059	0.155	0.387	.701
취업관련 경험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절편	0.039	0.044	0.893	.379
부장교사 여부 (기준집단 = 평교사)	-0.089	0.158	-0.563	.577
담당학급의 계열 (공업)	0.122	0.096	1.270	.213
취업지원 정도	0.142	0.136	1.039	.307
취업관련 경험 (방과 후 학교 및 동아리 활동)				
절편	0.017	0.043	0.412	.682
부장교사 여부 (기준집단 = 평교사)	-0.004	0.153	-0.031	.976
담당학급의 계열 (공업)	0.194	0.139	1.395	.172
취업지원 정도	0.161	0.093	1.734	.0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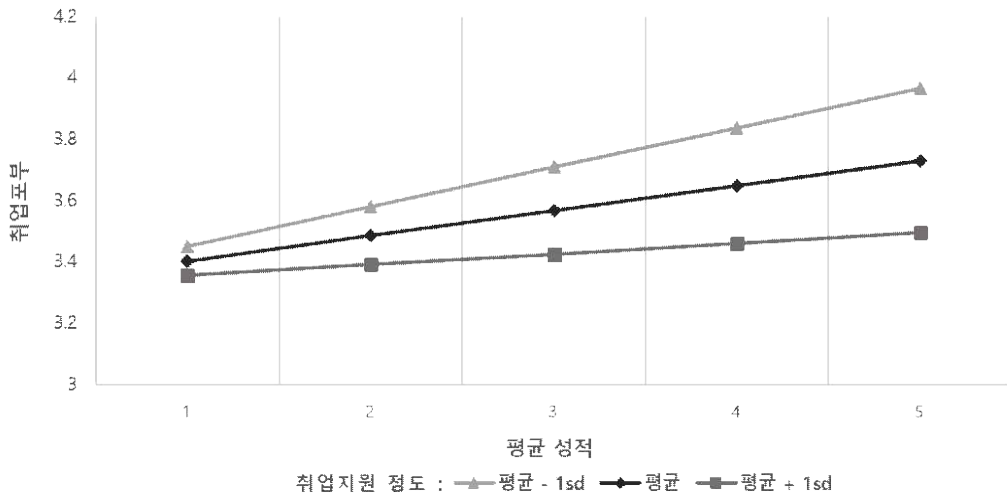
고정효과(Fixed Effect)	Coefficient	se	t	p-value
한부모 가정 여부				
절편	-0.032	0.039	-.841	.406
부장교사 여부 (기준집단 = 평교사)	0.142	0.138	1.032	.310
담당학급의 계열 (공업)	0.162	0.087	1.860	.071
취업지원 정도	0.152	0.142	1.075	.290
가정의 진로지지				
절편	0.204	0.030	6.645	.000***
부장교사 여부 (기준집단 = 평교사)	-0.065	0.116	-0.562	.577
담당학급의 계열 (공업)	-0.027	0.068	-0.399	.692
취업지원 정도	0.141	0.110	1.282	.209
무선효과(Random Effect)	SD	Variance	χ^2	p-value
절편	0.078	0.006	53.439	.003**
특성화고 선택 이유	0.100	0.010	23.966	>.500
전문교과 수업 흥미	0.159	0.025	67.637	.000***
평균 성적	0.046	0.002	45.688	.019*
교육포부	0.041	0.001	39.737	.070
취업관련 경험 (산업체 견학 및 체험)	0.173	0.030	65.830	.000***
취업관련 경험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0.099	0.009	41.656	.046*
취업관련 경험 (방과 후 학교 및 동아리 활동)	0.075	0.005	36.681	.126
한부모 가정 여부	0.060	0.003	31.933	.277
가정의 진로지지	0.102	0.010	42.839	.036*
집단 내 변량	0.372	0.138		

주1) n = 765

주2) * p<.05, ** p<.01, *** p<.001

과 수업 흥미가 1만큼 증가하면 학급별 평균 취업포부 수준이 0.182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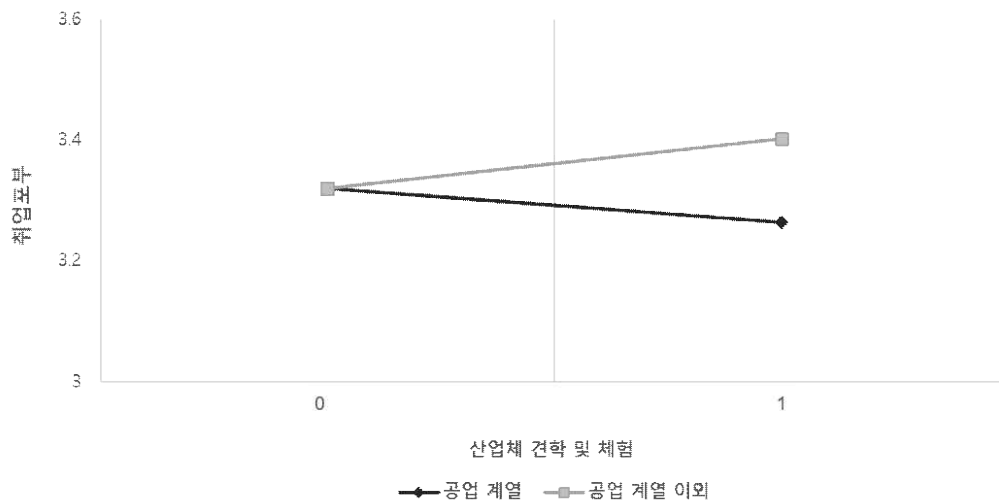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평균 성적이 취업포부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취업지원 정도가 상호작용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평균 성적이 높을수록 학생들의 취업포부가 증가하는데 이 관계에 있어서 취업지원 정도가 높으면 평균 성적과 취업포부간의 관계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IV-6] 참조).



[그림 IV-6]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평균성적에 따른 취업포부 변화에 대한 취업지원 정도의 상호작용 효과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교육 포부는 상호작용 효과에서 유의미한 변인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취업관련 경험 중 산업체 견학 및 체험의 경우 담당학급의 계열이 공업계열인지에 따라 취업관련 경험이 학생의 취업포부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관련 경험 중 산업체 견학 및 체험의 경험이 있으면서 학급의 계열이 공업 계열인 학생은 평균 취업 포부가 0.246 감소한 3.264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업 계열 여부에 따른 차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IV-7]과 같다. 공업 계열은 산

업체 견학 및 체험의 경험이 있는 경우에 없는 경우에 비해 취업포부가 감소하는데 반해 그 이외의 계열은 취업관련 경험이 있을수록 취업포부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IV-7]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산업체 견학 및 체험에 따른 취업포부 변화에 대한 담당 학급의 계열(공업)의 상호작용 효과

취업관련 경험의 나머지 변인들인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과 방과 후 학교 및 동아리 활동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한부모 가정 여부 역시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가정의 진로지지는 상호작용 효과 중 절편에서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가정의 진로지지가 1만큼 증가하면 학급별 평균 취업포부 수준이 0.204 증가한다고 나타났다.

5.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

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포부 수준

이 연구에서는 취업포부를 ‘취업을 하고자 하는 욕구와 직업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바가 뚜렷한지, 취업을 위한 계획이 있는지 등의 취업에 대한 전반적인 포부’로 정의하고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포부 수준은 평균 3.326(표준편차 .518)로 보통 수준인 3.00보다 약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의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학습된 무기력으로 무기력한 상태이고(전미애, 임세영, 2012),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는(교육과학기술부 외, 2012)의 연구와는 약간 다른 결과이다. 이는 취업포부가 학생들의 자존감 및 학업성취, 학교생활 만족도와는 약간 다른 개념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취업포부 수준은 약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점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나.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포부에 대한 학생 및 학급 수준의 변량

이 연구를 통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포부에 대한 학생 및 학급 수준의 변량을 분석한 결과, 학생 개인 간의 차이로 설명되는 변량 비율은 85.7%로 나타났고, 한 명의 담임교사로 구성된 학급 간 차이로 설명되는 변량 비율은 14.3%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포부는 학급 간의 차이보다 학생 개인 간의 차이에 의한 설명력이 크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비록 학급 수준의 변량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포부에 대해 학생 수준 뿐 아니라 학급 수준의 변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학생에게 교사가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검토된 다양한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신희경, 김우영, 2005; 조아미, 2007; 권혜연, 2006, 최동선 외, 2010). 특히 최호승, 이종호(2012)의 연구를 통해 조사

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상이 교사인 결과와도 일치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포부와 학생 및 학급 수준 변인의 효과

1) 학생 수준 변인 효과에 대한 논의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포부와 학생 개인 특성 변인의 고정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문교과 수업 흥미와 평균 성적, 가정의 진로지지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이외의 변인인 성별, 거주 지역, 특성화고등학교 선택 이유, 학교생활 만족도, 교육포부, 취업관련 경험, 한부모 가정 여부, 가구소득 수준, 가정 내 진로관련 대화 정도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선 효과 분석 결과 특성화고 선택 이유, 전문교과 수업 흥미, 평균 성적, 교육포부, 산업체 견학 및 체험,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방과 후 학교 및 동아리 활동, 한부모 가정 여부, 가정의 진로지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교육포부와 취업관련 경험은 고정효과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학급별 차이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다음의 논의가 가능하다.

첫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전문교과 수업 흥미가 높을수록 학생들의 취업포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재훈(2012)의 연구 결과 체육 전공 학생들의 체육 수업 흥미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가지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로 보여 진다. 반면, 장현진, 이지혜(2012)의 연구에서는 전문교과 수업 흥미도가 취업 선택에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 결과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가설을 기각하였을 뿐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는 아니므로 이 연구의 결과와 상반된 결과라고 볼 수는 없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전문교과 수업은 해당 산업 분야의 취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전문교과 수업 흥미가 학생의 취업포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을 비추어

볼 때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포부를 높이기 위해서 전문교과의 질을 보다 높여 흥미가 높아지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둘째, 평균 성적이 높을수록 취업포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창균(2006)은 학업 성취가 높다는 것은 능력이 우수하거나 성실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어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시 취업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채창균(2006)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보여 진다. 이에 반해 김휘인, 김현철(2015)와 오현석 외(2005), 신희경, 김우영(2005)는 학업 성적이 높을수록 취업이 아닌 진학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였다. 때문에 위 결과에 비추어보면 성적이 높을수록 취업포부 보다 진학포부가 높아야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특성화고등학교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정부의 정책지원 사업 등으로 인해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년 취업난이 심각해짐에 따라 높은 성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더 나은 직장으로 바로 취업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볼 때 평균 성적이 높을수록 더 높은 취업포부를 가지는 것이 더 나은 직장으로 진입하고자하는 특성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셋째, 가정의 진로지지가 높을수록 취업포부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부모의 진로지지가 진로결정에 정적인 영향을 주고(이명훈, 2015; 임나영 외, 2015), 특히 부모의 기대가 진로결정에 영향을 주는 주된 요인이라고 분석한 Coleman(1990)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가정의 진로지지는 사회적 지지의 요소 중 하나로 청소년기에 학생이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는 변인으로 분석되어오곤 하였다(Nota 외, 2007; 김태환, 2012). 이 연구의 결과 역시 가정의 진로지지가 높을수록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더 높은 취업포부 수준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이 취업을 결정하는 포부 수준을 가지는 데 있어서 가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2) 학급 수준 변인 효과에 대한 논의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포부와 학급 수준 변인 효과를 분석한 결과,부장교사, 담당학급의 계열(공업), 취업지원 정도가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변인인 성별, 연령, 근속기간, 최종학력, 담당교과, 담당학급의 계열(상업, 가사), 직업교육 인식, 취업지도 능력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논의가 가능하다.

첫째, 부장교사 여부에 따라 학급 평균 취업포부에 차이가 있으며 담임교사가 부장교사인 경우 평교사인 경우에 비해 학생의 학급별 평균 취업포부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부장교사의 업무과중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취업지도의 정도가 평교사 담임교사인 경우에 비해 적을 수 있다는 점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둘째, 담당학급의 계열이 공업인 경우 다른 계열인 상업계열, 가사·실업계열, 농업계열에 비해 학급별 평균 취업포부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취업장벽을 연구한 이지혜, 정철영(2010)의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이지혜, 정철영(2010)의 연구에서는 취업장벽이 공업, 상업, 가사·실업, 농업 순으로 높다고 분석하였는데 취업장벽이 높을수록 학생들이 진입할 수 있는 취업처가 줄어든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생들의 취업포부가 감소할 수 있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취업지원 정도가 높을수록 학급별 평균 취업포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지원 정도가 학생들이 취업 결정 및 취업 이후의 노동시장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과 일치한다(김동규, 2012; 광민호, 2012; 조규형, 2014). 학생들이 학교에서 지원하는 취업지원 정도가 높다고 인식한다는 것은 대부분 학교의 취업지원 활동에 참여하고 이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취업지원 정도가 학생의 취업포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은 학생들의 취업포부를 높이기 위해서 학교가 적절한 취업지원 활동을 제공해주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3) 학생 수준 변인과 학급 수준 변인 간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논의

학급 수준 변인 중 취업지원 정도와 산업체 견학 및 체험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포부와 개인 특성 변인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호작용 효과는 개인의 진로발달 과정에 있어서 개인의 특성과 개인이 속한 환경 맥락적 특성이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과정임을 설명한 Lent의 사회인지 진로이론과 일치하는 결과로 보여 진다. 즉 학생 개인의 특성이 학생의 취업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환경적인 맥락인 학급 특성의 변인이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가지는 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평균 성적이 취업포부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취업지원 정도가 상호작용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평균 성적이 높을수록 취업포부가 증가하는데 이 관계에 있어서 학생이 취업지원 정도가 높다고 인식할수록 취업포부와 관계가 줄어들어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창균(2009)과 오석영(2012)은 학업 성적이 높을수록 취업보다 대학 진학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평균 학업성적이 높은 학생일수록 취업보다는 진학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평균 성적이 높은 학생일수록 취업포부보다 진학포부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이 취업지원 정도가 높다고 인식할수록 평균 성적에 의하여 취업포부가 높아지는 경향의 정도가 감소한다고 분석되었다. 이는 취업지원 정도에 대해 학생이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진학포부보다 취업포부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즉 학생들이 취업에 대한 열망을 가지는데 있어서 취업지원 정도가 올바른 취업포부를 가지는데 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교의 적절한 취업지원이 학생들의 취업포부를 긍정적으로 높이는데 효과가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둘째, 산업체 견학 및 체험의 취업관련 경험이 담당학급의 계열이 공업인지의 여부에 따라 상호작용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관련 경험 중 산업체 견학 및 체험의 경험이 있으면 취업포부가

증가하지만 학급의 계열이 공업인 경우에는 산업체 견학 및 체험의 경험이 있을수록 오히려 취업포부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업계열이 가지는 취업장벽(이지혜, 정철영, 2010)의 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공업계열의 학생들은 다른 계열 학생들에 비해 취업장벽을 인식하는 수준이 더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체 견학 및 체험을 통해 산업분야에 대한 정보를 빨리 경험할수록 이러한 취업장벽을 빨리 인식하게 되고 이 때문에 학생들의 취업포부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공업계열의 취업처 환경의 영향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공업계열 학생들 대부분은 제조업 분야로 취업하는데 제조업 일선으로 취업하는 환경이 좋지 못한 부분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강혜영 외(2015)는 실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인터뷰를 통해 취업관련 경험을 한 이후 취업에 대하여 불안이 생기기도 하고 힘든 일을 해야 할 것 같아 두려움이 생기기도 한다고 분석하였다. 즉 산업체 견학 및 체험의 경험을 통해 실제 취업 현장을 경험한 후 취업에 대한 흥미가 감소하고 관심이 떨어질 수 있다는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특성화고등학교 특히 공업계열의 학교에서 학생들의 산업체 견학 및 체험을 통해 학생들에게 궁극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취업의 정보를 명확히 하고 이후에 학생들이 올바른 포부를 가질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V. 요약, 결론 및 제언

1. 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포부와 학생 특성 및 학급 수준 변인의 관계를 구명하는데 있었다. 이를 위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포부에 대한 학생 및 학급 수준 변인의 변량을 구명하고 그 효과를 구명했다. 그리고 유의미한 영향관계를 보인 변인을 대상으로 학생 수준 변인과 학급 특성변인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해 검증하였다.

이 연구의 대상은 특성화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학생으로, 2016년 기준 96,419명의 학생을 모집단으로 설정하였다. 표본의 특성과 자료 분석 방법인 위계적 선형 모델의 표집 방법을 고려하여 표집 인원은 40개 학급의 2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총 800명으로 설정하였다. 표집은 위계적 회귀분석의 방법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한 표집 방법인 비례층화표집을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총 765명으로 38개의 학급을 대상으로 표집 하였고, 각 학급의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집단 수준 변수의 설문을 실시하였다.

조사도구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포부 및 학생 및 학급 수준 변인을 측정할 수 있는 변인들로 구성된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이 연구의 종속변인인 취업포부는 선행연구를 통해 개발된 문항을 그대로 활용하였다. 학생 수준 변인은 인구통계학적 특성, 직업교육 흥미, 가정환경 특성, 가정의 진로지지로 총 7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학급 수준 변인 중 교사의 직업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관련한 문항은 기 개발된 문항이 없어 문항개발 절차에 따라 연구자가 문항을 개발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이외의 문항으로는 교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취업지도 능력, 취업지원 정도로 총 7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자료 수집은 문항의 신뢰도와 타당도 조사를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한 본조사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예비조사는 2017년 9월 25일부터 10월 10일까지 우편을 통해 진행되었고, 본 조사는 2017년 10월 13일부터 29일까지 방문조사 및 우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배포된 설문지 800부 중 765부가 회수되었고, 회수율은 97.0%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이나 중복 응답, 미응답 등의 내용을 제외하고 분석에 활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23.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와 상관분석 및 다중공선성 분석을 실시하였고, HLM 6.08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계적 선형모형의 다층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포부의 전체 변량 중 학급 간 차이로 설명되는 변량은 14.3%로 분석되었으며, 학생 수준 변인의 차이로 설명되는 변량은 85.7%로 나타났다. 둘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포부 수준에 전문교과 수업 흥미와 평균 성적, 가정의 진로지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문교과 수업 흥미가 1 높을 때 취업 포부 수준이 0.172 증가하고, 평균 성적이 1 증가할 때, 취업포부 역시 0.078 높아졌다. 가정의 진로지지 수준이 1 증가할 때도 취업포부 수준이 0.19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개인 수준 변인 중 학급별 차이가 있는 변인을 분석한 결과 특성화고 선택 이유, 전문교과 수업 흥미, 평균 성적, 교육포부, 산업체 견학 및 체험,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방과 후 학교 및 동아리 활동, 한부모 가정 여부, 가정의 진로지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포부와 취업관련 경험은 개인 수준에서는 취업포부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지만 학급별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급별 평균 취업포부 수준은 부장교사 여부, 담당학급의 계열(공업), 취업지원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담임교사가 부장교사인 경우 평교사인 경우에 비해 취업포부가 0.177 감소하고, 학급 계열이 공업인 경우 다른 계열에 비해 0.156 감소하였다. 취업지원 정도가 1 증가하면 취업포부는 0.55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학생 수준 변인과 학급 수준 변인의 상호작용 효과 분석 결과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포부와 평균 성적의 관계에서 취업지원 정도가 상호

작용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포부와 산업체 견학 및 체험의 관계에서 담당학급의 계열(공업)도 상호작용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결론

이 연구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포부는 학생 개인의 특성 및 학급 수준 변인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포부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개인 수준의 특성이 많은 변량을 차지하고 있지만 학급 특성의 변량 역시 10% 이상의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포부 수준에 있어서 학생 개인의 내적 변인이 가지는 영향이 크지만 개인이 속한 학급의 특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기술 통계를 통해 살펴본 학급별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포부 수준의 분포는 학급별로 취업포부의 수준이 매우 다양하게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급의 특성은 개인이 속한 환경의 맥락적 특성이라는 점에서 학급에 속한 여러 명의 학생이 동일한 효과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즉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포부를 분석하는데 있어 하나의 학급의 학생들을 지도하는 담임교사의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포부에 있어서 학생 수준 변인 중 전문교과 수업 흥미, 평균 성적, 가정의 진로지지가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문교과 수업 흥미는 관련 분야로의 취업을 확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라고 보여 진다. 때문에 전문교과 수업 흥미가 높을수록 취업에 대한 포부가 높아진다는 점은 전문교과 수업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평균 성적이 높을수록 취업포부가 높아진다는 점은 취업포부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 중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진학을 선택한다는 기존 선행연구와 반대되는 결과로

보여 질 수 있다. 가정의 진로지지 역시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가정의 진로 지지가 취업포부 혹은 진로포부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맥을 같이하고 있다. 학생 개인 특성 변인 중 취업포부에 미치는 영향이 학급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변인은 특성화고등학교 선택 이유, 전문교과 수업 흥미, 평균 성적, 교육포부, 취업관련 경험, 한부모 가정 여부, 가정의 진로지지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포부와 취업관련 경험은 고정효과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이 분석되지 않았지만 무선효과에서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포부에 있어서 학급수준의 변인이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따라서 학급 수준의 변인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포부 분석에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준다고 보여 진다.

셋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학급별 평균 취업포부에 학급 수준 변인 중 부장교사, 담당학급의 계열(공업), 취업지원 정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냈다. 담임교사가 부장교사일수록 학급별 평균 취업포부가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담임교사가 부장교사의 보직을 가질 경우 학급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로 인해 학생들의 상담 및 취업지도에 소홀할 수 있어 학생들의 취업포부가 낮아진다고 해석해볼 수 있다. 또한, 담당학급의 계열이 공업인 경우 다른 계열에 비해 취업포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업계열의 학생들은 다른 계열에 비해 고졸취업이 가능한 일자리가 많은 편이다. 이 때문에 학생들이 높은 포부를 가지지 않아도 쉽게 취업이 되는 반면 다른 계열 특히 상업계열의 경우 일자리의 폭이 넓지 않아 학생들이 더 높은 취업포부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의미한 변인인 취업지원 정도는 학생이 학교에서의 취업지원 정도가 높다고 인식할수록 취업포부를 높게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의 취업지원이 학생들이 취업을 결정하고 나아가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급별 평균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포부에 있어 학급 수준 변인 중 취업지원 정도와 담당학급의 계열(공업)이 학생 개인 특성 변인이 취업포부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상호작용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즉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평균성적이 취업포부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취업지원 정도가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지원 정도가 높을 수록 평균성적에 따라 취업포부가 증가하는 폭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의 취업포부에 영향을 미치는 평균 성적의 관계를 취업지원 정도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가 학생들에게 적절한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학생의 취업포부와 산업체 견학 및 체험의 관계에서 담당학급의 계열(공업)도 상호작용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업계열의 학생들은 다른 계열 학생들에 비해 산업체 견학 및 체험을 경험할수록 취업포부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업계열 특성상 취업장벽이 높은 점을 고려해볼 때 산업체 견학 및 체험을 통해 학생들이 취업장벽을 좀 더 빨리 인식하여 취업포부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때문에 공업계열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취업관련 경험 특히 산업체 견학 및 체험의 경험을 제공할 때 이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을 반드시 제공해주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학생들이 경험한 이후 적절한 취업포부를 가질 수 있도록 학급 혹은 학교 차원의 후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3. 제언

이 연구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포부에 대한 학생 및 학급 수준 변인의 효과를 구명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한 후속 연구 및 실천적인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의 질에 대한 측정 및 관련 변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취업포부와 관련한 실증 연구가 지속적으로 축적될 필요가 있다. 고졸취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오고 있다. 하지만 취업의 질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특히 취업을 결정하게 되는 요인에

대해선 많은 연구가 있지만 결정한 취업 선택의 질과 취업 이후의 노동시장의 질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수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이 정말로 원해서 취업을 하는지 어떠한 포부를 지니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취업포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취업을 결정하게 되는 계기가 단순히 정책적 지원을 통한 즉흥적인 결정인지 장기적인 미래 목표를 계획한 결정인지에 대한 다양한 후속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포부를 고려한 체계적인 진로지도 및 취업지도가 필요하다. 현재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은 3학년 시기에 집중적으로 지도되는데 대부분 담임교사의 지도아래 상담 혹은 학생의 자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담당학급의 학생들 모두를 대상으로 1대1 상담을 장려하고 있지만 담임교사의 업무과중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적절한 상담이 진행되고 있지는 못하다. 특히 이 연구 결과로 제시된 것처럼 부장교사일수록 학생들의 취업포부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는 것은 부장교사의 업무가 평교사에 비해 많기 때문에 학생 개개인에게 맞춤형 취업지도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셋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과 담임교사의 영향관계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더 수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다양한 변인과 학교수준 변인의 영향관계에 대한 연구는 이미 많이 수행되었다. 그러나 담임교사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학급 수준의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이 연구를 기초로 하여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이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담임교사와의 관계를 구명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가 후속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넷째,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지원 활동 이후 적절한 피드백 제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들의 취업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변인 중 많은 변인이 학교의 취업지원 활동과 관련되어 있었다. 학생들의 평균 성적이 취업포부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변인인 학교의 취업지원 활동과 공업계열 여부에 따라 취업지원 활동 경험이 취업포부에 미치는 영향이 그것이다. 이

렇듯 학생들의 취업포부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학교의 취업지원 활동이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하고 반드시 활동 이후에 적절한 피드백이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공업계열의 학생들의 경우 산업체 견학 및 체험을 통해 취업포부가 감소되는 경향이 보여지므로 위 활동 이후에 학생들이 올바른 취업포부를 가질 수 있도록 학급 및 학교 차원의 피드백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학교 특성 변인과 학급 수준 변인의 차이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 연구 분석을 통해 학급수준 변인에서 학급별 평균 취업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부장교사 여부와 담당학급의 계열, 취업지원 정도였다. 부장교사 여부를 제외한 나머지 두 변인은 학급 수준의 변인일 수도 있고 큰 범위에서 학교 수준의 변인이라 해석할 수도 있다. 이 연구에서는 표집의 한계로 인하여 학생, 학급, 학교의 3수준 분석을 수행하지는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취업포부에 대한 학급 수준 변인과 학교 수준 변인을 구분하여 어떤 변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학급 수준의 변인은 학교보다는 작은 단위로 담임교사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집단이다. 때문에 학교차원의 지원을 변경하는 것 보다 담임교사의 노력으로 변화가 가능한 영향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즉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는 담임교사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이끌어낸다면 학생들의 취업포부에 알맞은 취업지도가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참고문헌

- 강상진. (2016). 다층모형. 서울: 학지사.
- 강성국. (2016). 특성화고 학생들의 진로결정과 직업가치관의 변화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성원. (2000). 특성화 고등학교 발전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강순희, 안준기. (2010). 대졸자의 실업경험의 낙인효과. 한국경제연구, 28(2), 201-231.
- 강영혜, 박소영. (2008). 특성화고등학교의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강월영. (2006). 중·고령실업자의 취업장벽이 취업의식저해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희돈. (1988). 한국의 사회이동과 학교교육의 효과.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고향자. (1992). 한국 대학생의 의사결정유형과 진로결정 수준의 분석 및 진로결정 상담의 효과.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교육개혁위원회 (1996).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 개혁방안 (II).
-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2). 진로진학상담교사 활동매뉴얼 - 특성화고.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교육부. (2017).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률 17년 만에 50% 넘어. 석간보도자료.

- 구인회, 김순규. (2002). 가족배경이 청소년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 가족구조와 빈곤의 영향을 중심으로. 제4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노동연구원.
- 권혜연. (2006). 고등학생이 기대하는 학급담임교사의 역할 분석.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강호. (2008). 중소기업에서의 학습 지향성, 학습행동, 조직환경 및 학습성과의 인과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경근. (1999). 교육 성취에 대한 가족 구성의 영향. *교육사회학연구*, 9(3), 1-23.
- 김경근, 변수용. (2006). 한국 사회에서의 상급학교 진학 선택 결정요인. *교육사회학연구*, 16(4), 1-27.
- 김경식, 이현철. (2007). 진로결정 수준 변화의 영향 요인. *중등교육연구*, 55(3), 143-164.
- 김경화, 민하영. (2006). 대학생의 취업대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의 탐색 -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개인내적 변인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3), 73-82.
- 김나라, 정철영. (2002). 고등학교 교사의 직무만족과 학교장의 리더십과의 관계 분석. *직업교육연구*, 21(1), 157-168.
- 김미경. 2000.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도와 그 결정요인**.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미선, 남숙경. (2013). 특성화고 남학생들의 진로결정에 있어 개인주의-집단주의 성향과 학교생활만족도와의 관계: 진로결정 자율성의 매개역할. *교육방법연구*, 25(4), 771-790.

- 김선중. (2004). 대학생 진로준비행동 - 진로장벽의 관계유형과 진로자기효능감, 희망, 삶의 의미와의 관계, **학생생활연구**, 18(4), 75-99.
- 김선태, 강기주, 허강, 강경중, 조완영, 유병로. (2002). **실업계 고등학교 수준별 교육과정 적용방안 및 교수-학습 방법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수탁연구 02-32.
- 김성환, 전용석, 이경상. **청소년 진로선택 결정요인 - 가정환경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10, 245-258.
- 김영중. (2009). 고용정책형성과정의 동태성 분석 - 외국인 고영허가제의 정책네트워크와 정책옹호연합모형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3(2), 119-144.
- 김영희, 김성봉. **전문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입시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2(1), 29-55.
- 김원중. (1984). **진로의식 성숙과 사회심리학적 변인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윤희. (2014). **학습동기 향상 프로그램이 특성화고 여학생의 역기능적 진로사고 감소에 미치는 효과**.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희, 김봉환. (2009). 진로상담: 진로장벽 깨뜨리기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여대생의 진로 장벽 인식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상담학연구**, 10(4), 2225-2239.
- 김인곤. (2015). **특성화고등학교 취업지도 담당교사의 취업지도능력과 학교환경변인, 교사효능감 및 직무몰입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정숙. (2006). **중학생의 직업포부 결정요인 - 의사직과 교사직을 중심으로 -**. 교

- 육개발연구, 26, 127-150.
- 김주연. (2009). **고등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 척도개발 및 타당화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진관. (2014). **공학계열 대학생의 학업유지와 정서적 특성, 사회인지요인, 학업만족의 인과적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선. (2013). **특수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학생과 교사요인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정숙. (2006). **중학생의 직업포부 결정요인 - 의사직과 교사직을 중심으로**. **육개발연구**, 26, 127-150.
- 김태환. (2012). **고등학생의 시장에 대한 태도 차이에 관한 사례 연구: 선택과목 경제와 AP경제학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수, 임세영. (1993). **전공교육 관련요인이 공업계 고등학교 및 직업훈련원 전문교과 교사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직업교육연구**, 12(1), 16-33.
- 나승일, 이명훈, 한홍진, 마상진, 김진실. (2003). **산업교육실습 이해와 실제**. 교육과학사.
- 나승일, 장명희, 조용, 송달용. (2007). **정부부처에 의한 특성화고 육성 지원 프로그램 개발**. 교육인적자원부.
- 남기곤, 윤진호, 이시균. (2010). **대학 재학 중 활동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효과**, **경제발전연구**, 16(1). 143-172.
- 노경란, 허선주. (2012). **특성화고 졸업 청년층의 취업결정요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5(2), 25-49.

- 노미순. (1999).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과정 청소년의 진로성숙과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류성희. (2007).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계열별 교육에 따른 진로의식 차이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마상진a. (2004). **실업계 고등학교 교사의 직업교육 가치성향과 조직몰입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마상진b. (2004). 직업교육 가치성향 척도 개발 연구. **직업교육연구**, 23(1),
- 마상진, 나승일. (2004). 실업계 고등학교 교사의 직업교육 가치성향 연구. **직업교육연구**, 23(2), 41-57.
- 문승태, 김연희. (2002). 고등학생들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요인에 관한 연구 - 충남지역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4(2), 49-60.
- 박나실. (2013). **직업특성화고 교육과정 운영에서 드러난 보통교과의 위상과 역할**.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소영. (2004). 학업성취 향상을 위한 학생의 자발적참여와 교사변인. **아시아교육연구**, 5(3), 93-113.
- 박인봉. (2002). 청년층의 직업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제1회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및 청년패널 심포지엄 자료집**. 중앙고용정보원.
- 박정배. (2009). **직업기초능력 관점에서 본 공업계열 전문계고 교사의 교육과정 인식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변수용, 김경근. (2008). 한국 고등학생의 교육결과에 대한 문화자본의 영향. **교육사**

회학연구, 18(2), 53-82.

서민철. (2007). 1980년대 이후 수도권/비수도권 지역격차 변화의 조절 이론적 해석. **대한지리학회지**, 42(1), 41-62.

서우석, 정철영, 이광호, 채영병, 허영준, 김재호. (2007).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중도탈락 개선을 위한 진로지도 및 상담 활성화 방안. **직업교육연구**, 26(1), 106-133.

손은령. (2001). 여자 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상담학연구**, 2(2), 251-262.

송인숙. (2016). **일반고 3학년 진로진학지도에 대한 담임교사와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인식 비교 - 중요도와 실행도에 의한 우선순위 분석을 중심으로 -**. 중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신희경, 김우영. (2005).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진로결정 수준과 결정동기에 관한 연구. **직업능력개발연구**, 8(2), 47-83.

안선영, 장원섭. (2012).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2009(1), 3-81.

양난미. (2006). 사회인지 진로 모형에 기초한 대학생의 진로선택 모형. **상담학 연구**, 7(3), 835-847.

오석영. (2012). 특성화고 학생의 진로결정요인분석: 서울지역 진로결정 집단별 비교. **직업교육연구**, 31(2), 135-151.

오영재, 정지선. (2006). 실업계 고등학교의 교사문화에 관한 질적 연구. **교육행정학회지**, 24(1), 69-96.

- 옥준필. (1999). 직업교육분야 특성화 고등학교의 최근 현황과 발전 과제. **고용직업 능력개발연구**, 2(1), 37-69.
- 옥준필, 김선태, 김기홍. (2012). **특성화고 교육 혁신 방안 연구**. 서울: 한국직업능력 개발원.
- 유백산, 신수영. (2012). 가정배경에 따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양식이 학생-교사 관계 및 직업포부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3(4), 54-78.
- 윤미선. (2003). **사고양식에 따른 학습동기 및 교과 흥미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명훈. (2017). 마이스터고 학생이 지각한 사회적지지, 회복탄력성, 진로결정 간의 구조적 관계. **한국기술교육학회지**, 17(2), 121-141.
- 이무근. (2003). **직업교육학 원론(제3판)**. 교육과학사.
- 이선민. (1994). **대학생의 취업포부와 취업전략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성식. (2004). **Gottfredson 이론에 기초한 고등학교 학생의 진로대안영역과 직업포부**.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성식, 정철영. (2004). Gottfredson 이론에 기초한 고등학교 학생의 진로대안영역과 직업포부.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36(3), 43-58.
- 이영대. (2001). **실업계 고등학생 취업지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용환. (1987). **농업교사의 교직발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업교육과.
- 이용환. (2000). **실업교육의 본질과 위기**. 2000년도 실업교육관련학회 및 교장회 공

동학술대회 ‘실업교육의 위기와 그 대책’ 자료집. 한국가정과교육학회.

- 이우성. (2016).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의 취업능력과 개인특성, 가정특성 및 학교만족 변인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쌍철, 주현준. (2013). 특성화고 졸업생 취업에 대한 학교 효과 분석: HGLM 모형을 활용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6(3), 59-82.
- 이정규. (2011). 특성화 고등학교별 진로선택과 진로지도의 비교.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종범, 최동선, 오창환. (2012). 고등학생의 직업포부 수준 결정요인.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4(4), 25-43.
- 이재규. (2003). 학력획득에 대한 가정배경의 영향에서 가정 내 사회적 자본의 영향과 역할. 제 5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노동연구원.
- 이지혜, 정철영. (2010).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의 취업 장벽과 관련 변인.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2(1), 25-47.
- 이학신, 임지훈, (2005). SPSS 12.0 매뉴얼. 경기: 도서출판 법문사.
- 이훈영. (2008). 이훈영 교수의 연구조사방법론. 서울: 도서출판 청람.
- 이휘인, 김현철. (2015). 특성화고 학생의 진로결정 및 중학생의 특성화고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 2014 서울교육중단연구를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1(6), 169-190
- 이희숙, 정제영. (2011). 교사 특성이 학생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분석 - TIMSS 2007의 교사 전문성 계발 노력 변인을 중심으로 -. 한국교육학회연구, 28(1), 243-266.

- 임나영. (2014).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결정상태 유형 분석**.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나영, 이창훈. (2015). **공업계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사회적 지지에 따른 진로 결정상태 유형 분석**. **대한공업교육학회지**, 40(1).
- 장계영, 김봉환. (2011). **대학생 진로적응성 척도 개발**. **상담학 연구**, 12(2), 539-558.
- 장명희, 김선태, 박윤희, 최동선. (2010).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특성화고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장상수. (2014). **학력성취의 계급별·성별 차이**. **한국사회학**, 38(1), 51-75.
- 장유식. (2003).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자아인식에 따른 진로인식의 차이**.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현진, 이지혜. (2012). **특성화고 학생의 취업선택 결정요인에 관한 다층분석**. **직업능력개발원**, 15(2), 51-74.
- 정소영. (2013).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진로결정상태유형에 따른 진로준비행동 분석**. 가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재훈. (2012). **체육전공 고등학생의 학교 유형에 따른 체육수업 흥미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철영(1997). **실업계고등학교의 실태와 발전방향**. **직업교육연구**, 16(1), pp. 1-30.
- 정철영. (2001). **직업교육체제 개편방안**. 제1회 전문대학 교육정책포럼 발표자료.

- 전하람. (2006). **학교 내 의미 있는 타인이 교육포부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아미. (2007). 청소년의 직업결정유형과 직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논문집**, 5(1), 11-20.
- 조은상, 강종훈. (1999).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기초수학능력 실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기본연구 99-30.
- 조한익. (2004). HLM을 이용한 교사효능감과 학생의 성취목표지향성간의 관계 연구. **교육심리연구**, 18(2), 1-16.
- 지성필, 이창훈. (2016). 공업계 특성화고등학교 교사의 학급경영활동과 학생의 진로결정수준의 관계. **한국기술교육학회지**, 16(2), 191-211.
- 진명구. (2000). **실업계 고등학교 조직 내 갈등에 관한 사례연구**. 한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채창균. (2009). **전문계 고교 졸업생의 진로 선택**.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최동선. (2009). 전문계 고교생의 대학진학 계획: 1차 년도와 4차 년도의 비교. **HRD review, Spring**. 59-74.
- 최동선, 이수경, 김나라, 정진철. (2010). **전문계고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방안 연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최재경. (2004). **직업전문학교 훈련생들의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장벽**. 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현주, 정윤미, 김지원, 이상민. (2015). 위계선형모형(HLM)을 적용한 초등학생의 학생-교사 애착, 학급풍토, 학교행복감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29(3),

129-149.

최호승, 이종호. (2012). 충남지역 상업계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정책 및 성과에 대한 교사의 인식 연구. *한국경영교육학회*, 27(6), 353-372.

한국교육개발원. (2010). *2010년 교육통계 분석 자료집*.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황정훈. (2012). *전문대학생의 문화자본과 학업성취의 관계분석 - 교육포부와 직업포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공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Bandura, A. (1982). Self-efficacy mechanism in human agency. *American Psychologist*, 37, 122-147.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s: A social cognitive theory*. New Jersey: Prentice Hall.

Berberly, M. L., & O' Brien, K. M. (2017). Going to College? Latina/Latino High School Students' College-Going Self-Efficacy and Educational Goals.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Bliese, P. D. (1998). Group size, ICC values, and group-level correlations: A simulation.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1(4), 355-373.

Brown, S. D., & Lent, R. W. (Eds). (2005). *Career development and counseling: Putting theory and research to work*, NJ: John Wiley &

Sons.

Burr, W. R., Leigh, G. K., Day, R. D., & Constantine, J. (1979). Symbolic Interaction and the Family. In W. R. Burr, R. Hill, F. I. Nye, & I. Reiss (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Vol. 2, pp. 42–111). New York: Free Press.

Colemana, J. S. (1990). *Equality and Achievement in Education*. Boulder, CO: Westview Press.

Cranston, P., & Leonard, M. M. (1990). The relationship between undergraduates' experiences of campus micro-inequities and their self-esteem and aspiration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Crites, J.O. (1961). A model for the measurement of vocational maturi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8, 255–259.

Crites, J. (1971). The maturity of vocational attitudes in adolescence.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20(1), 82–82.

Danes, S. M., Rodriguez, M. C., & Brewton, K. E. (2013). Learning context when studying financial planning in high schools: Nesting of student, teacher, and classroom characteristics. *Journal of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24(2), 20.

Ginzberg, E. (1972). Toward a theory of occupational choice: A restatement. *The Vocational Guidance Quarterly*, 20, 169–176.

Gray, M. P., & O'Brien, K. M. (2007). Advancing the assessment of women's career choices: The Career Aspiration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5, 317–337.

Gottfredson, L. S. (1981).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A development theory of occupational aspira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 545–579.

Gottfredson, L. S. (1996). Gottfredson's theory of circumscription and compromise.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179–232.

Gottfredson, L. S. (2002). *Gottfredson's theory of circumscription, compromise, and self-creation*. In D. Brown & L. Brooke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4th ed., pp. 85–148). San Francisco: Jossey-Bass.

Hauser, R. M. & Anderson, D. K. (1991). Post-high school plans and aspiration of black and white high school seniors: 1976– 86. *Sociology of Education*, 64(4), 263–277.

Hsu, L. (2013). Work motivation, job burnout, and employment aspiration in hospitality and tourism students—An exploration using the self-determination theory. *Journal of Hospitality, Leisure, Sport & Tourism Education*, 13, 180–189.

Klein, J. K. & Kozlowski, S. W. J. (2000). From micro to meso: Critical steps in conceptualizing and conducting multilevel research.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3(3), 211–236.

Lewin, K., Dembo, T., Festinger, L., Sears, P. S., Hunt, J. McV. (1944). *Level of aspiration*. *Personality and the behavior disorders*, 1: 333–378.

-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1994).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 79–122.
- Meyer, R. H. & Wise, D. A. (1982). *High school preparation and early labor force experience*. In the youth labor market problem: Its nature, causes and consequences, Freeman, R. B. & Wise, D. A. pp. 277–341.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unro, B. H. (1981). Drop outs from higher education: Path analysis of a national sample. *American Educational Journal, 18*(2), 133–141
- O'Brien, K. M., Gray, M. P., Touradji, P. P., & Eigenbrode, S. P. (1996). The operationalization of women's career choices: The career aspiration scale. In V. S. Solberg, & K. M. O'Brien (Eds.), *Promoting women's career development in to the next millenium and beyond*. Symposium conducted at the 104th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Ontario, Canada.
- Parsons, F. (1909). *Choosing a vocation*. Houghton Mifflin.
- Raudenbush, S. W. & Bryk, N. S. (2002). *Hierarchical Linear Models: Applications and Data Analysis Methods*. London: Sage Publications.
- Raudenbush, S. W. (2004). *HLM 6: Hierarchical linear and nonlinear modeling*. USA: Scientific Software International.
- Saha, L. J. (1994). Aspirations and expectations of students. In *The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Education, 2nd ed.*, ed. by T. Husen and

- T. N. Post lethwaite. Oxford: Pergamon Press, 354–358.
- Schoon, I., & Parsons, S. (2002). Teenage aspiration for future careers and occupational outcom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0, 262–288.
- Sewell, W. H., Haller, A. O., and Straus, M. A.(1957). Social status and educational and occupational aspira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2(1), 67–73.
- Sewell, W. H.(1964). Community of residence and college plan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9(1), 24–38.
- Sewell, W. H. and Orenstein, A. M.(1965). Community of residence and occupational choic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0(2), 551–563.
- Sewell, W. H., Haller, A. O., and Portes, A.(1969). The educational and early occupational attainment proces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4(1), 82–92.
- Sewell, W. H., Haller, A. O., and Ohlendorf, G. W.(1970). The educational and early occupational attainment process: replication and revis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5(6), 1014–1027.
- Sewell, W. H., Hauser, R. M., and Wolf, W. C.(1980). Sex, schooling and occupational statu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6(3), 551–583.
- Super, D. E. (1963). Self-concepts in vocational development. *Career development: Self-concept theory*, 1–16.
- W. H. Sewell, A. O. Haller, A. Portes. (1969). The educational and early occupational attainment proces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82–92.

Yi, H., Li, G., Li, L., Loyalka, P., Zhang, L., Xu, J., Chu, J. (2017). Assessing the Quality of Upper-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Evidence from China.

설문지 (학생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에서 직업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박자경이라고 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 설문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포부와 학생 및 교사 특성의 위계적 관계를 파악하고자 제작되었습니다. 귀하가 응답해주신 내용은 향후 특성화고등학교 관련 직업교육 연구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귀하의 솔직하고 성의 있는 대답은 본 연구를 위해 매우 소중한 자료로서 좋은 연구결과를 얻기 위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 설문지는 분석에 사용할 수 없으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지는 총 9쪽이며, **응답하시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20분**입니다. 귀하의 설문 응답결과는 **통계법 제 13조 2항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처리**되며, 본 연구목적을 위한 통계 분석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응답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2017년 9월
서울대학교 농산업교육과
석사과정 박 자 경
지도교수 최 수 정

1. 귀하가 특성화고등학교에 입학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 ① 진학보다 취업을 더 선호해서 ⑥ 부모님의 권유로
 ② 내가 원하던 분야이므로 ⑦ 선생님의 권유로
 ③ 가정형편 때문에 ⑧ 특별한 이유 없음.
 ④ 성적 때문에 ⑨ 기타
 ⑤ 대학 진학에 유리할 것 같아서 (_____)

2. 다음은 ‘취업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과 일치하는 곳에 체크(V)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지금 나의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직장에 취업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직업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바가 뚜렷하다.	①	②	③	④	⑤
3. 현재 취업준비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취업을 위해 세워놓은 계획을 잘 실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오래전에 취업계획을 세워놓았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기 위하여 나이와 무관하게 결혼을 미룰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취업준비가 어렵더라도 전문직에 취업하겠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한 대안도 준비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취업을 위하여 학교 이외의 다른 교육기관을 이용할 계획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직장에서 원하는 자리에 도달하기 위하여 자신의 노력보다 배경이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취업 후 직업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위해 계속 공부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 귀하는 어느 수준까지 교육을 받고 싶으십니까?

- ___ ①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
- ___ ② 전문대학 졸업
- ___ ③ 4년제 대학교 졸업
- ___ ④ 대학원 졸업

4. 귀하가 느끼기에 귀하의 부모님(보호자)은 귀하가 어느 수준까지 교육을 받길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
- ___ ② 전문대학 졸업
- ___ ③ 4년제 대학교 졸업
- ___ ④ 대학원 졸업

5. 다음은 '전문교과(전공교과)'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과 일치하는 곳에 체크(V)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전문교과 시간에 배우는 내용은 흥미롭다.	①	②	③	④	⑤
2. 장래에 하고자 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문교과 수업을 열심히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경력(전망, 기회)을 향상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문교과 수업을 열심히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4. 내가 나중에 공부하고 싶은 것들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교과 수업을 열심히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직업을 얻는데 도움이 되는 많은 것들을 전문교과 수업을 통해 배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내가 배우고 싶은 것들을 전문교과 수업을 통해 배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다음은 '학교생활 만족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과 일치하는 곳에 체크(V)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기다려진다.	①	②	③	④	⑤
2. 다른 학교로 전학가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3. 학교생활이 지루하다.	①	②	③	④	⑤
4. 방학이 끝난 후에 학교에 가는 것이 기쁘다.	①	②	③	④	⑤
5.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6. 학교에 오면 기쁘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7. 귀하는 특성화고등학교 재학 중 **현장실습 등 취업관련 경험**이 있습니까?

	경험 여부	
	경험	미경험
1. 산업체 견학 및 체험(단기)		
2.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장기)		
3. 취업 맞춤형		
4. 방과 후 학교 및 동아리 활동		

8. 다음은 '가족 내 대화정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과 일치하는 곳에 체크(V)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모님과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자주 대화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적성 및 흥미에 대해 자주 대화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 학교, 학과 선택에 대해 자주 대화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 직업학교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 자주 대화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9. 다음은 '가정의 진로지시'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과 일치하는 곳에 체크(V)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자신(아버지, 어머니, 보호자 등)의 직업에 대해 이야기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2. 지금 배우고 있는 것들이 장래 직장에서 일할 때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3. 자신(아버지, 어머니, 보호자 등)이 일하는 곳을 보여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직장에서 어떤 종류의 일을 하는지 이야기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5. 직업을 갖는 일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 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6.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하여 장점, 단점과 전망을 알려준다.	①	②	③	④	⑤
7. 내가 직업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사회, 경제, 정치 등의 잘 모르는 상황을 알려준다.	①	②	③	④	⑤
8. 좋은 직업들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다.	①	②	③	④	⑤
9. 취업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나 자격증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다.	①	②	③	④	⑤
10. 좋은 직업을 구하기 위해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조언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11. 내가 진로에 대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배려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12. 내가 진로에 대해 고민할 때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한 대화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내가 가끔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것을 이해해주고, 내 의견을 받아들여준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에게 취업이나 진학에 대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내가 어떤 진로를 선택하든 응원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10. 다음은 ‘**학교의 취업지원**’에 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과 일치하는 곳에 체크(V)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교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요즘 시대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회, 경제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여러 가지 직업의 장점과 단점, 전망과 취업 후 진학에 대한 정보 등을 알려 준다.	①	②	③	④	⑤
3. 다양한 직업에서 실제로 하는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준다.	①	②	③	④	⑤
4. 비슷한 생활을 한 선배들이 직장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대해 알려준다.	①	②	③	④	⑤
5. 좋은 일자리나 직업에 대해 스스로 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정보와 자료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지금 배우고 있는 것들이 미래 직업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알려준다.	①	②	③	④	⑤
7. 인터넷이나 TV 등 일상 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보다 정확하고 믿을 만한 정보를 알려준다.	①	②	③	④	⑤
8. 미래 직업을 준비하기 위한 시험, 경쟁률, 일정, 자격조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과 조언을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10. 좋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수업과 상담을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미래 직장에서 활용할만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설과 도구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비슷한 직업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우리 학교는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3. 앞으로 원하는 직업과 관련된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14. 미래 직장에서 활용할만한 지식과 기술을 터득할 수 있는 활동이나 실습, 자격증 취득 기회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다양한 기업, 회사와 학교가 맺고 있는 계약을 통해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16.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포트폴리오 작성, 면접 지도 등 직업을 구하기 위해 하는 활동을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17.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진로문제에 관해 마음 놓고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하고 싶은 직업을 자유롭게 탐색해 볼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선택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진로 문제를 이해하고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상담이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미래 직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21. 미래 직업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배우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22. 미래 직업을 결정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과 불안을 함께 고민하고 이해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23. 학생이 하려고 하는 일에 금지를 갖도록 응원하고 격려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24. 졸업 후에도 진로를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11. 귀하의 평균 성적은 대략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낮은 편이다	낮은 편이다	보통 수준이다	높은 편이다	매우 높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2. 귀하의 가정의 경제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매우 어려운 편이다	어려운 편이다	보통 수준이다	잘 사는 편이다	매우 잘 사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귀하는 현재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계십니까?

- ___ ① 예
___ ② 아니오 (이혼, 별거 중인 경우 포함)

14. 귀하의 현재 전공은 무엇입니까?

(_____)

15. 귀하가 사는 곳은 어디지역입니까?

- ___ ① 도시지역 ___ ② 읍·면·리 지역

16.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___ ① 남자 ___ ② 여자

17. 귀하의 반은 몇 반입니까?

3학년 (_____)반

- 감사 합 니 다 -

설문조사 (교 사 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에서 직업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박자경이라고 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 설문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포부와 학생 및 교사 특성의 위계적 관계를 파악하고자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응답해주신 내용은 향후 특성화고등학교 관련 직업교육 연구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귀하의 솔직하고 성의 있는 대답은 본 연구를 위해 매우 소중한 자료로서 좋은 연구결과를 얻기 위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 설문지는 분석에 사용할 수 없으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지는 총 5면이며, **응답하시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15분**입니다. 귀하의 설문 응답결과는 **통계법 제 13조 2항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처리**되며, 본 연구목적을 위한 통계 분석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응답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2017년 09월
서울대학교 농산업교육과
석사과정 박 자 경
지도교수 최 수 정

1. 다음은 ‘중등직업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과 일치하는 곳에 체크(V)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 직업교육”이란 학생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중등 직업교육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생이 사회에서 직업인에게 요구하는 직업적 양심, 사회적 규범과 같은 직업윤리를 갖도록 돕는다.	①	②	③	④	⑤
2. 학생 개개인의 적성에 맞는 분야의 직업에 종사하게 하여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3. 학생이 일의 세계를 탐색하여 자기의 적성·흥미·능력에 알맞은 일을 선택하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학생의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킨다.	①	②	③	④	⑤
5. 학생의 졸업 후 원활한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돕는다.	①	②	③	④	⑤
6. 다양한 산업분야의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여 노동시장의 스킬 미스매치를 해소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산업계가 요구하는 우수기술인재를 양성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중도 탈락의 가능성이 있는 학생에게 취업을 위한 준비 및 심리적 안정 기능을 제공하여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사교육비, 대학 등록금 등 가계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조기입직을 통한 경제활동인구 증가로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직업에 관한 소양을 개발하여 바람직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평생에 걸쳐 스스로 변화하는 직업에 대한 적응력을 가진 민주시민을 양성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다음은 ‘교사의 취업지도능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본인의 취업지도능력 정도에 대하여 일치하는 곳에 체크(V)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담임교사)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동향과 채용관련 정책을 취업지도 계획 수립에 반영한다.	①	②	③	④	⑤
취업지도 내용을 선정하여 연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한다.	①	②	③	④	⑤
학생들의 취업 여부를 파악한다.	①	②	③	④	⑤
학생들의 취업희망 내용을 분석한다.	①	②	③	④	⑤
최근 몇 년간의 학교 취업을 추이를 분석한다.	①	②	③	④	⑤
전년도 취업지도평가와 학생 취업여부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학교취업목표를 설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학생들이 희망한 직업의 직무를 정확히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학생들이 희망하는 직업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직무수행능력, 직업기초능력)을 파악한다.	①	②	③	④	⑤
학생의 취업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성적, 자격증, 직업기초능력수준 등)를 수집하여 분석한다.	①	②	③	④	⑤
다양한 검사도구(인적성 검사)를 활용하여 학생의 취업능력을 진단하여 결과를 해석한다.	①	②	③	④	⑤
학생의 취업능력 진단결과를 동료교사와 공유하여 부족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구직기술 향상을 위한 모의면접, 이미지메이킹, 프레젠테이션 등을 교육한다.	①	②	③	④	⑤
학생들이 희망하는 산업체를 탐색하여 취업처로서 적합한지를 분석한다.	①	②	③	④	⑤
전화, 메일, 방문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취업처를 섭외한다.	①	②	③	④	⑤
산업체 인사 담당자, 인터넷, 신문 등의 경로를 통하여 채용정보를 수집분석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담임교사)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학생들에게 채용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한다.	①	②	③	④	⑤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취업처에 대한 자료를 구조화하여 관리한다.	①	②	③	④	⑤
취업처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①	②	③	④	⑤
구인/구직자가 요구하는 사항(급여, 희망지역, 부서, 업체, 전공, 성격 등)을 정확하게 비교한다.	①	②	③	④	⑤
구인업체와 구직자를 매칭하기 위해 그들의 요구를 조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학생들의 직업선택 및 취업결정 등을 위한 취업상담을 수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학부모의 의견을 듣고 정보를 교환하여 학생의 취업결정과정에서 필요한 상담을 수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입사 지원서를 채용 공고문의 요구사항에 맞게 작성하도록 지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입사에 필요한 다양한 서류(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생활기록부, 주민등록등본, 현장실습근로계약서 등)를 제대로 구비했는지 점검한다.	①	②	③	④	⑤
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취업생을 지도하기 위해 추수지도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①	②	③	④	⑤
직장생활의 어려운 점, 안전 등의 현장상황을 점검하고 취업생이 해당 직업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학생의 산업체 부적응 원인을 파악하여 재취업을 지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취업지도 평가를 위한 자료(취업 학생 수, 취업분야, 취업처 확보 등)를 수집하여 분석한다.	①	②	③	④	⑤
취업지도 분석 결과(취업률, 전년 대비 변화율 등)를 바탕으로 성과를 평가하고 정리한다.	①	②	③	④	⑤
모니터링을 통해 얻은 정보, 의견, 성과 등을 학교구성원들과 공유하고 향후 취업지도 추진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3. 귀하의 담당교과목명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예: 국어, 영어, 기계, 등)

4. 귀하의 전체 교직 근무년수를 적어주세요.

()년 ()월

5. 현재 학교에서의 교직 근무년수를 적어주세요.

()년 ()월

6.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___ ① 남성

___ ② 여성

7. 귀하의 현재 직위는 어떻게 됩니까?

___ ① 수석교사

___ ② 부장교사

___ ③ 교사

8.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됩니까?

___ ① 대학교 졸업

___ ② 대학원 석사 졸업

___ ③ 대학원 박사 졸업

9. 귀하가 담임을 맡고 있다면 몇 학년 몇 반입니까?

()학년 ()반

- 감사 합 니 다 -

설문지 (학생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에서 직업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박자경이라고 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 설문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포부와 학생 및 교사 특성의 위계적 관계를 파악하고자 제작되었습니다. 귀하가 응답해주신 내용은 향후 특성화고등학교 관련 직업교육 연구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귀하의 솔직하고 성의 있는 대답은 본 연구를 위해 매우 소중한 자료로써 좋은 연구결과를 얻기 위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 설문지는 분석에 사용할 수 없으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지는 총 7쪽이며, **응답하시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20분**입니다. 귀하의 설문 응답결과는 **통계법 제 13조 2항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처리**되며, 본 연구목적을 위한 통계 분석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응답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2017년 10월
서울대학교 농산업교육과
석사과정 박 자 경
지도교수 최 수 정

1. 귀하가 특성화고등학교에 입학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 ① 진학보다 취업을 더 선호해서 ⑥ 부모님의 권유로
 ② 내가 원하던 분야이므로 ⑦ 선생님의 권유로
 ③ 가정형편 때문에 ⑧ 특별한 이유 없음.
 ④ 성적 때문에 ⑨ 기타
 ⑤ 대학 진학에 유리할 것 같아서 (_____)

2. 다음은 ‘취업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과 일치하는 곳에 체크(V)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지금 나의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직장에 취업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직업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바가 뚜렷하다.	①	②	③	④	⑤
3. 현재 취업준비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취업을 위해 세워놓은 계획을 잘 실천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오래전에 취업계획을 세워놓았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기 위하여 나이와 무관하게 결혼을 미룰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취업준비가 어렵더라도 전문직에 취업하겠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원하는 직장에 취업하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한 대안도 준비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취업을 위하여 학교 이외의 다른 교육기관을 이용할 계획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0. 직장에서 원하는 자리에 도달하기 위하여 자신의 노력보다 배경이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취업 후 직업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위해 계속 공부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 귀하는 어느 수준까지 교육을 받고 싶으십니까?

- ___ ①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
 ___ ② 전문대학 졸업
 ___ ③ 4년제 대학교 졸업
 ___ ④ 대학원 졸업

4. 귀하가 느끼기에 귀하의 부모님(보호자)은 귀하가 어느 수준까지 교육을 받길 원한다고
 생각합니까?

- ___ ① 고등학교 졸업 후 취업
 ___ ② 전문대학 졸업
 ___ ③ 4년제 대학교 졸업
 ___ ④ 대학원 졸업

5. 다음은 '전문교과(전공교과)'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과 일치하는 곳에 체크(V)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전문교과 시간에 배우는 내용은 흥미롭다.	①	②	③	④	⑤
2. 장래에 하고자 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문교과 수업을 열심히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의 경력(전망, 기회)을 향상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문교과 수업을 열심히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4. 내가 나중에 공부하고 싶은 것들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교과 수업을 열심히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5. 내가 직업을 얻는데 도움이 되는 많은 것들을 전문교과 수업을 통해 배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내가 배우고 싶은 것들을 전문교과 수업을 통해 배울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다음은 '학교생활 만족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과 일치하는 곳에 체크(V)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학교에 가는 것이 기다려진다.	①	②	③	④	⑤
2. 다른 학교로 전학가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3. 학교생활이 지루하다.	①	②	③	④	⑤
4. 방학이 끝난 후에 학교에 가는 것이 기쁘다.	①	②	③	④	⑤
5.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	①	②	③	④	⑤
6. 학교에 오면 기쁘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7. 귀하는 특성화고등학교 재학 중 **현장실습 등 취업관련 경험**이 있습니까?

	경험 여부	
	경험	미경험
1. 산업체 견학 및 체험(단기)		
2.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장기)		
3. 취업 맞춤형		
4. 방과 후 학교 및 동아리 활동		

8. 다음은 '가족 내 대화정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과 일치하는 곳에 체크(V)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모님과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자주 대화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적성 및 흥미에 대해 자주 대화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3. 학교, 학과 선택에 대해 자주 대화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4. 직업학교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 자주 대화하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9. 다음은 '가정의 진로지시'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과 일치하는 곳에 체크(V)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자신(아버지, 어머니, 보호자 등)의 직업에 대해 이야기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2. 지금 배우고 있는 것들이 장래 직장에서 일할 때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3. 자신(아버지, 어머니, 보호자 등)이 일하는 곳을 보여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직장에서 어떤 종류의 일을 하는지 이야기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5. 직업을 갖는 일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 해 준다.	①	②	③	④	⑤
6.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하여 장점, 단점과 전망을 알려준다.	①	②	③	④	⑤
7. 내가 직업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사회, 경제, 정치 등의 잘 모르는 상황을 알려준다.	①	②	③	④	⑤
8. 좋은 직업들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다.	①	②	③	④	⑤
9. 취업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나 자격증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다.	①	②	③	④	⑤
10. 좋은 직업을 구하기 위해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조언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11. 내가 진로에 대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배려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12. 내가 진로에 대해 고민할 때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한 대화를 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내가 가끔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것을 이해해주고, 내 의견을 받아들여준다.	①	②	③	④	⑤
14. 나에게 취업이나 진학에 대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내가 어떤 진로를 선택하든 응원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10. 다음은 ‘**학교의 취업지원**’에 대한 문항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귀하의 의견과 일치하는 곳에 체크(V)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교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요즘 시대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사회, 경제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여러 가지 직업의 장점과 단점, 전망과 취업 후 진학에 대한 정보 등을 알려 준다.	①	②	③	④	⑤
3. 다양한 직업에서 실제로 하는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준다.	①	②	③	④	⑤
4. 비슷한 생활을 한 선배들이 직장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에 대해 알려준다.	①	②	③	④	⑤
5. 좋은 일자리나 직업에 대해 스스로 기준을 세울 수 있도록 정보와 자료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지금 배우고 있는 것들이 미래 직업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알려준다.	①	②	③	④	⑤
7. 인터넷이나 TV 등 일상 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보다 정확하고 믿을 만한 정보를 알려준다.	①	②	③	④	⑤
8. 미래 직업을 준비하기 위한 시험, 경쟁률, 일정, 자격조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과 조언을 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10. 좋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수업과 상담을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미래 직장에서 활용할만한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설과 도구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비슷한 직업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우리 학교는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3. 앞으로 원하는 직업과 관련된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14. 미래 직장에서 활용할만한 지식과 기술을 터득할 수 있는 활동이나 실습, 자격증 취득 기회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다양한 기업, 회사와 학교가 맺고 있는 계약을 통해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16.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작성, 포트폴리오 작성, 면접 지도 등 직업을 구하기 위해 하는 활동을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17.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진로문제에 관해 마음 놓고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하고 싶은 직업을 자유롭게 탐색해 볼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선택을 존중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진로 문제를 이해하고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상담이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미래 직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⑤
21. 미래 직업과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배우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22. 미래 직업을 결정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과 불안을 함께 고민하고 이해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23. 학생이 하려고 하는 일에 금지를 갖도록 응원하고 격려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24. 졸업 후에도 진로를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준다.	①	②	③	④	⑤

11. 귀하의 평균 성적은 대략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낮은 편이다	낮은 편이다	보통 수준이다	높은 편이다	매우 높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2. 귀하의 가정의 경제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매우 어려운 편이다	어려운 편이다	보통 수준이다	잘 사는 편이다	매우 잘 사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3. 귀하는 현재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계십니까?

(새아버지 새어머니가 계실 경우에는 ‘예’를 체크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와 어머니가 혼하셨거나 별거하신 경우에는 ‘아니오’에 체크하여 주십시오.)

___ ① 예

___ ② 아니오 (이혼, 별거 중인 경우 포함)

14. 귀하가 사는 곳은 어디지역입니까?

___ ① 도시지역

___ ② 읍·면·리 지역

15.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___ ① 남자

___ ② 여자

16. 귀하의 현재 반은 몇 반입니까?

(_____)과 3학년 (_____)반

- 감사 합 니 다 -

[부록 4] 설문지 교사용(본 조사용)

()과 3학년 ()반 담임교사

설문조사 (교사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산업교육과에서 직업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박자경이라고 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 설문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포부와 학생 및 교사 특성의 위계적 관계를 파악하고자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응답해주신 내용은 향후 특성화고등학교 관련 직업교육 연구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귀하의 솔직하고 성의 있는 대답은 본 연구를 위해 매우 소중한 자료로써 좋은 연구결과를 얻기 위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응답하지 않은 문항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 설문지는 분석에 사용할 수 없으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문지는 총 5면이며, 응답하시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15분입니다. 귀하의 설문 응답결과는 통계법 제 13조 2항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처리되며, 본 연구목적을 위한 통계 분석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응답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2017년 10월
서울대학교 농산업교육과
석사과정 박 자 경
지도교수 최 수 정

- 1 . 다음은 ‘중등직업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여러분의 의견과 일치하는 곳에 체크(V)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 직업교육”이란 학생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중등 직업교육은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생이 사회에서 직업인에게 요구하는 직업적 양심, 사회적 규범과 같은 직업윤리를 갖도록 돕는다.	①	②	③	④	⑤
2. 학생 개개인의 적성에 맞는 분야의 직업에 종사하게 하여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3. 학생이 일의 세계를 탐색하여 자기의 적성·흥미·능력에 알맞은 일을 선택하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4. 학생의 졸업 후 원활한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돕는다.	①	②	③	④	⑤
5. 다양한 산업분야의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여 노동시장의 스킬 미스매치를 해소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산업계가 요구하는 우수기술인재를 양성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중도 탈락의 가능성이 있는 학생에게 취업을 위한 준비 및 심리적 안정 기능을 제공하여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8. 사교육비, 대학 등록금 등 가계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9. 조기입직을 통한 경제활동인구 증가로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직업에 관한 소양을 개발하여 바람직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평생에 걸쳐 스스로 변화하는 직업에 대한 적응력을 가진 민주시민을 양성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다음은 ‘교사의 취업지도능력’에 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하여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본인의 취업지도능력 정도에 대하여 일치하는 곳에 체크(V)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담임교사)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취업동향과 채용관련 정책을 취업지도 계획 수립에 반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취업지도 내용을 선정하여 연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한다.	①	②	③	④	⑤
3. 학생들의 취업 여부를 파악한다.	①	②	③	④	⑤
4. 학생들의 취업희망 내용을 분석한다.	①	②	③	④	⑤
5. 최근 몇 년간의 학교 취업을 추이를 분석한다.	①	②	③	④	⑤
6. 전년도 취업지도평가와 학생 취업여부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학교취업목표를 설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7. 학생들이 희망한 직업의 직무를 정확히 이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8. 학생들이 희망하는 직업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직무수행능력, 직업기초능력)을 파악한다.	①	②	③	④	⑤
9. 학생의 취업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성적, 자격증, 직업기초능력수준 등)를 수집하여 분석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다양한 검사도구(인적성 검사)를 활용하여 학생의 취업능력을 진단하여 결과를 해석한다.	①	②	③	④	⑤
11. 학생의 취업능력 진단결과를 동료교사와 공유하여 부족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구직기술 향상을 위한 모의면접, 이미지메이킹, 프레젠테이션 등을 교육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학생들이 희망하는 산업체를 탐색하여 취업처로서 적합한지를 분석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전화, 메일, 방문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취업처를 섭외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산업체 인사 담당자, 인터넷, 신문 등의 경로를 통하여 채용정보를 수집분석한다.	①	②	③	④	⑤

나(담임교사)는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6. 학생들에게 채용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한다.	①	②	③	④	⑤
17.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취업처에 대한 자료를 구조화하여 관리한다.	①	②	③	④	⑤
18. 취업처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구인/구직자가 요구하는 사항(급여, 희망지역, 부서, 업체, 전공, 성격 등)을 정확하게 비교한다.	①	②	③	④	⑤
20. 구인업체와 구직자를 매칭하기 위해 그들의 요구를 조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학생들의 직업선택 및 취업결정 등을 위한 취업상담을 수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22. 학부모의 의견을 듣고 정보를 교환하여 학생의 취업결정과정에서 필요한 상담을 수행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입사 지원서를 채용 공고문의 요구사항에 맞게 작성하도록 지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24. 입사에 필요한 다양한 서류(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생활기록부, 주민등록등본, 현장실습근로계약서 등)를 제대로 구비했는지 점검한다.	①	②	③	④	⑤
25. 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취업생을 지도하기 위해 추수지도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①	②	③	④	⑤
26. 직장생활의 어려운 점, 안전 등의 현장상황을 점검하고 취업생이 해당 직업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27. 학생의 산업체 부적응 원인을 파악하여 재취업을 지원한다.	①	②	③	④	⑤
28. 취업지도 평가를 위한 자료(취업 학생 수, 취업분야, 취업처 확보 등)를 수집하여 분석한다.	①	②	③	④	⑤
29. 취업지도 분석 결과(취업률, 전년 대비 변화율 등)를 바탕으로 성과를 평가하고 정리한다.	①	②	③	④	⑤
30. 모니터링을 통해 얻은 정보, 의견, 성과 등을 학교구성원들과 공유하고 향후 취업지도 추진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①	②	③	④	⑤

3. 귀하의 담당교과목명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예: 국어, 영어, 기계, 등)

4. 귀하의 전체 교직 근무년수를 적어주세요.

()년 ()월

5. 현재 학교에서의 교직 근무년수를 적어주세요.

()년 ()월

6. 귀하의 나이를 적어주세요.

()세

7.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___ ① 남성

___ ② 여성

8. 귀하의 현재 직위는 어떻게 됩니까?

___ ① 수석교사

___ ② 부장교사

___ ③ 교사

9.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됩니까?

___ ① 대학교 졸업

___ ② 대학원 석사 졸업

___ ③ 대학원 박사 졸업

10. 귀하가 담임을 맡고 있는 반은 몇 반입니까?

()과 3학년 ()반

- 감사합시다 -

Abstract

A Hierarchical Linear Relationship of Student and Classroom Variables with Employment Aspirations of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By Jakyung Park

Thesis for the Master of Science in Education in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2018

Major Advisor: Sujung Choi, Ph. D.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among employment aspiration, student and classroom level variables of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Specific objectives to accomplish the research goal were as follows: first, to assess whether there is any difference in the level of employment aspiration based on student and classroom level; second, to examine the effect of student and classroom variables on employment aspiration.

Student characteristics variables were composed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 interest in vocational education; grade; educational aspiration; home environment characteristic; home career support.

Classroom level variables were composed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 recognizing of vocational education; ability to employment guidance; employment support.

The survey was undertaken from October 13th to October 29th 2017 with a target sample population of 800 students from 40 class. Data was collected from 765 students belonging to 38 different class; showing a 97.0% return rate.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 significant between-group variance in employment aspiration existed. It was found that about 14.3% of the variance of employment aspiration is between different teacher while the remainder 85.7% is attributed to student level variance and random error. Second, in the random coefficient regression model, interest in specialty courses, grade, home career support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employment aspiration. Third, in the regression with means-as-outcomes, manager teacher, class series(industry), the degree of employment support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employment aspiration. Fourth, the analysis of the interaction effect revealed that class manager teacher had a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ment aspiration and grade. In addition the degree of employment support recognized by the student also had a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mployment aspiration and industry tour.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from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is a need to accumulate empirical studies on the quality of employment of specializing high school students and job ambitions. Second, systematic career guidance should be conducted in consideration of students' employment aspirations in the job

guidance of the specialization high school students. Third, more empirical studies should be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pecial high school students and homeroom teachers. In this study, it was analyzed that homeroom teachers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level of job ambition of high school studen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urther study the variables of the homeroom classroom level. Fourth, appropriate feedback should be provided after the employment support activities of the specialization high school. Fifth, further analysis is needed on the difference between the school level variable and the classroom level variable.

Key words: Employment Aspiration,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Multilevel Analysis, Hierarchical Linear Modling(HLM)

Student Number: 2016–21696